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2007. **3** Vol. 183

www.bsculture.busan.kr

반갑습니다 _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 이충한

아름다운 시 · 아름다운 노래 _ 민족의 노래 봉선화

어화둥둥 이야기 국악 _ 선조들의 음악적 삶 · 선풍도골(仙風道骨)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_ 파리의 지하철 음악가들



클래식의 대중화 선언!!!

국내 최정상급 성악가와 함께하는

신춘음악회

2007년 3월 20일(화) 7:30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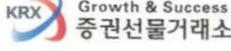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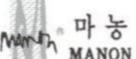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 Sol'Opera 솔오페라단

부산·경남 대표채널 **KNN**  부산일보사

주관 |  가람공연기획
www.garamarthall.co.kr

협찬 |  대성 N 스킴  Kolon Motors  PARADISE HOTEL BUSAN

 Growth & Success 증권선물거래소  Gewiss land  마농 MANON  world wine WORLD WINE CO., LTD.  부산와인스쿨 <http://busanwine.com>  555-5000

출연진



지휘 주제베 핀찌



Sop. 김영미



Sop. 김유섬



Bass 양희준



Bar. 우주호

G. Verdi
F. Lehár
J. Offenbach
E. di Capua
임공수
변훈



Ten. 나승서



M.Sop. 박소연



Ten. 김화정



Bar. 조현수



Busan Symphony Orchestra

예매처 | 1544-9373  부산은행 티켓365 1588-2528  인터파크 1544-1555  TicketLink 티켓링크 1588-7890

공연문의 및 예약 : 051) 740-5750, 626-6664 www.garamarthall.co.kr 전화·인터넷 예매시 10% 할인 입장권 : VIP석 100,000원 R석 80,000원 S석 50,000원 A석 30,000원 학생 10,000원

초대형 그랜드 오페라 <모세>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웅장하고 아름다운 합창곡이다. 모세가 기적을 행하여 홍해가 갈라지는 스펙타클한 장면은 무대예술의 극치로 오페라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

롯시니 오페라 모세

2004년 4월 전석 매진기록

앵콜공연

MOSSE



명예단장
안민



단장
이홍길



지휘
박종휘



연출
김성경



음악코치
안선애



모세
권영기



아나아데
이윤정



아메노피
양승엽



엘리제로
황성학



시나이데
이영화



파라오
배재진



마리아
박소연



오지리데
문태은



아우피데
박종현



모세
정용욱



아나아데
이정란



아메노피
임충진



엘리제로
박훈



시나이데
김윤희



파라오
최정수



마리아
성미진



오지리데
양종근



아우피데
안우영



모세
권영기



아나아데
정명지



아메노피
문대진



엘리제로
최춘식



시나이데
정미순



파라오
배웅철



마리아
임혜진



오지리데
강호성



아우피데
유현진



모세
안균형



아나아데
배수진



아메노피
김경



엘리제로
박훈



시나이데
엄말영



파라오
최판수



마리아
강희영



오지리데
최은수



아우피데
김성민

오케스트라 | 인 코리아 심포니 오케스트라

합창 | 한국오페라 합창단

부산문화회관 대강당
PUSAN CULTURAL CENTER MAIN HALL

2007년 4월 14일(토)~17일(화) 오후 7시 30분

김해문화의전당
Gimhae Arts and Sports Center

2007년 4월 23일(월)~24일(화) 오후 7시 30분

입장권

VIP석 100,000원 | R석 70,000원
S석50,000원 | A석40,000원 | B석30,000원
(공연 1달 전 구입하시는 6인이상 단체 50%할인, 3월13일까지)

주최 | 온누리 오페라단

후원 | 창원극동방송 CBS기독교방송

협찬 | 고신대학교 고신의료원 DSR제강(주) 우진선박(주)
동진고무(주) YAMAHA악기부산총판 승신건설(주)

광고 협찬 티켓구입 문의 (051)517-7797, 011-839-1084

부산문화회관

3월 토요일 상설무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 3월 10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 수제천(집박/유경조 · 소금/김영민 · 대금/이만형, 강은주, 한영길 · 피리/박춘석, 최성교, 정주아 · 해금/하지행, 최윤정, 정수경 · 아쟁/권혜정 · 장구/이장우 · 좌고/송강수)
- 대금 독주 '김동진류' (대금/채수만 · 장구/신문범)
- 가야금중주 민요메들리 '아리랑, 밀양아리랑' (18현/정미자, 윤경선 · 22현/김혜진, 정세희 · 장구/장미진)
- 대풍류(대금/한영길 · 피리/진형준, 권미정 · 해금/방병원 · 장구/신문범 · 좌고/최오성)
- 시나위(대금/채수만 · 피리/박순자 · 해금/방병원 · 아쟁/최영훈 · 가야금/송영남 · 거문고/강상호 · 장구/신문범 · 징/전학수)

※해설/백규진

● 3월 17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시립무용단 공연

- 오고무(춤/윤은하, 이현주, 전해련, 안주희, 이현주 · 악사/김윤호, 장래훈, 김기원, 김진영)
- 산조춤(춤/서현미)
- 성주허튼춤(춤/이현숙)
- 사랑가(춤/박창희, 류권홍)
- 태평무(춤/황선희)
- 花開 부모춤(춤/권봉정, 김주령, 이정인, 오수연, 김경미 · 악사/장래훈, 김진영, 김기원, 김윤호, 이창규)

※안무, 구성/홍기태

● 3월 24일 토요일 오후 4:00 한국전통예술진흥회 부산광역시지회 연주회

- 동초제 흥보가 중 '박타는 대목' (판소리/신지선)
- 살풀이(춤/최복환)
- 성금년류 가야금산조(가야금/조정안)
- 동래학춤(춤/김정영, 차봉환, 정찬중, 김태진, 김영수)
- 경기민요 '노랫가락, 창부타령, 뱃노래' (소리/최영선, 김민수, 김재열, 강병수, 강옥련, 이광호, 조갑선, 조수진, 정상남, 함혜영)
- 장구와 어우러진 농부가(소리/김향옥, 신지영, 박윤선, 김영희, 조복자, 유태옥, 허봉자, 손미자)
- 모듬북(북/김귀수, 김정근, 신현진, 황영미, 이병일)

※반주자/신재현(아쟁), 이중희(대금), 조경화(가야금), 이주영(해금)

• 입장권 : 무료 (7세 이하 어린이는 공연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 (607-6070)

Contents

2007 · 03



28



36



43

- 06 부산문화회관 3월 공연 일정
- 10 마음을 여는 글 | 남성앙상블의 매력 · 김길수
- 12 반갑습니다 |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 이충한
- 14 아름다운 시, 아름다운 노래 | 민족의 노래 봉선화 · 김상훈
- 16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
파리의 지하철 음악가들 · 이연기
- 20 어화둥둥 이야기 국악 |
선조들의 음악적 삶 선풍도골(仙風道骨) · 강성일
- 22 우리춤 산책 | 태평무 · 홍기태
- 24 김형술의 그림에세이 | 잃어버린 신령들을 찾아서-예유근
<간힌 호랑이> · 김형술
- 26 연극속으로 | 연극과 시간 · 유상훈
- 28 그곳에 가면 | 지역주민의 열린문화공간 해운대문화회관
- 30 우리는 문화가족 | 동주여자상업고등학교 관악단
- 32 지금 준비중 | 창작가곡 독창회 준비하는
테너 장원상과 작곡가 최석태
- 34 이 사람 | 한울림합창단 단장 차재근
- 35 쉽게 듣는 클래식 | 소품 5 · 곽근수
- 36 문화가화제 | 2007 부산연극제
- 38 공연화제 |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웰빙콘서트 11시 립스틱 콘서트
- 40 세계의 뮤지컬 | 로미오와 줄리엣 · 이상훈
- 41 부산시립예술단 관람가이드
- 46 3월 프로그램 가이드
- 64 새로 나온 음반
- 65 새로 나온 책
- 66 부산문화회관 소식
- 68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 발행처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TEL. 625-8130, FAX. 607-6079
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회관길1(대연 4동 848-4)
- 발행인 조병규 | 편집인 공영훈 | 편집장 백경옥
- 발행일 2007년 2월 25일
- 인쇄처 (주)세한기획 TEL. 865-0080 FAX. 852-7085
614-050 부산광역시 진구 양정동 263-4 하이웰 B/D B1층

■ 표지설명 :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웰빙콘서트 두번째 무대 '박호성과 심수봉이 만나는 11시 립스틱 콘서트'가 3월 16일 오전 11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로 열린다.

※ 예술에의 초대는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게 무료로 우송해드립니다.

자세한 공연안내는 <http://www.bsculture.busan.kr>을 Click하세요.
(부산시립예술단을 비롯한 부산문화회관 공연은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3

월 공연일정

전시실

제 25회 대한민국 서예대전 및 미술대상전-대·중전시실

3월 4일(일)~3월 6일(화)

문의 박영석(861-0313, 011-9302-8865)

대한민국 서예대전-대전시실

3월 14일(수)~3월 17일(토)

문의 최연성(868-5236, 011-864-3698)

여성 현대 미술작가전-대전시실

3월 19일(월)~3월 25일(일)

문의 강정순(011-830-1230)

누드화 12인전-대전시실

3월 26일(월)~4월 1일(일)

문의 황외성(581-9689, 011-584-9689)

표 공연은 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로 예약하십시오. (안내 : 9쪽)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극장

MAIN THEATER

- 1 **thu** Love 콘서트 with 서경희 19:30
2만원 · 1만원/프리모 아트매니지먼트(622-5529, 016-861-6105)
- 2 **fri**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권혁주 초청 연주회'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3)
- 3 **sat**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제 20회 정기연주회 '드보르작의 음악세계' 19:30
3만원 · 2만원 · 1만원 · 5천원/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620-4917)
- 4 **sun**
- 5 **mon**
- 6 **tue** 서울팝스오케스트라 부산시민을 위한 현대백화점 신춘음악회 19:30
서울팝스오케스트라(02-593-8760)
- 7 **wed**
- 8 **thu**
- 9 **fri**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28회 정기연주회 '프랑스 음악과 세헤라자데'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3)
- 10 **sat** 이 시대 최고의 가객 장사의 조관우 김소현 초청 희망의 소리 2007 19:30
5만5천원 · 4만4천원 · 3만3천원 · 2만2천원/미래와음악(1544-3439)
- 11 **sun**
- 12 **mon** 연정CHM 5개년 공연기획 시리즈V 춤·화두·맥 그리고 창조 - 이윤자의 춤 '씻음 III' 19:30
3만원 · 2만원 · 1만원/부산대학교(510-2949, 1740)
- 13 **tue**
- 14 **wed**
- 15 **thu**
- 16 **fri**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웰빙콘서트 '박호성과 심수봉이 만나는 11시 립스틱 콘서트' 11:00
균일 1만5천원/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 17 **sat** 댄스컬 '사랑하면 춤을 춰라' 15:00, 19:00
4만원 · 3만원/KNN(1577-7600)
- 18 **sun** 댄스컬 '사랑하면 춤을 춰라' 14:00, 18:00
4만원 · 3만원/KNN(1577-7600)
- 19 **mon**
- 20 **tue** 솔 오페라단과 함께 하는 2007 신춘 음악회 19:30
10만원 · 8만원 · 5만원 · 3만원 · 2만원 · 1만원/가람기획(626-6664)
- 21 **wed**
- 22 **thu** 부산가야금연주단 연주회 '산조에서 비틀즈까지-현향신화 (絃響新辭)' 19:30
3만원 · 2만원/KNN(1577-7600)
- 23 **fri**
- 24 **sat** 극단가교 악극 '울고넘는 박달재' 16:00, 19:30
7만7천원 · 6만6천원 · 5만5천원 · 4만4천원/SM기획(442-6500)
- 25 **sun** 극단가교 악극 '울고넘는 박달재' 15:00, 18:30
7만7천원 · 6만6천원 · 5만5천원 · 4만4천원/SM기획(442-6500)
- 26 **mon** 유나이티드 코리아안 오케스트라 제 2회 정기연주회 19:30
2만원 · 1만원/장극태(011-582-5189)
- 27 **tue** 부산시립합창단 제 122회 정기연주회 '재회'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합창단(607-6126)
- 28 **wed**
- 29 **thu**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B-boy와 함께하는 韓流콘서트 '通'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 30 **fri**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라이징 스타 첼리스트 마리 할링크 초청연주회'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3)
- 31 **sat**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감사와 사랑이 가득한 세상' 17:00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6131)

중극장

MEDIUM THEATER

- 1 **thu**
- 2 **fri** 토요상설무대 부산문화회관 2007 지신밟기 16:00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45)
- 3 **sat** 부산멜로소오케스트라 제 4회 정기연주회 18:00
초대/부산멜로소오케스트라(611-7855, 010-5077-0097)
- 4 **sun** 인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제 29회 정기연주회 19:30
1만원 · 5천원/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011-565-8088)
- 5 **mon**
- 6 **tue** 홍성은&세르지오 셉킨 듀오 연주회 20:00
4만원 · 3만원/아트인부산(442-6500)
- 7 **wed** 부산음악협회 2007 신춘음악회 19:30
초대/부산음악협회(634-1295)
- 8 **thu**
- 9 **fri**
- 10 **sat**
- 11 **sun**
- 12 **mon** 단비울 남성앙상블 제 6회 정기연주회 19:30
초대/강성철(018-760-6468)
- 13 **tue**
- 14 **wed**
- 15 **thu** 부산시립극단 제 28회 정기공연 '수전노' 19:30
1만5천원 · 1만원 · 5천원/부산시립극단(607-6136)
- 16 **fri** 부산시립극단 제 28회 정기공연 '수전노' 19:30
1만5천원 · 1만원 · 5천원/부산시립극단(607-6136)
- 17 **sat** 부산시립극단 제 28회 정기공연 '수전노' 16:00
1만5천원 · 1만원 · 5천원/부산시립극단(607-6136)
- 18 **sun**
- 19 **mon**
- 20 **tue** 프로뮤지카 챔버 소사이어티 제 2회 정기연주회 19:30
3만원 · 2만원 · 1만원/프로인트(521-5729, 011-9142-5729)
- 21 **wed**
- 22 **thu**
- 23 **fri**
- 24 **sat**  아지무스 오페라단 '오페라 코지판 투테' 15:00, 19:30
5만원 · 3만원 · 2만원/아지무스 오페라단(011-9250-4649)
- 25 **sun**  아지무스 오페라단 '오페라 코지판 투테' 19:30
5만원 · 3만원 · 2만원/아지무스 오페라단(011-9250-4649)
- 26 **mon**  아지무스 오페라단 '오페라 코지판 투테' 19:30
5만원 · 3만원 · 2만원/아지무스 오페라단(011-9250-4649)
- 27 **tue** 제 32회 독우회 정기연주회 19:30
1만원 · 5천원/예은예술기획(632-6904, 010-4564-7592)
- 28 **wed** 부산 카머심포니오케스트라 제 15회 정기연주회 '클래식, 그 편안함!'
19:30 1만원 · 5천원/부산문화(635-9081), 안유경(011-579-3019)
- 29 **thu**
- 30 **fri** 2007 부산연극제 개막식 및 축하공연 '경숙이, 경숙아버지'
19:00 3만원 · 2만5천원/부산연극협회(645-3759)
- 31 **sat** 2007 부산연극제 축하공연-극단 골목길 '경숙이, 경숙아버지'
16:30, 19:30 3만원 · 2만5천원/부산연극협회(645-3759)

소극장

SMALL THEATER

- 1 **thu** 제 9회 푸른 소리 성악아카데미 음악회 15:00
무료/야창완(010-2262-2375)
- 2 **fri**
- 3 **sat** 국제음악학원 정기연주회 15:30
무료/국제음악학원(637-0286)
- 4 **sun** 이화 피아노 스튜디오 정기연주회 16:00
무료/강인희(011-245-4366)
- 5 **mon**
- 6 **tue**
- 7 **wed**
- 8 **thu**
- 9 **fri**
- 10 **sat** 토요상설무대-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11 **sun**
- 12 **mon**
- 13 **tue**
- 14 **wed**
- 15 **thu**
- 16 **fri** 장윤정 피아노 독주회 19:30
장윤정(011-9550-7560)
- 17 **sat** 토요상설무대-부산시립무용단 공연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18 **sun** (사)한국발리댄스 부산지부 제 1회 회원발표회 14:30
임윤미(016-283-0688)
- 19 **mon**
- 20 **tue**
- 21 **wed**
- 22 **thu**
- 23 **fri**
- 24 **sat** 토요상설무대-한국전통예술진흥회 부산광역시지회 공연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25 **sun**
- 26 **mon**
- 27 **tue**
- 28 **wed** 이호교의 콘트라베이스 이야기 19:30
균일 1만원/무직클라머(02-547-2629)
- 29 **thu**
- 30 **fri** 2007 부산연극제 자유참가작 '마법의 성과 피노키오의 모험'
11:00 1만5천원 · 1만2천원/극단 자유바다(622-3572)
- 31 **sat** 2007 부산연극제 자유참가작 '마법의 성과 피노키오의 모험'
14:00, 16:00 1만5천원 · 1만2천원/극단 자유바다(622-3572)

● 부산시내 기타공연 ③월 달력

부산시민회관

|문의 : 시민회관(630-5200)

- 1 **thu** 동백대상전국학생음악콩쿠르 09:00 - 소극장
스포츠한국(201-0222)
- 2 **fri** 오카리나 페스티벌 19:30 - 소극장
무료/이정미(010-4731-5415)
- 3 **sat** 나무자전거 만원의 행복 16:00, 20:00 - 대극장 준엔터테인먼트(1588-0376)
엔젤스토리 콘서트 15:00 - 소극장 초대/(주)efe(02-3282-5731)
- 4 **sun**
- 5 **mon** 월요일영화 '마파도 2' 14:00, 19:30 - 대극장
3천원 · 2천원 · 1천원/시민회관(630-5200)
- 6 **tue** 마커스 밀러 내한공연 20:00 - 대극장
7만7천원 · 6만6천원 · 5만5천원 · 4만4천원/아이엔터테인먼트(1588-3005)
- 7 **wed**
- 8 **thu**
- 9 **fri**
- 10 **sat**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 15:00, 19:30 - 대극장
인형극 '아기돼지 삼형제' 12:00, 14:00, 16:00 - 소극장 무지개극단(02-993-9733)
- 11 **sun**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 15:00, 19:30 - 대극장
인형극 '애벌레의 여행' 13:00, 15:00 - 소극장 무지개극단(02-993-9733)
- 12 **mon**
- 13 **tue**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 20:00 - 대극장
15만원 · 12만원 · 8만원 · 6만원 · 4만원/요요기획(622-5744)
- 14 **wed**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 20:00 - 대극장
15만원 · 12만원 · 8만원 · 6만원 · 4만원/요요기획(622-5744)
- 15 **thu**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 20:00 - 대극장
15만원 · 12만원 · 8만원 · 6만원 · 4만원/요요기획(622-5744)
- 16 **fri**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 20:00 - 대극장
15만원 · 12만원 · 8만원 · 6만원 · 4만원/요요기획(622-5744)
- 17 **sat**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 15:00, 19:30 - 대극장
콩쥐와 팥쥐엄마 12:00, 14:00, 16:00 - 소극장 서울도깨비(050-2134-2580)
- 18 **sun**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 15:00, 19:30 - 대극장
콩쥐와 팥쥐엄마 12:00, 14:00, 16:00 - 소극장 서울도깨비(050-2134-2580)
- 19 **mon**
- 20 **tue**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 20:00 - 대극장
15만원 · 12만원 · 8만원 · 6만원 · 4만원/요요기획(622-5744)
- 21 **wed**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 20:00 - 대극장
15만원 · 12만원 · 8만원 · 6만원 · 4만원/요요기획(622-5744)
- 22 **thu**
- 23 **fri**
- 24 **sat** 과학매직뮤지컬 16:00, 18:00 - 대극장 (주)쇼비즈엔터테인먼트(817-5612)
뮤지컬 '피터팬과 요정 퉁커벨' 12:00, 14:00, 16:00 - 소극장 해미소(02-974-5745)
- 25 **sun** 과학매직뮤지컬 11:00, 14:00, 16:00 - 대극장
뮤지컬 '피터팬과 요정 퉁커벨' 13:00, 15:00 - 소극장 해미소(02-974-5745)
- 26 **mon** 월요일영화 '룩키 발보아' 14:00, 19:30 - 대극장
3천원 · 2천원 · 1천원/시민회관(630-5200)
- 27 **tue** 한낮의 휴 콘서트 11:00 - 대극장 시민회관(630-5200)
애창곡의 향연 19:30 - 대극장 부산예술기획(016-9317-4728)
- 28 **wed** 최대호 세 번째 음악이야기 19:00 - 소극장
균일 2만원/최대호(016-571-0505)
- 29 **thu**
- 30 **fri** 2007 부산연극제 자유참가작 '3인 3색' 19:30 - 소극장
1만5천원 · 1만원/부산무용협회(632-5116)
- 31 **sat** 2007 부산연극제 자유참가작 '3인 3색' 16:30 - 소극장
1만5천원 · 1만원/부산무용협회(632-5116)

금정문화회관

|문의 : 금정문화회관(519-5651~2)

- 1 **thu** 부산아버지합창단 3번째 이야기 19:00 - 대공연장 부산아버지합창단(516-1616)
마술 피노키오 12:00, 14:00, 16:00 - 소공연장 가람뮤지컬(019-284-4842)
- 2 **fri** 베토벤 첼로소나타 & 바리에이션 전곡연주회 19:30 - 소공연장
균일 1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
- 3 **sat** 기타리스트 피보 코방 내한공연 19:00 - 대공연장 부산프랑스문화원(465-0306)
배효정 가야금독주회 17:00 - 소공연장 초대/배효정(016-866-0844)
- 4 **sun** 단비음악학원 정기연주회 14:30 - 소공연장
초대/김진숙(016-566-1766)
- 5 **mon**
- 6 **tue** 제 29회 아가페코랄 정기연주회 19:00 - 대공연장 아가페코랄(816-2807)
김행재 귀국 독창회 19:30 - 소공연장 균일 1만원/김행재(011-273-2235)
- 7 **wed** 제 1회 팝스&퍼커스 협연의 밤 19:30 - 대공연장 구용준(016-559-7460)
금정수요음악회 19:30 - 소공연장 1만5천원/박진홍(017-563-7966)
- 8 **thu** 앙상블 클라시아 11시 브런치 콘서트 11:00 - 소공연장
균일 1만5천원/앙상블 클라시아(506-6306)
- 9 **fri** 부산타악예술문화센터 정기연주회 19:30 - 소공연장
무료/부산타악예술협회(501-0977)
- 10 **sat**
- 11 **sun**
- 12 **mon** 김성숙 피아노 독주회 19:30 - 소공연장
균일 1만원/프로인트(521-5729)
- 13 **tue** 제 2회 김인호 플루트 독주회 19:30 - 소공연장
균일 1만원/이너뮤직(017-554-7777)
- 14 **wed**
- 15 **thu**
- 16 **fri**
- 17 **sat** 어린이뮤지컬 '피터팬' 12:00, 14:00, 16:00 - 소공연장
균일 1만2천원/Dubu기획(02-2654-6854)
- 18 **sun** 어린이뮤지컬 '피터팬' 12:00, 14:00, 16:00 - 소공연장
균일 1만2천원/Dubu기획(02-2654-6854)
- 19 **mon** 노모스 플루트앙상블 제 2회 정기연주회 19:30 - 소공연장
초대/이너뮤직(017-554-7777)
- 20 **tue**
- 21 **wed**
- 22 **thu** 벨칸투스 성악연구회 창단 2주년 기념음악회 19:30 - 소공연장
초대/이수정(011-393-5118)
- 23 **fri** 피아니스트 이시내 초청 리사이틀 19:30 - 대공연장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제 2회 예사랑 정기연주회 19:30 - 소공연장 초대/김미현(011-9536-3979)
- 24 **sat** 볼프강 다비드 내한공연 19:30 - 대공연장
5만원 · 3만원 · 2만원/아마데우스(011-859-4316)
- 25 **sun**
- 26 **mon** 김해옥 피아노 독주회 19:30 - 대공연장
초대/김해옥(011-859-9822)
- 27 **tue** 장철근 바이올린 독주회 19:30 - 소공연장
초대/예술기획(0505-700-9798)
- 28 **wed** 금정수요음악회 '부산우드윈드앙상블 기획연주' 19:30 - 소공연장
1만원 · 5천원/박진홍(017-563-7966)
- 29 **thu** 최연주 귀국 클라리넷 독주회 19:30 - 소공연장
초대/최연주(010-2300-2213)
- 30 **fri**
- 31 **sat**

❖ 예술단 정기회원이 할인예매할 수 있는 공연

장 소	일 시	공 연 명	관 람 료	할 인	문 의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3/16(금) 11:00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웰빙콘서트 박호성과 심수봉이 만나는 11시 립스틱 콘서트	균일 15,000원	30% (1인 4매)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 (607-6070)
	3/17(토) 15:00, 19:00 3/18(일) 14:00, 18:00	국내 정상급 성악가와 함께하는 2007 신춘음악회	VIP 100,000원 · R석 80,000원 S석 50,000원 · A석 30,000원 B석 20,000원	10%	가람공연기획 (626-6664)
	3/20(화) 19:30	댄스컬 '사랑하면 춤을 춰라'	1층 40,000원 · 2층 30,000원	10%	KNN (850-9250)
시민회관 대극장	3/6일(화) 20:00	세계 최정상급의 베이스리스트 마커스 밀러 내한공연	R석 77,000원 · S석 66,000원 A석 55,000원 · B석 44,000원	20%	아이엔터테인먼트 (1588-3005)
	3/10(토)-3/21(수) 평일 20:00, 주말 오후 3:00, 7:30	프랑스 오리지널 캐스트 내한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	R석 150,000원 · S석 120,000원 A석 80,000원 · B석 60,000원 C석 40,000원	10%	요요기획 (622-5744)
해운대 그랜드호텔 아트홀	3/1(목)-4/1(일) 화 · 목요일 20:00, 수요일 11:30, 20:00, 금요일 20:00, 22:30, 토요일 16:00, 19:00, 일 · 공휴일 16:00	뮤지컬 '빙고(Bingo)'	R석 60,000원 · S석 50,000원	20%	시나위공연기획단 (1588-0511)
동아대학교 석당홀	3/17(토)-3/25(일) 평일 20:00, 주말 16:00, 19:00(3/21 공연없음)	라이어 3탄 '튀어!!'			
가마골소극장	2/23(금)-3/4(일) 평일 19:30, 토요일 16:30, 19:30, 일 · 공휴일 15:00, 18:00 (월요일 공연없음)	유령을 기다리며	일반 25,000원 · 학생 20,000원	10%	가마골소극장 (245-0042)
	3/8(목)-4/1(일) 평일 19:30, 토요일 16:30, 19:30, 일요일 15:00, 18:00(월요일 공연없음)	70분간의 연애			

예 / 매 / 창 / 구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
(607-6070)

예 / 매 / 방 / 법

직접 또는 전화 신청

예 / 금 / 계 / 좌

부산은행 036-01-034848-7
예금주 :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예술단 지정 예매처

부산은행 전 지점, 티켓 365(www.ticket365.co.kr)

- 중구/남포문고(245-8911)
- 부산진구/동보서적(서면 제일은행 옆 803-8000), 영광도서(롯데백화점 건너편 816-9500)
- 남구/면학도서(경성대 앞 623-9404)
- 사하구/향학서점(동아대 하단 캠퍼스 앞 203-9381)
- 북구/대한도서(덕천로타리 332-7339)



선택은 한번, 감동은 영원히...

야마하 공식 A/S점

가족처럼 늘 가까이 야마하가 함께 합니다

부산 야마하

피아노 악기

- 양정 본점 : 051) 863-0900
- 롯데백화점 부산점 6층 : 051) 816-0089
- 사직동 홈플러스 : 051) 506-7332



남성앙상블의 매력

김길수 · 부산교육대학교 교수

성악가들의 평생 화두는 '소리'다. 기악연주자도 좋은 소리를 만들기 위한 기술이 필요하겠지만 이미 만들어진 악기의 소리가 있기에 음악을 만드는 '표현'이 더 중요하다. 그렇다면 성악가는 기악연주자들보다 하위의 차원에서 음악을 하는 것일까? '그렇다!'고 과감하게 답할 사람은 단순 무식의 소치라고 비난받을까 두려워서라도 별로 없을 것이다.

성악가들이 소리를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는 이미 음악적 표현이 담겨 있다. 그래서 좋은 성악가가 '아' 하고 소리를 내면 그 소리 자체가 하나의 감동을 줄 수 있는 음악적인 것이다. 물론 그런 성악가는 극소수이다. 그런 깨달음을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

필자가 노래공부를 처음 시작할 무렵 한 유명한 성악가에게 '어떤 소리가 성악가가 추구해야 할 좋은 소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다. 그 분도 유학생 때 그런 질문을 지도교수에게 던지고 이런 답을 들었다고 하셨다.

“좋은 소리는 밤하늘에 떠있는 달무리가 있는 보름달과도 같이 빛을 내는 본질인 달과 그것을 감싸고 있는 달무리의 부드러움이 함께하는 것과 같다.”

비유적 표현으로 상당히 형이상학적인 대답이었다. 당시는 아마 이런 내용이라고 이해했을 것이다. 즉 '성대의 울림을 통해 만들어져 여러 공명기관을 울려서 확정되어 나온 풍성한 소리'라고나 할까. 그러나 조금 공부가 진전되면 보름달빛은 달 자체가 빛을 내지 못하고 태양으로부터 반사된 빛을 발할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즉 성대를 울리기 위해서는 허파에서 공기가 흘러와야 하고 허파는 횡경막에서의 운동에 의지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부드러운 달무리는 보통 두성을 생각하기 쉬운데 좀 더 공부하면 횡경막 아래의 작용이 온몸을 울리게 되는 단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그제서야 달 전체를 감싸는 달무리라는 개념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좋은 소리는 계속 발전하며 수명이 길다. 흔히 젊었을 때는 소리가 잘 났는데 나이 드니까 나지 않는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대개는 젊었을 때도 제대로 소리 한 번 못 내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다. 간혹 젊었을 때 타고난 소리를 가진 사람도 있다. 그러나 소리의 道를 모르면 나이를 먹을수록 잘 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다. 젊어서는 성대 근육이 팽팽하여 힘으로 밀어내도 소리가 나지만 나이 들면 시들해지는 법이다. '하루 연습을 거르면 본인이 알고 이틀 거르면 선생이 알고 사흘 거르면 청중이 안다'는 말이 있듯 끝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듯 솔리스트가 고민하는 '소리'가 있는 반면 합창에서 추구하는 '소리'도 있다. 성악가들은 각자 고



유의 비브라토가 있다. 그래서 합창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전문성악가들이 모여 앙상블을 하면 좀처럼 듣기 좋은 경우가 없다고들 한다. 극단적으로 말해 아마추어가 오히려 낫다는 말도 한다. 즉 비브라토 없는 mono톤의 중성적인 소리에다 두성이라고 내지만 사실은 가성인 그런 소리가 합창에 오히려 적합하다고 목에다 힘주고 비브라토까지 넣어 부르짖는다. 이들 대개는 소년소녀합창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다.

Full tone에서 나오는 Over tone의 맛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각자의 충실한 소리가 어우러진 짝 찬 소리가 만들어내는 배음을 들어본 사람이라면 병나발 부는 가짜 소리로 내는 데에 자아 도취되어 무아지경에 빠지는 사람을 낮춰 볼 수밖에 없다.

물론 합창에서는 독창에서 사용하지 않는 테크닉이 있다. 가성을 써도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음악적 표현을 조금 과장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배음의 원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 합창에서는 특히 베이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좋은 베이스파트는 좋은 배음을 만들어 낸다. 그래서 남성합창은 여성합창에 비해 훨씬 더 매력적이다. 여성에서 알토를 찾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고 기껏해야 메조 소프라노인데 그것도 희귀한 편이다. 또 음이 높아서 푸근함이 적고 싫증이 빨리 나기도 한다. 게다가 발라(느린 비브라토)가 나오면 최악이다.

남성을 4성부로 나눠 만들어진 남성앙상블이라면 최소한 복4중창단 정도의 인원을 가져야 울림이 가득한 느낌이 든다. 부산의 남성앙상블 팀은 작년에 10주년 기념으로 '리골렛토'를 올린 프로팀인 '칸타빌레남성앙상블'이 있고 그 외 시립합창단 멤버로 구성된 팀, 앙상블이라기엔 저음이 한명뿐이어서 구성이 부족하지만 경성대학교 출신들의 프로팀인 '4+1' 등이 있다. '칸타빌레남성앙상블'은 부산의 가장 대표적인 성악가들의 팀이고 전국적으로 활약하며 올해는 11년전 창단 때 코치를 맡았던 양종모 박사를 음악감독으로 재 영입하여 도약하고 있고, 시립합창단의 소그룹 팀은 항상 같은 직장에서 만난다는 장점을 갖고 음악적 표현과 앙상블이 우수하고, 비교적 젊은 성악가들인 '4+1'도 나름대로 화려한 색깔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앙상블보다 규모가 훨씬 큰 남성합창단은 서울의 솔리스트앙상블과 같은 부산의 '남성성악가앙상블'이 있다. 일년에 한 번 부산에서 활동하는 남성성악가들이 함께 모여 벌이는 축제와도 같은 행사인데 많은 연습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70명의 남성이 뿜어내는 웅장한 소리에 매료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실제로 여러 차례 객원 지휘를 맡았던 나영수 교수는 서울 팀에 비해 훨씬 소리가 짙고 음악적으로도 훨씬 우수하다는 평을 했다.

올해는 2월 27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동아대학교 김명규 교수의 지휘로 성가곡, 창작가곡, 오페라, 뮤지컬 곡, 러시아 민요, 팝송, 가요 등 다양한 레파토리로 연주했다. 우울했던 잿빛 겨울을 털어내고 활기찬 푸른 새 봄을 맞는 부산시민들에게 가슴을 울려줄 좋은 선물이 되었으리라 기대해본다.

몸과 마음이 지친 사람에게 휴식주는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 이충한



부산문화회관과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이 지난 2월 13일 협약을 맺고 문화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뜻을 모았다. '오직 믿음, 오직 사랑'으로 병원을 운영한 장기려 박사의 뜻을 이어 받아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으로 인사를 펴고 있는 이충한 병원장과 특별한 만남을 가졌다.

■ 부산문화회관과 협약을 하게 된 계기는?

2006년을 대표하는 한자성어인 밀운불우가 의료계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밀운불우를 헤치고 비상한 한해를 만들기 위해 마케팅 기능을 강화하는 대외협력부서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계기로 협약이 추진되었으며, 복음병원의 역할은 지역사회

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교육, 문화기관을 대상으로 협정체결이 시작되었습니다. IT뿐 아니라 예술의 연구역량이 강한 경성대학교와 직접적인 예술 활동을 하는 부산미술협회, 그리고 부산예술인의 역량이 결집된 부산문화회관과의 진료협정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호협정을 통하여 각 기관이나 단체들이 추구하는 바를 함께 이루는 상생의 관계가 지속되었으면 합니다. 부산문화회관의 경우에도 복음병원은 교직원 뿐 아니라 환자 및 가족들의 문화 활동을 한층 더 개선할 수 있게 되고, 부산문화회관의 구성원들은 진료 및 건강관련의 지원을 통해 편안한 가운데에서 예술 활동을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협약식 이후 병원 분위기 변화가 있으신지요?

예술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서구, 특히 몸과 마음이 지친 환자나 가족들이 상주하는 병원이라는 공간을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시작

으로 복음병원 내부에 문화예술의 쉼터이자 전시공간 마련을 위한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수, 직원 뿐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한 미술 전시회, 미술 강좌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병원에 예술작품을 전시하고, 예술단체를 초청하여 일상생활에서 예술을 접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그동안 막연히 관심만 가졌던 교직원들이 부산문화회관과 예술단체 등에 한층 더 가까움을 느끼고 있는 것도 변화의 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 협약과 함께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 단체 가입하셨습니다. 정기회원카드 활용방법은 ?

병원내의 관심있는 교수, 직원들에게 배포함은 물론, 퇴원하는 환자가족을 대상으로도 추첨을 통해 카드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작은 의미일 수도 있으나 이를 통하여 생활 속의 예술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 꿈과 사랑이 있는 아름다운 병원을 가꾸기 위해 그동안 진행해 온 주요사업들을 소개해 주십시오.

IMF이후 어려웠던 재정 상태를 극복하고 의료개방의 무한 경쟁력을 극복하고자 교수,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외 의료선교와 의료선교사 파송을 주로 해 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지역 내의 소외된 계층에도 질병의 치료와 영적인 평안을 주기위해 끊임없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거제도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의료봉사를 했으며, 2007년에는 세계의료선교 센터를 개설하고 의료봉사를 통한 선교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사람의 영혼을 치료하는 문화는 의술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의술은 인술'이라는 말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는?

과학문명과 가치관의 혼돈, 인간의 장기까지도 사고 파는 세상에서 윤리문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의학에 있어서 좌우명과 같은 단어가 '의술은 인술'입니다. 요즘은 뇌사, 안락사, 장기이식에 관련된 사회 문제, 그리고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와도 결부되면서 의사의 윤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의술은 인술'이라는 것은 의료기술을 통한 치료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치료해야 한다는 의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술인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밝고 건강하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마음을 치료하는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 병원장으로 구상하고 있는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의 청사진이 궁금합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암전문 대학병원, 기독교 병원의 이미지는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5년 동안 수많은 질병을 치료하면서 쌓인 노하우와 진료진의 열정이 역사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으며 고가의 의료장비 도입을 통한 첨단화, 병원의 리모델링화를 통한 환경개선, 연구동 건립을 통한 의학연구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갈수록 전문화, 대형화, 개방화가 가속화되는 의료 현실 속에서 부산, 경남의 건강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노래 봉선화

김상훈 · 시조시인, 민족시가연구소 이사장



민족의 노래 <봉선화>를 작곡한 홍난파

나는 우리가곡을 무척 좋아한다. 또한 기회만 있으면 서툰 솜씨지만 곧잘 부르기도 한다. 아름다운 시와 아름다운 노래가 빚어내는 가장 간결하면서 청신한 음악양식이 가곡이다. 내가 가곡에 관심과 애정을 갖게 된 것은 초등학교 때 음악에 조예가 깊은 선생님을 담임으로 모시게 되었던 일과, 사범학교 재학 시 음악 선생님이 <108곡집>을 엮어 거의 전곡을 직접 가르쳐주신 덕분이다.

홍난파선생의 '봉선화' '옛 동산에 올라' '성불사의 밤'을 비롯, 박태준선생의 '동무생각' '물새 발자욱' '아! 가을인가?', 현제명선생의 '고향생각' '그 집앞' '가고파' 등 명가곡을 100여곡이나 배웠다는 것은 행운중의 행운이 아닐 수 없다.

가곡은 희랍시대로부터 그 연원을 찾아 볼 수 있으나 예술가곡형식으로 격상된 계기는 슈베르트의 가곡 <실을 짓는 그레트헨>이라고 하겠다. 가곡은 시와 음악의 결합에서 만들어진 예술작품이기에 시의 기본적인 감정을 파악하고 그것을 음악적으로 전달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때로는 음악이 시의 속박에서 벗어나 그 언어의 다양성을 넘어서 감명 깊은 선율로 발전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개개의 시의 절구에 따라 음절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 전체의 운(韻)과 결합하는 것도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가곡에는 서정적 표현으로 간소함과 간결한 시정신이 필요하다. 그것은 누구나 쉽게 노래할 수 있는 기준이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곡은 유절형식(有節形式) 리트가 있고 시 전체를 한데 묶어 표출되는 통작형식(通作形式) 리트와 변형 유절 형식, 발라드 등에서 언어표현의 진실을 노리기도 한다. 또한 시대가 점점 다원화, 다양화되고 인간의 가치관도 달라지기 때문에 오케스트라 리트도 나타나게 되었다. 베베른의 <6개 가곡>과 작품 15의 <5개의 종교적 가곡> 등이 그 좋은 예가 된다고 하겠다.

어떻든 우리가곡은 서민정신에서 일어나 예술로 승화되었고, 예술에서 다시 서민에게 환원되고 있는 아무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우리의 예술적 자산이라고 하겠다. 우리가곡에 투영되어 있는 우리들의 진실한 삶과 그 애환(哀歡)과 신산(辛酸)을 살펴보기 위한 의지의 일면이 <아름다운 시, 아름다운 노래>라고 하겠다.

우리가곡을 말하자면 난파(蘭波) 홍영후(洪永厚) 선생을 맨 먼저 손꼽지 않을 수 없다.

선생은 1897년 경기도 화성군 낙양면 활초리에서 출생했고 16살 때 조선정악전습소에 들어가 당시 서양악부 주임교사였던 김인식(金仁湜) 선생께 바이올린을 사사 받았다. 1918년 21세 때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음악학교(현 도쿄예술대학)에서 정규의 음악교육을 받다가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 수학을 계속할

수 없어 귀국, 고국에서 음악활동을 계속했다. 1920년 민족의 노래로 많은 동포들이 애창했던 '봉선화'를 작곡 발표했다. 작사자는 친구이자 음악가인 김형준(金亨俊) 선생이다.

울밑에 선 봉선화야/네 모양이 처량하다//길고 긴날 여름철에/아름답게 꽃 필적에//어여쁜신 아가씨들/너를 반겨 놀았도다
//어언간에 여름가고/가을바람 솔솔불어//아름다운 꽃송이를/모질게도 침노하니//낙화로다 늙어졌다/네모양이 처량하다//
북풍한설 찬바람에 네 형체는 없어져도/평화로운 꿈을 꾸는 너의 혼은 예 있으니/화창스런 봄바람에/환생기를 바라노라//

일제에게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겨레의 생존권마저 마구 짓밟히던 시절, 우리 겨레의 슬픔, 억울함, 안타까움을 너무나도 절실하게 표현한 시라고 하겠다. 곡도 8분의 6박자로 애조(哀調)가 넘치고 있다.

가곡 '봉선화'를 가장 열창하므로써 삼천리 온 강토에, 이천만 온 겨레의 가슴마다에 맥맥히 살아서 고동치도록 한 성악가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소프라노 김천애(金天愛) 선생이다. 그녀가 1942년 일본 무사시노음악학교를 졸업하고 동경 히비야(日比谷) 공회당에서 열린 신인음악회에서 '봉선화'를 처음 노래했고 그해 가을 귀국하여 서울과 평양 등지에서 연달아 부름으로써 널리 민중의 애창곡이 되었다. 호소력을 가진 가사에 곡 또한 애절한 가락과 구슬픈 정감으로 나라를 빼앗긴 우리 동포들에게는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될 뿐 아니라 분발까지 촉구하는 너무도 안성마춤인 가곡이었다. 그 후 이곡이 전국으로 전파되어 널리 애창되기 시작하자 일제는 당황한 나머지 가사가 불온하다는 이유로 금지곡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 가곡은 그 당시 억압받고 있던 동포들에게는 민족의 한을 달래주는 노래로서 사랑을 받았고 더욱 많이 불리어졌다.

난파선생은 1925년에 제 1회 바이올린 독주회를 열어 자작곡 세편을 발표한 바 있어 우리나라 최초의 바이올린곡을 창작한 작곡가로서 효시(嚆矢)가 된다. 한편 음악평론에도 손을 뻗쳐 창조지에 음악평을 집필하였으며 1925년에는 <음악계>라는 월간 음악지를 최초로 창간하기도 했다. 가곡 작곡, 바이올린곡 작곡, 음악평론, 음악잡지 발간 등 다방면에 능부신 활동을 한 선구자요, 개척자가 바로 흥난파 선생이었다고 하겠다. 1926년에는 '달마중' '낮에 나온 반달' 등 동요 100곡집까지 내었으며 1933년에는 가곡 '옛 강물 찾아와' '옛 동산에 올라' '입 다문 꽃 봉우리'를 작곡했으니 가히 한국음악의 구원(久遠)의 별이라고 할만하다.

흥난파의 가곡 중에서 가장 널리 애창된 가곡으로는 '봉선화' '옛 동산에 올라' '성불사의 밤' '장안사' 등이 있다. '옛 동산에 올라'는 연가곡 '나그네 마음'에 포함되어 있는 곡으로서 반주부의 분산화음의 낭만적인 자리위에 유창한 가락이 애달픈 정감을 담고 있다. 그 밖에 계면조(界面調)와 비슷한 모드를 사용한 '금강에 살으리랴다'라는 곡은 민요풍의 입김이 서려있고 '봄 처녀'는 반주부에서 색채감을 노려 동요조의 소박함을 산뜻하게 그려주고 있다. '사공의 노래'는 그의 중기에 속하는 가곡으로 간소한 피아노 반주부위에 유창한 가락을 아로새겨 놓고 있다.

우리나라 가곡사에 개척의 삽과 선구의 깃발을 높이 들고 많은 업적을 남긴 흥난파 선생, 1941년 8월 30일 44세를 일기로 것처럼 갈망하던 조국해방의 환희도 보지 못한 채 유명을 달리했다. 선생은 갔으나 선생의 노래 '봉선화'를 비롯한 주옥같은 가곡들은 우리겨레와 함께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3월호부터 부산문인협회 회장, 부산시조시인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퇴계학 부산연구원 원장, 민족시가 연구소 이사장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조시인 김상훈님의 '아름다운 시, 아름다운 노래'가 연재됩니다. 평생 우리가곡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온 필자가 들려주는 아름다운 시와 아름다운 노래로 우리 가곡을 새롭게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파리의 지하철 음악가들

이연기 · 프랑스 통신원



해외 유학을 하기엔 다소 늦은 나이로 프랑스 파리의 유학길에 오른 필자는 문화의 다양성을 많이 가진 파리의 문화, 그중에서도 파리의 음악문화에 대해서 하나하나 베일을 벗기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다.

우리가 유럽 음악하면 많이 찾고 또 흥미의 대상인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프랑스, 체코, 러시아 등 국가 이름만 들어도 가슴 설레게 하는 국가들의 음악으로 알고 있다.

그중에서도 각기 분야, 예를 들면 크게 기악과 성악별로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최고의 음악들이 이런 유럽 국가들이 자랑하는 음악 문화일 것이다.

이름만 들어도 다들 알 수 있는 베토벤, 모차르트, 베르디, 스트라우스 등등 음악을 모르는 사람도 익히 다 알고 있는 대가들 이야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 필자가 하고 싶은 음악문화 이야기는 유럽여행을

해 본 사람들이라면 다들 한번쯤은 듣기도 했고 신기하긴 하지만 그냥 지나쳐 가기도 했을 거리의 음악가, 특히 파리 지하철의 음악가들을 소개하고 싶다.

이탈리아와 독일, 오스트리아 같은 음악의 고장들에서도 익히 보아 왔고 접했던 거리의 악사들, 때론 우리 동양 음악가들의 기를 죽일 정도의 뛰어난 기량을 보이던 거리의

악사들을 보고 흠칫 자존심이 상하거나 문화적 충격을 받았을 음악인들도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다.

흔히 이들이 실패한 음악가일 것이라고 대중 편하게 치부하고 지나치기도 하지만 '꼭 그렇게 보기만 할 것은 아닐 것'이란 생각을 하게 하는 악사들이 많았다.

그런 실패한 음악가일 것이라고 치부하기엔 어디엔가 석연찮은 테크닉과 그들의 음악에서 녹아나는 진짜 인간의 고뇌와 철학을 가득 담고 연주할 때 혼신의 에너지를 보여주는 그들은 어쩔 진짜 이시대의 음류시인처럼 보이기도 했다.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파리 지하철의 음악가들은 환승역이나 지하철 객차안에서까지 들어와 곧잘 연주한다.

100년 역사를 가진 파리의 지하철을 처음 타는 여행객들은 오줌 냄새 때문에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하는 느낌을 먼저 받게 된다. 그래서 혼잣말로 "이 사람들 참 더럽게 생활 하네" 하고 첫 이미지가 구겨진다.

그도 그럴 것이 지하철 역사가 100년이 넘었으니 우선 1호선에서 새로 건설된 14호선까지와 시 외곽으로 연결되는 빠른 전동차인 A, B, C 3개 노선에 이르는 RER 선, 그리고 국철까지 실로 어마 어마한 대중 교통망에 한달 정액권에서 1년 정액권에 이르는 시민을 위한 말 그대로의 대중교통 문화를 알고 나니 그 정도 구린 냄새쯤은 이해가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참고로 파리 지하철엔 그 어디에도 화장실이 없다.

그런 저런 문화적 갈등을 뒤로하고 일단 지하철을 타면 환승역이나 때론 지하철 객차 안에까지 악사들이 들어와서 곧잘 연주를 한다. 처음엔 이 사람들은 아무나 이렇게 구걸 연주를 하는가 싶었다. 이들이 다 연주를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바쁜 발길을 잡아 붙들어 매는 연주자들이 많아지면서 많은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했다.

나는 여기 여러 현지인들의 증언으로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다름 아닌 지하철 악사들만은 철저한 오디션이 있다는 것이었다. 파리시청에서 엄격한 오디션을 거쳐 자격증을 부여 받은 뒤 그 자격을 나타내는 신분증을 가져야 만이 비로소 지하철에서 연주를 할 수 있는 뮤지션이 되는 것이었다. '어쩐지...' 하는 생각이 스쳐가는 순간이었다.

인간의 온갖 생각과 철학, 인간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갈등과 감정들, 그리고 산천초목들을 그림이나 조각이 아닌 소리로써 표현하는 것이 음악이지 않았던가!

：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파리의 지하철 연주자들은 파리시청에서 엄격한 오디션을 거쳐 자격증을 부여받은 뒤 에야 연주를 할 수 있다.

어느 날 한 환승역을 지나고 있는데 모차르트 현악 4 중주가 내 발길을 멈추게 했고 난 가던 길을 멈추고 그들의 연주에 귀를 기울였다. 또 어느 날은 색소폰 연주자가 타이타닉 주제곡과 흘러간 팝송을 연주하는데 그만 내 발길을 한 시간 가량 똑 잡아 버렸다. 필자가 예전 대학생 시절에 밀양 아랑제에서 백중놀이와 오북놀이에 발길이 빼앗긴 후 처음 있는 사건(?)이었다.

나의 발길을 잡아끄는 연주자 중에는 마림바를 연상시키는 민속악기 같은 타악기 주자도 있었고 클래식 기타리스트, 흘러간 팝송을 멋들어지게 부르는 가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주자들이 대중과 함께 하고

있었는데 어찌나 테크닉들이 좋던지... 연주를 듣는 내내 절로 감탄사가 흘러 나왔다.

파리 지하철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많은 시민과 관광객의 친숙한 교통수단이다. 철길의 쇠 소리와 대도시의 바쁜 사람들의 시끄러운 잡음밖에 없을 딱딱하고 차가운 지하철. 직장 생활과 인생살이에 터벅 터벅 지쳐 돌아갈 삭막한 지하철에 그래도 시청에서 엄격한 오디션을 거친 음악가들이 선사하는 연주는

그날 하루의 피로를 싹 가시게 하는 그야 말로 진정 대중과 함께 하는 대중의 힘든 애환을 들어주는 좋은 친구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주저 없이 1유로(한화 1,250원)를 내어 놓을 수밖에 없게 했다.

각자 특기를 자랑할 수 있는 무겁지 않은 레퍼토리로 대중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음악가들! 이들이 있으니 파리 시민들은 참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이들의 음악에 이렇게 취할 수 있다면, 과연 프랑스인이 자랑하는 대극장의 프로 음악가들은 어떨까?

이 글을 읽고 이 다음에 파리를 찾아오시는 우리 부산 시민이 계시다면 바쁜 여행 일정 속에서 잠시 지하철에 들어가 이들의 살아 있는 연주를 듣고 그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쳐주고 여행에서의 피로를 녹일 수 있는 좋은 추억의 시간을 가져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오늘은 거리의 악사 그중에서도 파리 지하철 음악가들을 잠시나마 짧게 소개해 올린다.

다음엔 필자가 직접 체험하는 곳에서 직접 보고 느낀 또 다른 음악 문화나 예술 전반에 걸쳐서 현재 프랑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빙산의 일각일지언정 느낀 점을 올려드릴 것을 약속드린다.



프랑스의 상징 에펠탑 야경

프랑스의 생생한 문화현장 소식을 전해줄 프랑스 통신원 이연기는 부산시립합창단 부수석단원으로 활동하다 지난해 11월 프랑스 유학길에 올라 다양성을 많이 가진 프랑스의 문화를 만나고 있다.

선조들의 음악적 삶 · 선풍도골(仙風道骨)

강성일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옛 책을 펴 성현을 마주하고
밝고 빈 방안에 초연히 앉아
매화 핀 창가에 봄소식 보게되니
거문고 줄 끊어졌다 탄식하지 않으리

(퇴계 이황)

매화가 피는 지금쯤이면 나는 가끔 선풍도골(仙風道骨)이란 말이 떠오른다. 선풍도골이란 신선의 풍채와 도사의 기골이란 뜻으로 주로 무협지에 쓰는 말인데, 풍류를 즐길 줄 알면 이런 말도 듣게 되는가 보다. 조선시대 선조대의 유교칠신(遺教七臣), 즉 선조가 승하할 때 유명(遺命)을 내릴 정도로 신임하던 일곱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인 박동량이 지은 <기재잡기>를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정(正) 홍공(洪公)은 우의정 성세창과 서로 통하는 친구였다. 그가 정월 어느 눈 내린 날 밤에 친구를 찾아가 동원(東園) 별실 한가한 창 아래서 담소를 나누고 있던 중, 뜰 가에서 거문고 소리가 들렸다. 창틈으로 가만히 내다보았더니 백발을 휘날리는 한 노인이 매화나무 밑에 눈을 쓸고 앉아 거문고를 타고 있었다. 그 손끝에서 울려 나오는 청아한 소리가 매우 기이하였다. 성세창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했다. 노인은 어느새 손님이 방에 있는 줄 알았는지 서둘러 거문고를 거두어 들어갔다. 이 장면을 보고 홍공은 매양 사람들에게 “달빛은 대낮 같고 매화가 활짝 핀 바로 그때 백발이 흩날리고 맑은 가락이 그 사이로 발산되었는데, 아득히 신선이 내려온 것처럼 상쾌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는 듯하니, 용재 성현이야말로 신선의 풍채와 도사의 기골(仙風遺骨)을 가진 분이다”라 말했다.

매화가 활짝 핀 달빛아래서 눈을 쓸고 앉아 선풍도골의 자태로 풍류를 즐기는 백발의 노인, 이 시대에 이런 풍류객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생각해 본다. 그리고 손님이 방에 있는 줄 알았는지 서둘러 거문고를 거두고 들어가는 모습, 그 품성 속에서 음악이 이루어지는가 보다. 일찍이 신라의 최치원은 낙랑비 서문에서 ‘국유현묘지도(國有玄妙之道)니 왈 풍류(曰 風流)’라 하였다. 즉 우리나라에는 현묘한 도가 있으니 이를 풍류라는 것이다.

풍류인 성현, 우의정 성세창의 아버지, 그는 누구인가? 자는 경숙이요 창녕인으로, 호는 용재, 허백당, 부휴자로 세조 때에 과거에 급제하여 승문원에 보직되었다. 이후 홍문관 부제학과 형조참판 그리고 강원도, 평안도, 경상도 등 3도의 관찰사를 거쳐서 공조판서와 예조판서를 역임한 조선조 성종시대의 관료이다. 홍길동전을 지은 광해군 때 사람 허균은 서거정, 점필재, 김종직과 더불어 성현을 4대 대방가(大方家)의 한사람으로 꼽았으니 그의 용모가 짐작이 간다. 성현은 <용재총화> <허백당집> <부휴자담론>과 더불어 <악학궤범>을 저술하였는데, 특히 성종의 명을 받아 당시의 음악을 집대성한 <악학궤범>은 동양 최고의 악서로 알려져 있다.

그는 <악학궤범>의 첫 머리에 “악이란 하늘에서 나와서 사람에게 붙인 것이요, 허(虛)에서 발하여 자연(自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사람의 마음을 느끼게 하여 혈맥(血脈)을 뛰게 하고 정신을 유통(流通)케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즉 음악은 하늘이 인간에게 내린 최고의 선물로 정신을 유통케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늘이 주신 음악을 자연과 더불어 소중히 할 때 그 가치를 진정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용재 성현은 어떠한 자세로 풍류를 즐겼을까? 조선 개국부터 인조까지 250년 조선의 패관문학을 다룬 <대동야승>, 그 속에 실려 있는 <해동잡록>의 본조 편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용재 성현은 열 가지 잠명(箴銘)이 있는데 “하늘을 공경하고(敬天), 홀로 있을 때 삼가고(慎獨), 마음을 바로 가지고(正心) 욕심을 적게 가지고(寡慾), 과오를 고치고(改過), 수치를 알고(知恥), 검약을 지키고(守約), 간단하게 행동하고(行簡), 사람 얼굴을 썼으면 사람의 짓을 하여야 하고(踐形), 예를 회복한다(復禮).” 등이 있다. 본집(本集)

이렇듯 돈독하고 지극한 자세로 올바른 품성을 가꾸어 나가고, 그 품성 속에서 풍류가 묻어나오니 어찌 신선의 풍채와 도사의 기골을 갖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한때 고고장에서 단란주점의 시대로, 가라오케에서 노래방의 시대로 이어지는 현시대의 음악문화, 그리고 한쪽에선 대형화된 극장과 고액의 입장료, 인기위주로 치닫는 오늘의 공연 형태들, 성현의 풍류모습과 무엇이 다른지 깊이 새겨 볼 일이다.

옛 책을 펴 성현(聖賢)을 마주하고, 밝고 빈 방안에 초연히 앉아, 매화 핀 창가에 봄소식을 맞으며, 거문고 줄 끊어지듯 마음을 관조하니, 풍류의 이치와 만물의 이치가 무엇이 다르랴. 평생 매화를 사랑한 퇴계 이황선생의 마지막 유언이 “매화 화분에 물을 주라” 하였다. 우리의 삶이 비록 고달프더라도 우리의 신심에 물을 주어 바른 문화로 이어지면 그 삶이 더욱 풍요로워 질 것이다.



동양최고의 악서 악학궤범

태평무

홍기태 · 부산시립무용단 수석안무자

한국전통무용에는 태평무, 승무, 살풀이, 검무 등 여러 종류의 춤들이 있는데 원래 우리나라의 전통춤은 무속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특히 태평무는 왕십리 당곳의 특이한 무속 장단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음악은 낙궁, 터벌림, 울림채, 도살풀이, 자진도살풀이 등 우리 민속음악의 대표적인 장단이 고루 어울려 매우 독특하며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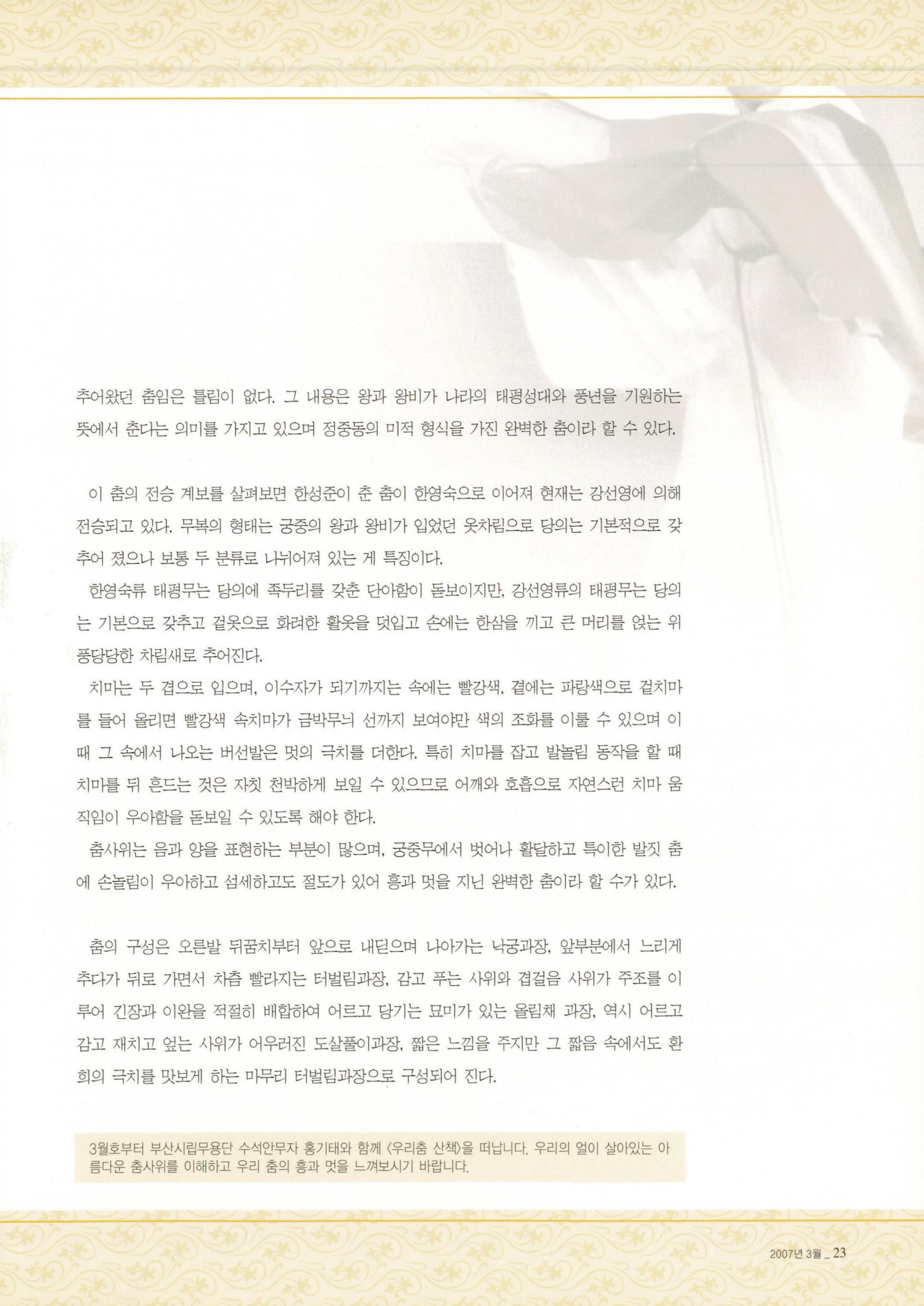
태평무는 조선말기 무용가이자 명고수였던 한성준 선생에 의해서 재구성되어진 창작무용 가운데 하나였으나 오늘날에는 우리춤의 멋과 흥이 실린 중요무형문화재로 자리매김하였다.

1988년 중요무형문화제 제 92호로 지정되어 강선영에 의해 전승되고 있는 태평무는 춤 장단을 익히는데만도 3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실제로 전통춤을 배울 때 먼저, 승무와 살풀이를 배운 다음 태평무를 추는 것을 보아도 이 춤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태평무는 조선말기 무용가이자 명고수였던 한성준 선생에 의해서 재구성되어진 창작무용 가운데 하나였으나 오늘날에는 우리춤의 멋과 흥이 실린 중요무형문화재로 자리매김하였다.

태평무가 어느 때부터 전승되어 왔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으나 약 100여년 전부터



추어왔던 춤임은 틀림이 없다. 그 내용은 왕과 왕비가 나라의 태평성대와 풍년을 기원하는 뜻에서 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정중동의 미적 형식을 가진 완벽한 춤이라 할 수 있다.

이 춤의 전승 계보를 살펴보면 한성준이 춘 춤이 한영숙으로 이어져 현재는 강선영에 의해 전승되고 있다. 무복의 형태는 궁중의 왕과 왕비가 입었던 옷차림으로 당의는 기본적으로 갖추어 졌으나 보통 두 분류로 나뉘어져 있는 게 특징이다.

한영숙류 태평무는 당의에 족두리를 갖춘 단아함이 돋보이지만, 강선영류의 태평무는 당의는 기본으로 갖추고 겹옷으로 화려한 활옷을 덧입고 손에는 한삼을 끼고 큰 머리를 얹는 위풍당당한 차림새로 추어진다.

치마는 두 겹으로 입으며, 이수자가 되기까지는 속에는 빨강색, 겹에는 파랑색으로 겹치마를 들어 올리면 빨강색 속치마가 금박무늬 선까지 보여야만 색의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이때 그 속에서 나오는 버선발은 멋의 극치를 더한다. 특히 치마를 잡고 발놀림 동작을 할 때 치마를 뒤 흔드는 것은 자칫 천박하게 보일 수 있으므로 어깨와 호흡으로 자연스런 치마 움직임이 우아함을 돋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춤사위는 음과 양을 표현하는 부분이 많으며, 궁중무에서 벗어나 활달하고 특이한 발짓 춤에 손놀림이 우아하고 섬세하고도 절도가 있어 흥과 멋을 지닌 완벽한 춤이라 할 수가 있다.

춤의 구성은 오른발 뒤꿈치부터 앞으로 내딛으며 나아가는 낙궁과장, 앞부분에서 느리게 추다가 뒤로 가면서 차츰 빨라지는 터벌림과장, 감고 푸는 사위와 겹걸음 사위가 주조를 이루어 긴장과 이완을 적절히 배합하여 어르고 당기는 묘미가 있는 올림채 과장, 역시 어르고 감고 재치고 얹는 사위가 어우러진 도살풀이과장, 짧은 느낌을 주지만 그 짧은 속에서도 환희의 극치를 맛보게 하는 마무리 터벌림과장으로 구성되어 진다.

3월호부터 부산시립무용단 수석안무자 홍기태와 함께 <우리춤 산책>을 떠납니다. 우리의 얼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춤사위를 이해하고 우리 춤의 흥과 멋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신령들을 찾아서

－ 예유근, 〈간힌 호랑이〉－

김형술 · 시인

시골에서 살았던 어릴 적, 옆집에 무녀의 집이 있었다. 담 너머로 늘 향내음이 흘러나오고 알록달록한 천이 매달린 장대깃발들이 대문을 지키고 서 있던 집. 어린 내게 그 집은 언제나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어떤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또 쉽게 접근해서도 안되는 경이로운 공간이기도 했다.

하지만 심부름을 가거나 숨바꼭질을 할 때 우연히 뛰어든 그 집의 내부엔 무녀가 기도를 하는 신당이라는 곳이 있어서 참을 수 없는 호기심을 주체할 수 없게 만들곤 했는데, 색색의 종이꽃(紙花)으로 치장한 제단엔 윗부분을 자른 사과, 배 등의 제물이 단정하게 차려져 있고 굿을 할때 사용하는 방울이며 칼 따위 무구들이 놓여있는 곳의 벽엔 호랑이를 거느린 산신령의 그림이 걸려있었다. 금방이라도 그림 속에서 튀어나올 듯 눈에 불을 켜 호랑이와 인자한 듯 혹은 화난 듯한 표정의 산신령이 노려보고 있는 신당. 어쩌다 훑쳐보게 되는 향내음 자욱한 그 방 속엔 무어라 형용하기 힘든 엄격하고 신비로운 고요가 방안을 가득 채우고 있어서 어린 아이가 그 나이 또래에 저지를 수 있는 모든 나쁜 일들을 다 들키는 듯한 공포감마저 자아내는 곳이었다.

보름달이 세상을 화안하게 비추는 깊은 가을밤이나 신월도처럼 날카로운 하현달이 산을 넘어가는 새벽녘이면 자주 옆집의 굿하는 소리에 잠을 깨곤 했다. 일정한 간격으로 느릿느릿 종얼거리다 갑자기 호흡이 격렬해지는 징소리와 가만이 그 징소리를 다스리는 깊고 아득한 북소리, 그 소리들은 아슴아슴한 줄음 속으로 땅에 끌리는 길고 흰 수염을 가진 산신령과 눈에 등잔만한 불을 담은 호랑이를 데려오곤 했다. 눈부신 빛에 휩싸인 채 머리맡에 서서 아이를 내려다보는 이 신비한 환영들은 인간의 삶에는 결코 인간의 힘으로 어찌지 못하는 어떤 신성한 기운이 존재할 것이고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코 죄를 지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들을 갖게 했다. 그게 무엇인 지, 어떤 것인지도 모른 채 그저 어렵풋하지만 어떤 총명한 기운을 가득 담은 채로.

예유근의 그림 속의 호랑이는 여전히 눈에 화등을 켜 채 무언가를 향해 으르릉대며 날카로운 이빨과 꽃잎처럼 붉은 입 속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입을 가지지 않은 겨울숲의 날카로운 가지를 가진 나무들과 사선으로 흩뿌려지는 굵은 눈발은 호랑이의 용맹스러운 위용을 결코 가리지 못한다. 사람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공포에 갇히게 하는 찌렁찌렁한 호랑이의 포효. 하지만 그 신령스러운 존재인 호랑이는 완강한 잠금장치를 가진 문 속에 갇혀있다.



〈간힌 호랑이〉 120x150x30cm. 혼합재료 한지 위에 아크릴칼라 1988

호랑이는 그야말로 그림 속에 갇힌 종이호랑이일 뿐이어서 아무런 공포나 위압감도 주지 못한다. 이제 그림 속의 호랑이는 그저 우스꽝스러운 하나의 표상에 지나지 않게 된 것이다. 호랑이와 산신령, 어떤 범접치 못할 기운을 가졌던 신령스러움에 관한 기억은 이제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수많은 기억들 중의 그저 하나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삶에 관한 경이와 신비, 인간이 결코 도달할 수 없고 제압할 수도 없는 어떤 성스러운 경지나 힘은 이제 더 이상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버린 쓸쓸하고 남루한 어른 하나가 빗장을 가진 문 속에 갇힌 신령한 존재들을 건너다 보게 된 것이다. 그리고 문득 깨닫는다. 그림 속의 호랑이는 이제 어른이 되어버린 자신의 분신이라는 것을. 어떤 신비도 성스러움도 갖지 못한 채 세월이 떠밀려와서는 불신과 의심의 수많은 문들과 자물쇠를 가져 스스로 갇혀버린 자신의 원래모습이라는 사실을.

갑자기 나는 호주머니를 뒤져 내가 스스로 가둬버린 어떤 신령함과 신성의 문을 열어줄 열쇠를 찾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그림 속에서 사실적으로 묘사된 문 하나가, 아니 강철로 만들어진 문들이 내 안에 수없이 닫혀있음을 알게된다. 하지만 좀처럼 열쇠는 찾아지지 않는다. 불현듯 무언가를 꾸짖는 듯, 나무라는 듯한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다.

네가 잃어버린 것들이 어찌 그것만이겠느냐는 듯, 문 안에 갇힌 호랑이는 질타에 질타를 거듭하고 있는 중이다.



연극과 시간

유상흠 · 연극배우



연극은 live의 시간성 때문에 웃지 못할 상황들이 벌어진다. (사진은 부산시립극단의 태자햄릿)

연극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연극의 live 성에 있지 않나 싶다. 반복도 편집도 불가능한 일련의 연속되는 단 한번의 사태라는 것이다. 그 시간동안 작업자들의 압박감도 크겠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에피소드도 여러 가지다.

모 극단의 10주년 기념공연으로 셰익스피어의 '멕베드'를 한 적이 있다. 극장을 빌리는 한정된 시간 속에 제법 높은 단과 여러 장치와 부대장비 설치가 예상 밖으로 지연되어서 리허설 시간이 짧아져버렸다. 미처 배우들이 등, 퇴장 경로조차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첫 공연 막이 올랐다.

극이 중반을 넘어가고 야심가 멕베드의 칼에 맞아 죽은 혼령들이 그의 파티에 나타나 그를 위협하는 말을 한마디씩 하곤 단 위에서 일렬로 지나가는 장면이었다. 제일 앞에 섰던 나는 대사를 마치고 단 끝 부분에 객석을 향해 나있는 계단을 내려와 중간막 뒤로 사라져야 맞았다. 나머지 혼령들도 그 뒤를 따르는 것이다. 그런데 난 단을 따라 그 위에서 중간막 뒤로 퇴장을 해버렸다. 허공 중에 두어 발 내 던고 마치 만화영화 '툼과 제리'에서처럼 수직으로 떨어져 내려 퇴장을 한 것이다. 쿵-, 내 몸의 상태를 추스를 여유가 없었다. 나를 따르다 사라진 앞사람을 찾고 있는 뒷 배우에게 손사래를 쳐야했고 곧 다음 등장 준비를 해야 했다. 지금은 부산시립극단에 있는 모 여배우는 공연 중 무대 뒤 설치물에 걸려 제법 크게 찢어진 상처를 동여맨 채로 공연을 마치고서야 병원으로 가 그 부위를 꿰매야 했다.

잘 차려진 극장에서야 그런 일이 없겠지만 가설무대나 자가발전이 없는 공연장에선 가끔 조명사고가 났다. 예고 없는 정전의 순간은 등장해있는 배우를 참 난감하게 만든다. 이걸 계속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정전의 소동이 진정되고 다시 시작하는 그 속스러움이라니... .

어떤 간 큰 배우는 분장실에서 잠이 들어 자기 등장 순서를 놓치는 일도 있었다. 그를 기다리는 무대 위의 배우는 그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가하면 무대 위에서 자기 대사를 잃어버리거나, 앞뒤 대사를 왔다 갔다하는 배우, 이만큼의 분량에 대사를 뛰어 넘어 공연 시간을 뭉턱 단축 시켜버리는 경우, 없는 대사를 만들어 상대배우를 곤혹스럽게 만들 때... 등등. live의 시간성 때문에 웃지 못 할 상황들이 벌어진다.

“내 살아온 것 책으로 쓰면 몇 권을 쓰도 모자란다” “길지 않은 인생 어찌 이리 곡절이 많은지...” 일제치하와 6·25전쟁을 겪으며 질곡의 우리 근대사를 지나온, 지금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가끔 하시던 말이다. 연극은 인생 전부를 보여 줄 순 없다. 그 모든 걸 지켜볼 관객도 없다. 대부분은 극장이란 한정된 공간 속에서 길어야 두세 시간의 연속을 관객과 공유(公有) 한다.

지켜보라. 무대 위에서 뺨을 맞고 즉시 비명을 지르는 거랑 10초 후에 비명을 지르는 뉘앙스의 차이를. 공연이란 삶보다는 훨씬 압축되고 예리하며 계산된 시간의 연속성이다. 변화가 없다면 시간이란 건 없을 것이다. 인식(認識)이 없다면 또한 시간은 없겠다. 배우는 무대 위에서 꽤 밀도(密度)가 높은 현상(現狀)을 겪게 된다. 그리고 관객과 더불어 인식과 흐름의 변화를 경험한다. 그 시간 속에는 실체가 만들어진 우주의 음악성이 있고 지속되는 거대한 관성(慣性)의 힘이 있다. 그러나 얽히고 설킨 인간의 씨줄과 날줄은 시간 속에서 인간에게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다. 그렇기에 우리는 무대 위에서 인간임으로서의 자존(自存)과 자부심(自負心)을 구현(俱現)하는 무모한 싸움을 하고 있다.

세 편 정도 연극작업을 하고 나면 일년이 획 지나간다. 그렇게 한 서른 번의 약속을 지키다보면 인생 황금기의 일십 년이 확확 지나간다. 영화처럼 필름이 남는 것도 아니요, 치적이 남아 사회적 활동의 밑거름이 되는 것도 아니며 돈이 남는 건 더더욱 아니다. 다만 불꽃처럼 산화해버린 시간들을 제 몸은 기억한다. 열렬했던 시간들은 몸에 도덕성을 일깨워 완전히 타락하지도, 구원되지도 못한 배우가 되어 다시 무대 위에 오른다. 나무가 나무에게 하고 꽃을 꽃이라 부르며 저 벽이 무너지지 않게 벽이라 칭하였던 선배, 후배, 동료 여러분의 찬란히 불태웠던 시간들 앞에 경의를 표한다.



지역주민의 열린 문화공간 해운대문화회관

문화도시 해운대로 발돋움하기 위한 전문 문화공간인 '해운대문화회관'이 오는 3월 30일 새롭게 문을 연다. 해운대문화회관은 인구 10만이 밀집된 해운대 신시가지 중심부에 위치, 해운대 지역주민들의 열린 문화공간으로 사랑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02년 공모를 통해 정철수(디-아키 건축사사무소)의 설계를 당선작으로 선정하고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준공된 해운대문화회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970평 규모의 종합예술공연장으로, 500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110석의 다목적홀, 야외공연장, 2개의 전시실과 연습실, 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다. 설계자인 정철수씨는 지정된 문화회관 부지가 신시가지의 중심부임에 착안, 대지의 위치와 형상에 원을 도입해 문화의 중심이라는 상징성을 담았다.

조명과 음향시설을 완벽하게 구비한 대공연장은 연주회 뿐 아니라 오페라,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올릴 수 있다. 다목적홀은 개인연주회 뿐 아니라 강연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 부산의 예술인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열린 공간으로 활용하고, 전시실은 지역 예술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대관,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또, 3곳의 연습실에서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문화예술강좌가 펼쳐질 예정이다.

해운대문화회관에서는 지난해 말 공연기획 및 무대예술분야의 민간 전문인력을 채용, 여타 구



3월 30일 문을 여는 해운대문화회관은 인구 10만이 밀집된 해운대 신시가지 중심부에 위치, 해운대 지역주민들의 열린 문화공간으로 사랑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500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110석의 다목적홀, 야외공연장, 2개의 전시실과 연습실, 회의실 등을 갖춘 해운대문화회관(사진은 대공연장 내부)

문화회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전문성을 더했다. 또한 지난해 1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원봉사자 40여 명이 수준높은 전문공연장으로 자리잡아가는데 힘을 보탬 계획이다.

해운대문화회관은 지난해 9월 준공 이후 정식개관에 앞서 11월과 12월 두달간 시바다 시낭독회, 해운대청소년오케스트라 제 6회 정기연주회, 해운대구소년소녀합창단 제 12회 정기공연 등의 시범공연을 가졌다. 정식개관에 앞서 시범공연을 평가하고 원활한 공연장 운영을 위해 직원들이 각오를 새롭게 다졌다. 3월 개관에서는 개관기념 첫 공연으로 3월 24일, 25일 이틀간 한국뮤지컬대상 최우수작품상에 빛나는 창작뮤지컬 '마리아 마리아'를 무대에 올린다. 이어 부산 출신의 연출가 이운택과 연극계 간판배우 손숙이 함께하는 연희단거리패의 '손숙의 어머니(4월 13일~14일)'와 춤과 소리, 몸짓, 가락으로 어우러진 전통연희 놀이극 '어무이 어무이요(5월 11일~13일)', 오페라를 처음보는 관객들도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는 오페라단 가야의 오페라 '비밀결혼(6월 15일~16일)', 전통연희의 형식을 빌은 예술공장 두레의 마당극 '강(7월 14일~15일)', 동춘서커스예술단의 대형 아트서커스 '동방의 신기Ⅱ-비천(飛天)(9월 15일~16일)', 1970년대 부산을 배경으로 구수한 사투리와 1970년대 음악이 함께하는 창작뮤지컬 '친구(10월 12일~14일)' 등 다양한 개관기념공연이 2007년 한해동안 펼쳐진다.

개관일인 3월 30일에는 TV광고에서 온 몸에 활을 달고 다양한 포즈로 버기롤링을 선보였던 버기롤링 맨 장이브 블롱드와 군악대가 함께하는 판굿 공연과 길놀이 행사가 눈길을 끌며, 개관기념 축하공연으로 부산시립합창단과 함께하는 '앵콜 7080 콘서트'가 무대에 오른다.

개관과 함께 해운대문화회관에서는 3월중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문화강좌를 개설한다.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곡합창, 재즈댄스, 한국무용, 경기민요와 장구, 연기교실과 어린이 대상의 뮤지컬 성악교실, 유아발레교실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 문의: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www.hco.go.kr)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동주여자상업고등학교 관악단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동주여자상업고등학교 관악단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동주여자상업고등학교 관악단(이하 동주여상 관악단). 현재 부산에서 7~8개 관악단이 겨우 그 명맥을 이어가는 현실 속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주여상 관악단의 이름은 그래서 더욱 빛이 난다.

1974년 창단한 동주여상 관악단(단장/한태인·동주여상 교장)은 '전체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라는 슬로건 아래 현재

94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다. 플루트, 오보에, 바순, 클라리넷, 색소폰, 트럼펫, 호른, 트럼본, 튜바, 타악기 등 150여개 악기를 보유하는 등 그 규모는 부산 뿐 아니라 국내에서 손꼽힌다. 동주여상 관악단은 지난해 5월에 열린 2006 후쿠오카 국제청소년밴드페스티벌에 우리나라 대표로 초청받아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있는 산파레서홀에서 연주하는 등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관악단 단원은 매년 3월 신입생을 대상으로 선출한다. 동주여상 관악단은 그 명성에 걸맞게 매년 100여명 이상이 지원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 대다수 지원자들이 악기를 다뤄본 적이 없는 초보자들로, 음악에 대한 관심과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관악단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을 역임한 송기태씨가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동주여상 관악단은 매일 방과 후 연습시간을 갖고 있고 10여명의 파트별 지도선생의 지도로 여름방학 기간인 8월에는 하계합숙훈련을 통해 부족한 실력을 보충한다.

현재 동주여상 관악단원의 30%정도는 음악대학에 진학한다. 현재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트럼펫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나영을 비롯 창원시립교향악단 트럼본 수석 이해진, 울산시립교향악단 타악기 단원 이윤희 등이 동주여상 관악단을 거쳐갔다.

현재 악장을 맡고 있는 강다연(3년)은 신기한 악기모습에 반해 관악단을 지원했다. 관악단

에 들어오기 전까지 악기를 다뤄본 적이 없었지만 처음 시선을 사로잡았던 트럼본을 지금은 능숙하게 연주하는 그는 우리나라 대표로 참가하게 된 2006 후쿠오카 국제청소년밴드페스티벌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타악기 파트를 맡고 있는 김은미(3년) 역시 이 곳 관악단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악기를 다뤄본 적이 없었다고. 친구들과 함께 연습하고 연주하는 시간이 즐겁다는 그는 지난해 부산관악제 무대에서 실수한 기억을 잊을 수 없다.

동주여상 관악단에 들어오기 위해 동주여상을 선택했다는 박수지(2년)는 초등학교 6학년때부터 플루트를 배운 전공자이다. 앞으로 음악대학에 진학해 플루트를 전공하고 싶다는 그는 무대경험을 쌓는데도 관악단 활동만한게 없다. 공연을 앞둔 날이면 주말, 방학 없이 연습하러 학교에 온다는 그는 단체활동을 통해 인내심을 배울 수 있는 것도 관악단 활동이 주는 미덕이라 생각한다.

동주여상 관악단은 그동안 88서울올림픽, 동아시아게임 대륙간컵 축구대회, 월드컵, 아시안게임, 세계자동차경주대회, 통영국제음악제 등 국제적인 행사 뿐 아니라 장애인체육대회, 어린이날 행사, 전국체육대회 등 크고 작은 행사에 부산을 대표해 활동해왔다. 또한 매년 부산관악제(5월), 고등학교 합주발표회(9월), 부산창작관악제(10월), 여명축제(12월) 등 정기무대에 서오고 있다.

오는 3월 30일 창원 국제퍼레이드페스티벌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동주여상 관악단은 정기공연 외에도 통영국제음악제(3월), 대한민국 관악경연대회(9월) 등에 참가할 예정이다.

“음악을 통한 올바른 인성교육 뿐 아니라 음악대학 진학에도 적극 지원해 지역사회 문화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는 교장 한태인 단장은 앞으로 부산을 대표하는 다양한 행사에 참가해 부산을 알리는데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문의/동주여자상업고등학교 관악단(246-4641, www.dongju.hs.kr/brass)



지휘자 송기태와 함께 방과후 연습에 열심인 동주여상 관악단.



동주여상 관악단은 여름방학기간인 8월 하계합숙훈련에서는 10여명의 파트지도선생들의 지도로 통해 부족한 실력을 보충한다.



동주여상 관악단은 2006 후쿠오카 국제청소년밴드 페스티벌에서 우리나라 대표로 초청받아 실력을 인정받았다.

부산에서 처음으로 창작가곡 독창회 준비하는 테너 장원상 작곡가 최석태



창작가곡 독창회를 준비하고 있는 테너 장원상과 작곡가 최석태.

나를 위해 작곡된 노래를 부르는 성악가는 얼마나 행복할까.

지난해 부터 작곡가 최석태(경성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 부산에서 처음으로 창작가곡 독창회를 준비하고 있는 테너 장원상(경성대학교 교수)은 한해의 문을 열며 의미있는 일을 한다는 기대감으로 어느 때 보다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다.

한 작곡가의 창작 가곡으로 독창회를 갖는 것도 드문 일이지만 독창회에 앞서 녹음을 하고 음반을 제작하는 장원상 교수는 독창회를 찾은 청중들에게 음반을 선물한다는 계획으로 혼신의 열정을 담아 독창회를 준비하고 있다.

노래 연습이 한창인 장원상 교수

의 연구실을 찾은 날은 이번에 부르는 창작가곡의 작곡가이자 제자이기도 최석태씨와 마무리 연습이 한창이었다.

이번 연주회를 처음 제안한 사람은 장원상 교수이다. 평소 세계 민요 순례, 이태리 가곡의 밤 등 테마가 있는 독창회를 가져왔던 장원상 교수는 부산과 경남의 정서가 담긴 창작 가곡으로 독창회를 열어보고 싶다는 바람을 가져왔다. 작곡가 최석태와 권오철, 백승태가 매년 열고 있는 작곡발표회인 '세남자의 합창이야기' 무대에서 작곡가 최석태의 창작곡을 두 차례 불렀던 장원상 교수는 연주회 이후 최석태씨의 서정미 넘치는 곡에 매료되어 먼저 창작가곡 독창회를 제의했다.

현재 녹음 준비 중인 곡은 모두 14곡. 2년전 합창곡으로 발표된 '내원암 산길따라', '나무

숲', '청 보리밭' 등은 독창곡으로 편곡작업을 했고 '갈보리 사랑', '참 좋으신 주님' 등 신작가곡은 11월 작곡을 마쳤다. 4월중 녹음을 마치고 연주회는 9월경 가질 예정이다. 연주회 반주를 맡은 경성대학교 조현선 교수도 이 독창회에 대해 애정이 각별하다.

“최석태씨의 곡들이 모두 서정적이고 향토색 짙은 곡들이라 정감이 있고 흐름이 좋아 노래하는 사람으로 정말 즐거워요.”

길림예술대학 겸임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는 장원상 교수는 중국에 머무르는 동안 악보집을 잠시도 놓지 않고 연습했다. 심지어 공항에서 출국수속을 밟으면서도 가곡의 멜로디를 떠올리며 콧노래를 불렀다.

작곡가의 입장에서 이런 성악가의 열정이 너무 고맙다.

“보통 작곡가가 곡을 쓰지만 이곡이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연주할 것인지 예측할 수 없어 곡의 느낌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더러는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하는 곡들도 있습니다. 이번 연주회는 성악가 장원상의 음량, 음색을 고려해서 곡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때보다 편하고 즐겁게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장원상 교수는 14곡을 모두 4개 섹션으로 나누어 연습을 하고 있다. 부산의 정서를 노래하는 '내원암 산길따라'와 '금정산의 봄', '낙동강을 보며', '민들레'를 비롯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어머니와 나' '어머니 당신의 날개로'라는 곡에 많은 애착을 느끼고 있다.

'어머니 당신의 날개로'는 멜로매니아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석동호씨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묻고 돌아오는 길에 쓴 시에 최석태씨가 곡을 부친 가곡으로 노래를 듣는 이의 마음까지 울린다. '어머니와 나', '어머니 당신의 날개로'를 부르면서 나를 되돌아 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장원상 교수는 이번 음악회를 준비하는 동안 영혼을 깨우쳐 줄 수 있는 곡들을 만나고 부를 수 있다는 데 음악가로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장원상 교수와 최석태씨의 인연은 20년이 넘는다. 성악가와 작곡자 이전에 스승과 제자로 만나 가까이에 서 보고 서로를 이해하기 때문에 곡에 대해 스스로 없이 이야기하며 수정 보완작업을 가질수 있었다.

장원상 교수는 앞으로 최석태씨의 곡을 중국어로 개사해 우리가곡을 널리 알려 나갈 계획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가곡 '그리운 금강산'도 발표 당시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장원상 교수는 앞으로 기회가 닿는대로 창작가곡을 많이 부르고 관심을 가진다면 '그리운 금강산' 처럼 사랑받는 새로운 가곡이 탄생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마음이 즐겁다.

윤이상 칸타타 한국 초연무대 준비중인 한울림합창단 차재근 단장



세계적인 작곡가 故 윤이상 선생의 음악혼이 집대성된 대작 칸타타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가 오는 9월 20일 부산광역시와 윤이상평화재단 주최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국내 초연무대를 갖는다. 그 역사적인 무대를 성공적으로 성사시키기 위해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한울림합창단 차재근 단장.

그가 지난 2005년 9월 윤이상평화재단과 이 곡의 한국초연에 대한 저작권 계약을 어렵사리 맺으면서 빛을 보게된 윤이상의 칸타타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는 선생의 음악적 전성기인 1987년 작곡된 민족자존과 조국통일을 노래한 대작이다. 마침 올해가 윤이상 선생이 태어난지 90주년이 되는 해로, 젊은 시절 창작활동을 펼쳤던 특별한 인연이 있는 부산에서 초연무대를 갖게 되어 더욱 그 의미가 크다는 차재근 단장은 "공연이 성공적으로 끝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산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한다.

"1회성 공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산이 자랑할 수 있는 문화컨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음반제작 등 다양한 컨텐츠를 모색중이다"는 차재근 단장은 부산 초연무대에 이어 서울, 광주 순회공연과 평양 공연을 추진중이다. 그는 또 내년 중국에서 열리는 베이징올림픽대회 남북합동공연으로도 물망에 올라있다고 귀뜸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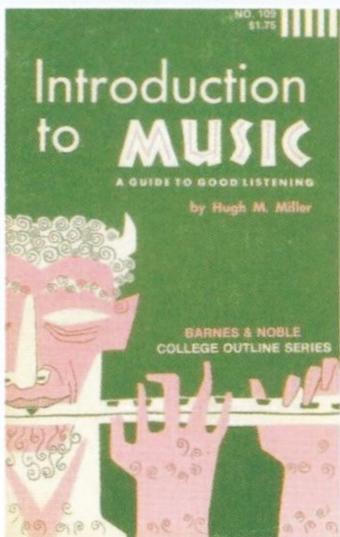
1978년 창단해 2005년 전문예술단체로 거듭난 한울림합창단은 현재 48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다. 창단 20주년을 맞으면서 '서양음악으로 표현되는 민족음악'이란 모토로 제 2의 변화를 시도했던 한울림합창단은 그동안 '다시 부르는 겨레의 노래', '항일독립운동 음악가 한형석의 음악세계' 등을 통해 민족음악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와 숨겨진 음악인의 발굴과 조명, 창작을 통한 다양한 레퍼토리를 보급하고 있다.

이밖에도 장애우합창단 '어깨동무' 지원사업과 새터민 문화교실, 일상세대 세대공감 등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문화활동, 국제문화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음악적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한울림합창단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는 차재근 단장은 한울림합창단의 제 3의 변화를 도와줄 메세나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소품(小品, piece)의 세계5

곽근수 · 음악평론가, 부산시립교향악단 해설자



밀러가 펴낸 '음악 입문'의 책 표지

소품의 종류를 분류하는 기준을 '음악 입문(Introduction to Music)'에서 규정한 밀러는 환상곡과 카프리치오를 하나의 장르로 묶고 있으나 필자는 이를 따로 떼었다. '자유로운 형식에 의한 환상적 작품'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질성의 장르라고 여겨지지만 바로크 시대 이후의 많은 작곡가들이 이 둘을 구분해서 곡명을 부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별개의 항목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또한, 필자는 무용음악을 추가했다. 17세기부터 이미 무용음악은 춤을 추기 위한 실용적 목적을 극복하고 높은 예술성을 추구하는 감상용 음악으로 새로운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장르도 소품의 카테고리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밖에도 추가될 수 있는 장르는 있다. 그러나 더 이상의 확대는 소품의 기본적 개념 자체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을 것이다.

1. 토카타 (Toccata)

건반악기의 즉흥연주에서 비롯된 건반악곡의 하나로서 풍부한 화음과 빠른 프레이즈를 구사하여 자유분방한 즉흥성을 표현하는 악곡이다. 원래 토카타라는 말은 '건반을 치다(touch)'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이 악곡이 화려한 연주기교를 과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이러한 토카타에 푸가라는 대위법 형식이 도입된 것은 메룰로(Claudio Merulo, 1533~1604)라는 이탈리아 작곡가에 의해서였다. 이것이 독일 북부에 들어가 훨씬 복잡한 양식으로 발전하여 작곡가 북스테후데(Buxtehude, 1637~1707)를 거쳐 바흐에 이르게 되지만, 이탈리아에서는 여전히 초기의 즉흥적 요소가 강한 스타일로 발전해 나아갔다. 결과적으로 토카타 양식의 음악은 속도, 리듬, 박자 등에 거의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즉흥곡에 가까운 악곡인 것이다.

2. 전주곡 (Prelude)

형식적인 측면에서 자유롭고, 성격에서는 즉흥성이 강한 전주곡은 토카타와 관련이 있다. 처음엔 모음곡이나 종교음악의 서주 역할을 했던 음악 양식이다. 15세기와 16세기의 전주곡은 불과 10~20마디 정도의 짧막하고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곡되어 주로 건반악기로 연주되었다. 17세기에 들어서자 전주곡은 다른 악곡들과 결부되어 작곡되기 시작했다. 이 시대 또 하나의 현상은 전주곡에 푸가를 덧붙이는 작업이었다. 사이데만이나 툰더, 북스테후데를 거쳐서 바흐에 이르게 되면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이라는 방대한 분량의 전주곡과 푸가곡집이 탄생된다. 그러나, 로맨틱 시대에 접어들면 전주곡은 뚜렷한 독립적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쇼팽 전주곡(24곡), 라흐마니노프 전주곡(25곡), 스크리아빈 전주곡(85곡), 드뷔시 전주곡집 1·2권 등은 짧은 음형(音形)이나 모티브에 바탕을 두면서 화성적으로는 심한 조바꿈을 시도하고 화려한 기교를 펼쳐 보이는 개성을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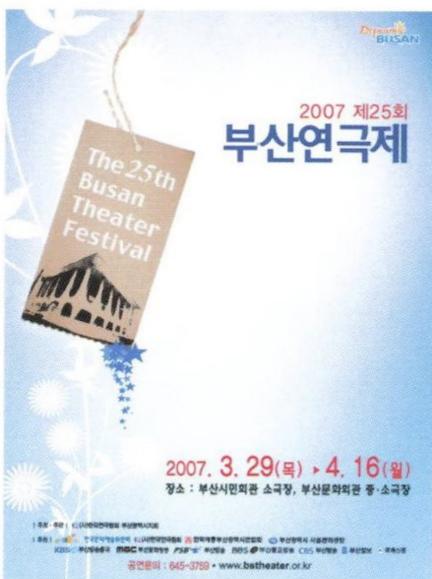
· 문화가 화재



연극으로 미래를 열자

2007 제 25회 부산연극제

3월 29일(목)-4월 16일(월)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시민회관 소극장, 액터스소극장, SH공간소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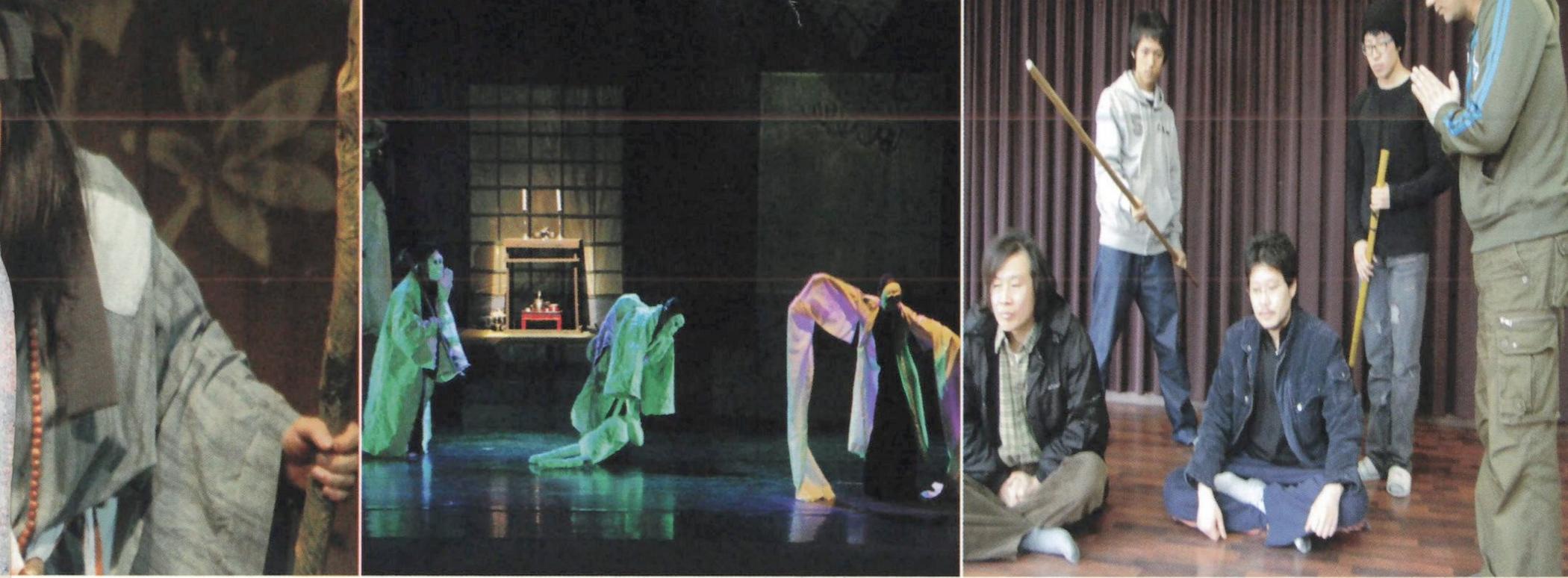
부산연극인들의 최대축제인 '2007 제 25회 부산연극제'가 3월 29일부터 4월 16일까지 부산문화회관과 시민회관, 액터스 소극장, SH공간소극장에서 펼쳐진다. '연극으로 미래를 열자'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부산연극제는 극단 사계, 극단 에저또, 극단 자유바다, 부산연극제작소 동녘, 극단 하늘개인 날, 극단 액터스, 극단 부산레퍼토리스시스템, 극단 맥, 극연구집단 시나위 등 9개 단체가 참여하는 경연부문 외에도 극단 골목길, 극단 자유바다, 극단 누리예, 마임극단 세진, 부두연극단, 부산무용단 등 8개 단체가 출연, 현대무용, 마임극, 아동극, 뮤지컬 등 관객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개막식 및 축하공연

- 극단 골목길 '경숙이, 경숙 아버지' 3/30일(금) 19:00, 3/31일(토) 16:30, 19:30, 4/1(일) 16: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작, 연출/박근형 · 출연/황영희, 김상규, 김도균, 김영필, 고수희, 김덕현, 주인영, 안성일, 권방현)
격변하는 한 시대를 거치면서 이 세상과 힘겨운 사투를 벌여온 우리네 아버지들의 자화상을 그린 작품.

경연작

- 극단 사계 '장미를 삼키다' 2일(월) 19:30, 3일(화) 16:30, 19:30 시민회관 소극장
(작/김수미 · 연출/김만중 · 출연/황자미, 구민주, 호민, 김다송, 권미영, 박은홍, 김희지, 김연주)
자살사건이 일어난 정신병원을 배경으로, 과거에 얽매인 사람들의 두려움을 표현주의적 수법으로 그려낸 작품.
- 극단 에저또 '미자르' 3일(화) 19:30, 4일(수) 16:30,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작, 연출/최재민 · 출연/이정훈, 곽정림, 구윤희, 김지연)



늘 똑같은 생활패턴에 지친 사회인들의 권태감과 자유에의 갈망을 통해 현대인의 정체성을 묻는 작품.

■극단 자유바다 '어머니' 5일(목) 19:30, 6일(금) 16:30, 19:30 시민회관 소극장

(작, 연출/이동희 · 출연/강혜란, 박지영, 권혁철, 장우성, 오영섭)

어머니의 부고를 듣고 장례식장으로 가는 아들의 회상을 통해, 한 많은 어머니들의 삶을 진솔하게 그려낸 작품.

■부산연극제작소 동녘 '신부, 나비를 꿈꾸다' 6일(금) 19:30, 7일(토) 16:30,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작/정영재, 심문섭 · 연출/심문섭 · 출연/고인범, 정애경, 박훈영, 전오미, 김성훈, 김현주, 이정형, 류혜린)

결혼을 앞둔 한 가족의 다양한 헤프닝을 통해 현대사회에서의 결혼의 의미와 가족의 사랑을 그린 작품.

■극단 하늘개인 날 '13월' 8일(일) 19:30, 9일(월) 16:30, 19:30 시민회관 소극장

(작/최송림 · 연출/김인덕 · 출연/황창기, 김혜련, 정행심, 원경식, 이진희)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산골마을에 외부인이 등장하면서 빚어지는 오해와 불신을 냉철하게 그려낸 작품.

■극단 액터스 '환화여, 환화여' 9일(월) 19:30, 10일(화) 16:30,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작/김숙현 · 연출/정순지 · 출연/유재명, 김민미, 김진욱, 하현관 외)

대중을 위해 사회를 개혁하고자 했던 원효대사의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시킨 작품.

■극단 부산레퍼토리시스템 '삼매경' 11일(수) 19:30, 12일(목) 16:30, 19:30 시민회관 소극장

(각색/심상교 · 연출/이기원 · 출연/이지훈, 곽정림, 구윤희, 김상호, 박은홍, 황창기, 손동일, 정행심 외)

과계 후 원효대사의 행적을 통해 고행의 길로 나서 민중불교를 주창했던 원효대사의 자유정신을 그린 작품.

■극단 맥 '광대유사' 12일(목) 19:30, 13일(금) 16:30,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각색, 연출/이정남 · 출연/심미란, 전지숙, 남정현, 권은하, 박성호)

조선왕실 오백년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사도세사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을 그린 작품.

■극연구집단 시나위 '얼굴없는 피카소' 14일(토) 19:30, 15일(일) 16:30, 19:30 시민회관 소극장

(각색/강태욱 · 연출/오정국 · 출연/박상규, 김혜정, 강태욱, 백길성, 손안모, 김현진, 백상희, 심영락)

초대형 정신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의문의 죽음과 수사과정을 통해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를 묻는 작품.

■입장권: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축하공연 R석 30,000원 · A석 25,000원/삼매경, 마법의 성과 피노키오의 모험, 3인3색, 친구 일반 15,000원 · 청소년 12,000원/축하공연 제외한 전 공연 사랑티켓 관람가능)

■문 의:부산연극협회(645-3759, www.bstheater.or.kr)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웰빙콘서트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기획공연

박호성과 심수봉이 만나는 11시 립스틱 콘서트

3월 16일 금요일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박호성



심수봉

저녁 시간대에 공연장을 찾기 힘든 주부, 여성 청중들을 위해 2007년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일보사가 의욕적으로 선보이는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웰빙콘서트 두 번째 무대가 3월 16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펼쳐진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지휘자 박호성이 지휘하고 중장년층의 폭발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심수봉이 주부들의 소중한 오전시간에 여유로운 음악을 선물한다. 이번 무대의 부제는 '박호성과 심수봉이 만나는 11시 립스틱콘서트'.

탄탄한 라이브 실력과 화려한 무대매너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심수봉은 중장년층을 위한 개성 있는 명품 공연을 펼치기로 유명하다. 한국의 진정한 여성 싱어송라이터로 인정받는 심수봉이 그의 음악 인생에 있어 처음으로 국악관현악단의 음악에 맞추어 노래 부른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심수봉의 만남은 심수봉 개인으로서도 새로운 도전의 무대인만큼 심수봉 특유의 비음섞인 한들거리는 창법이 어떻게 어우러질지 부산음악애호가들의 관심이 크다.

1978년 자작곡 '그때 그 사람'을 부르며 대학가요제 무대에 선 심수봉은 2008년 데뷔 30주년을 맞는다.

이번 무대에서 심수봉은 사랑밖에 난 몰라,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등 그의 주요 히트곡을 통해 '심수봉의 삶과 사랑이야기'를 들려준다. 기존 이미지를 탈피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색깔로 새로운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그 외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최의옥, 안주희의 춤이 함께 어우러지는 박범훈 곡 화사한 봄을 주제로 한 춤과 관현악



‘춘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해금주자 방병원의 협연으로 들려주는 강상구 곡 세상이야기를 담은 해금협주곡 ‘세상풍경’, 작곡가 원일의 힘찬 내일을 위한 관현악 ‘신뱃놀이’를 들려준다. ‘춘무’는 봄의 정겨운 풍경을 음화적으로 그린 관현악곡이다. 해금협주곡 ‘세상풍경’은 행복, 기쁨, 슬픔, 좌절, 희망 등 일상적인 세상 사람들의 삶과 행복, 시련과 좌절, 맑고 순수한 아이의 웃음 등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느껴지는 일상적인 느낌을 해금 선율로 담아낸 곡이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박성희, 정선희의 소리로 립스틱 콘서트를 흥겹게 마무리할 힘찬 내일을 위한 관현악 ‘신뱃놀이’는 경기민요 뱃노래의 선율과 기본 장단 골격을 바탕으로 하여 리듬의 유희를 위한 놀이적 음악으로서 다양한 변주를 시도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작곡가 원일이 전통음악에서 신명 ‘흥’ 장단을 현대적 감각으로 정형화시켜 보려는 노력으로 작곡되었다. 각 악장은 제 1악장 바다로, 제 2악장 놀이, 제 3악장 뱃노래라는 표제적인 소재를 가지는데 1악장에서는 관현악 음향으로 거친 바다의 느낌을 표현하였으며, 제 2악장에서는 구음(口音)으로 느리게 시작하여 여러 악기가 하나씩 가세해 나가는 상승진행을 갖는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변형된 장단으로 놀이의 성격을 뚜렷히 부각시킨 다음 뱃노래 주제를 선보이며 제 3악장 뱃노래에서는 굿거리장단으로 뱃노래 본래의 재미를 부각시킨다.

- 입장료 : 균일 1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인 4매에 한해 30% 할인, 30명 이상 단체 신청시 10% 할인)
- 문 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프랑스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

이상훈 · 뮤클(뮤지컬 & 클래식) 운영자



〈로미오와 줄리엣〉은 셰익스피어의 비극으로 너무나도 유명한 고전이라 할 만큼 많이 알려진 작품이다. 또 그만큼 다양한 예술장르에 많은 영감을 불러 일으켰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작곡가 구노는 로미오와 줄리엣 두 주인공의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느낌을 살려 오페라로 완성하였고, 프로코피에프는 클래식 음악으로, 그리고 이 음악을 사용하여 만든 발레 역시 유명하다. 물론 대중에게 가장 잘 알려진 건 프랑코 제피렐리 감독이 만든 작품으로, 10대의 올리비아 핫세가 70년대 젊은이들의 맘을 설레게 했던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이다. 최근엔 바즈 루어만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디카프리오가 열연한 〈로미오와 줄리엣〉도 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할 바로 뮤지컬로 각색된 〈로미오와 줄리엣〉이다. 우선 제목은 다르지만 1957년에 발표된 번스타인의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우리나라엔 서울예술단의 〈로미오와 줄리엣〉이 2002년 국내에 선을 보여 성공을 거두었다. 당시 창작뮤지컬 중 완성도가 높은 몇 안 되는 작품 중 하나라 생각된다.

그리고 최근 다시 재 탄생한 프랑스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증오에서 사랑까지〉가 있다. 이 뮤지컬은 국내에는 DVD로 먼저 소개가 되었다. 한국어판이 출시되기도 전에 뮤지컬 동호인들 사이에서 입 소문을 탔던 작품으로 〈파리의 노트르담〉, 〈십계〉와 더불어 프랑스 뮤지컬 Big3라 불리는 작품중의 하나이다.

그렇다면은 뮤지컬에서는 여기 너무나도 유명한 고전, 로미오와 줄리엣을 어떻게 풀어낼까? 프랑스어 특유의 부드러운 디션과 노랫말, 전통의상의 화려함을 최대한 살린 무대. 전작 흥행작인 파리의 노트르담의 다소 전위적인 의상과 춤과는 대조적이지만, 주인공들의 캐릭터를, 그리고 모든 뮤지컬이 다 그렇지만 극을 풀어나가는 중요부분을 음악으로 맛깔나게 풀어놓은 것이 뮤지컬로써 손색이 없다.

특히 눈 여겨 볼 장면은 머큐시오, 로미오, 벨볼리오가 부르는 〈세상의 왕들 Les Rois du Monde〉, 두 주인공이 사랑을 속삭이는 〈Le Balcon〉, 머큐시오, 티발트, 로미오가 나오는 〈Duel 결투장면〉 등이다.

올 3월 전례가 없던 대형 공연 두 작품이 나란히 부산을 찾는다. 〈미스사이공〉 그리고 〈로미오와 줄리엣〉. 3월에 부산에서 갖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번 공연이 더더욱 의미가 있는 건 우리나라를 시작으로 세계 투어가 시작된다는 일이다. 엄청난 제작비 그리고 20일 가량되는 긴 공연일수. 이번 두 공연이 어떤 성적표를 낼지 궁금하다. 부디 두 작품의 흥행성공으로 부산에서도 좋은 공연을 유치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으면 좋겠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28회 정기연주회

프랑스 음악과 세헤라자데

3월 9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교향악단은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와 함께 한 3월 2일 특별 연주회에 이어 오는 3월 9일 수석지휘자 알렉산더 아니시모프와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곡가 드뷔시와 라벨, 러시아 작곡가 립스키 코르사코프의 음악으로 새봄을 맞는 음악의 향연을 펼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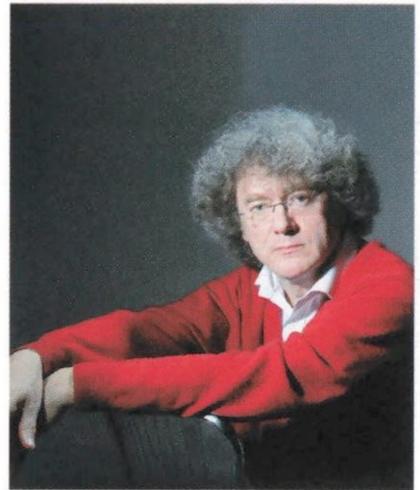
1부 무대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곡가 드뷔시와 라벨의 곡을 선곡, 부산 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드뷔시에게 작곡가로서의 명성을 안겨준 '목신의 오후'는 프랑스 상징주의의 거장 말라르메(S. Mallarme, 1842-1898)의 시를 소재로 한 곡이다. 나른한 여름 날 오후, 머리와 상체는 사람이고 허리 아래는 짐승인 목신이 숲 속에서 잠이 깨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상징주의 시인만큼 내용을 직접적으로 서술하지 않고 모호한 이미지가 그림처럼 전개되어 있다.

라벨의 곡 '피아노 협주곡 사장조'는 아일랜드 출신의 피아니스트 핀인 콜린스가 협연자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핀인 콜린스는 1999년 스위스 베베이에서 개최된 클라라 하스킬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했으며, 아일랜드를 비롯한 유럽, 미국 등지에서 활동 중이다. 더블린의 로열 아이리시 음악 아카데미에서 존 오코너를 사사한 핀인 콜린스는 시카고 심포니, 휴스턴 심포니, 로테르담 필하모닉,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 버밍엄 시티 심포니 등과의 협연으로 비평가들의 호평과 대중의 갈채를 동시에 받았으며, 크리스토프 에센바흐, 한스 그라프, 엠마뉴엘 크리바인, 니콜라스 맥기건, 사카리 오라모, 타다이키 오타카, 하인리히 쉬프, 바실리 시나이츠키 등 세계적인 지휘자들과 함께 연주하였다.

이번 무대에서 핀인 콜린스가 들려줄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사장조'는 라벨 특유의 풍부한 화성법과 독창적인 감각이 돋보이는 곡으로 1932년 1월 피아니스트 롱(Marguerite Long, 1874-1966)의 협연으로 초연되었다. 초연 당시부터 눈부신 생기와 무한한 에너지로 일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으며, 제 1악장과 제 3악장은 활기와 기쁨으로 충만한 반면 제 2악장은 깊은 내적 관조를 느끼게 한다.

2부를 여는 립스키-코르사코의 '세헤라자데'는 작곡가의 음악적 감각을 잘 표현한 작품으로, 호화로운 멜로디와 더불어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색채감으로 오늘날까지 인기와 명성을 누리고 있는 곡이다.

2부를 여는 립스키-코르사코의 '세헤라자데'는 작곡가의 음악적 감각을 잘 표현한 작품으로, 호화로운 멜로디와 더불어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색채감으로 오늘날까지 인기와 명성을 누리고 있는 곡이다.



알렉산더 아니시모프



핀인 콜린스

■ 입장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은 회원 카드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좌석을 미리 예약하십시오.)
 ■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극단 제 28회 정기공연

수전노 (L'Avare)

3월 15일-16일 목-금요일 오후 7:30, 17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손기룡(수석 연출가)



수전노

지난해 셰익스피어의 희극 '십이야'를 부산에서 초연, 정통 코메디의 진수를 선보였던 부산시립극단이 오는 3월 15일부터 3일간 2007년 첫 무대로 프랑스의 작가 몰리에르의 '수전노'를 무대에 올린다.

17세기 프랑스 희극의 절정을 이끈 작가 몰리에르는 이탈리아의 희극 '코메디아 델 아르테'에 뿌리를 둔 성격희극과 줄거리의 재미를 위주로 한 갈등희극, 궁정 오락용 전원희극 등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작품을 남겼다. 특히 당시 사회에서 볼 수 있는 특정한 폐단을 집약한 상징적인 인물을 내세워 17세기 프랑스 상류사회에 파고든 가짜 신앙, 대귀족들의 퇴폐상, 경박한 사교생활 등을 비판적으로 그려낸 성격희극은 이들 인물 표면에 나타난 풍속 뿐 아니라 그 심리까지 깊이 파고들어, 가벼운 풍속극이 아닌 인간을 모랄리스트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풍속이 전혀 변해버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부인학교, 염세가, 타르튀프, 수전노, 돈주앙 등이 있다.

오늘날 물질에 노예가 되는 현대인들을 비판, 현실에 맞게 재해석되면서 끊임없이 공연되고 있는 '수전노'는 부유하지만 인색하기 그지없는 수전노 아르빠공이 그의 딸 엘리즈와 아들 클레앙트를 돈많은 영감과 과부에게 억지로 결혼시키려 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던 엘리즈와 클레앙트를 돕기위해 하인 라플라

쉬가 꾀를 내어 아르빠공의 돈상자를 훔쳐내지만 공교롭게도 엘리즈와 사랑하던 사이인 집사 발리에르가 범인으로 오해받게 된다.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발리에르가 클레앙트의 연인 마리안느와 남매지간이고 엘리즈와 억지 결혼시키려 했던 부자영감 앙셀므의 아들임이 밝혀지면서 극적인 가족상봉이 이루어지고 마침내 아르빠공의 돈상자와 결혼승낙을 교환함으로써 행복한 결말을 맞게 된다.

부산시립극단 수석연출가 손기룡이 연출하는 이번 무대는 부산시립극단 단원 황창기가 수전노인 아르빠공 영감 역을, 이혁우와 김은희가 아들 클레앙트와 딸 엘리즈 역을 맡는 등 부산시립극단 전 단원이 출연, 환상적인 호흡으로 유쾌한 웃음을 선사한다.

■ 입장료 : R석 15,000원 · S석 10,000원 · A석(청소년) 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좌석을 미리 예약하십시오.)

■ 문 의 : 부산시립극단(607-6136~7),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합창단 제 122회 정기연주회

재 회

3월 27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생동하는 봄의 기운을 노래할 부산시립합창단 제 122회 정기연주회 '재회'가 오는 3월 27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특히 이번 무대는 전 부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를 역임했던 지휘자 이상열이 1999년 이후 8년만에 객원지휘를 맡아 오랜만에 부산의 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서울대학교와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부산시립합창단 객원지휘자로 데뷔 무대를 가진 지휘자 이상열은 대전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로 활동하다 1993년부터 부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로 활동했다. 그동안 국립합창단과 부천시립합창단, 대구시립합창단, 광주시립합창단, 제주시립합창단 등을 객원지휘한 바 있는 이상열은 현재 한울림합창단 상임지휘자, 인제대학교 음악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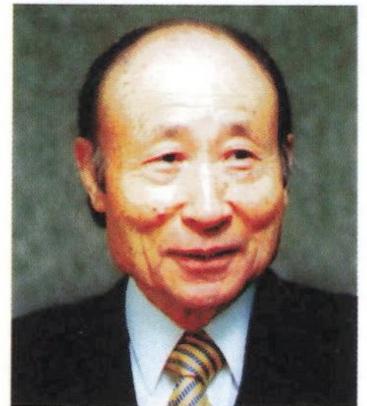
이번 무대에서는 전통 합창음악을 비롯 안일웅, 제갈삼, 고영신 등 부산작곡가의 창작 합창곡과 흥겨운 한국민요모음곡,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뮤지컬 작곡가인 로이드 웨버의 주옥같은 뮤지컬 합창곡 등 다양한 장르의 합창곡을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다. 부산시립합창단은 이밖에도 하차투리안의 '칼춤', 코다이의 '집시의 노래', 흑인영가 '엘리아의 반석', 재즈 할렐루야 등 흥겨운 합창곡을 들려준다.

■ 프로그램

- 전통합창곡/Te Deum in C Major(B. 브리튼), Ave Maris Stella(Trond Kverno),
Kyrie(A. 비발디), Credo(A. 브룩크너)
- 한국창작합창곡/심마니 처럼, 그 처럼(안일웅), 합창과 Piano를 위한 'Elegy' (제갈삼),
독도(고영신)
- 한국민요연곡(김기영 편곡)/방아타령, 한강수타령, 아리랑, 경북궁타령
- 뮤지컬 합창곡(작곡/로이드 웨버, 편곡/Mark Brymer, Calvin Custer)/The Phantom
the opera, The Music of the night 등
- 흥겨운 합창곡/칼춤(A. 하차투리안), 집시의 노래(Z. 코다이), Elijah Rock(편곡
/Moses G. Hogan), 재즈 할렐루야(편곡/Charles Jennens)



이상열



제갈삼



안일웅

■ 입장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은 회원 카드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좌석을 미리 예약하십시오.)
■ 문 의 : 부산시립합창단(607-6126),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2007 신춘음악회 및 제 134회 정기연주회

B-boy와 함께 하는 韓流콘서트 '通'

3월 29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버숨새 예술단



드리프터즈 크루

매 연주마다 다양한 기획으로 우리 음악의 새로운 장을 열어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오는 3월 29일 B-boy와 함께하는 韓流콘서트 '通'이라는 부제로서 신명나고 흥겨운 무대를 선사한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박호성의 지휘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는 1부 봄의 화사한 나들이를 위한 창작관현악 '춘광여정'을 시작으로 새봄과 어울리는 국악관현악곡들을 선곡,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우리 음악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부산시립무용단의 춤과 함께 어우러질 봄의 화사한 나들이를 위한 창작관현악 '춘광여정'은 작곡가 이준호가 화창한 봄빛을 맞으며 자연의 순리대로 선율을 읊고, 필이 나가는 대로 장단을 잡아 작곡한 곡으로 우리 악기들의 개성을 잘 살려 아름다운 봄빛을 표현했다.

두 번째 무대는 부산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로 있는 가야금연주자 이문희의 협연으로 눈이 오는 이른 봄의 아름다운 마을 풍경을 그린 17현 가야금협주곡 '춘설'을 들려준다. 이문희는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 8호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이수자로 우리 음악의 맥을 잇고 있다. 1부 마지막 무대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거문고 수석 이대하가 북한 흥남 제련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봄을 주제로 한 거문고 협주곡 '출강'을 부산에서 처음으로 연주한다.

북한 음악인 김용실이 작곡한 '출강'은 1994년 이세환에 의해 국악계에 소개되었다. 작곡자 김용실은 사회주의의 사실을 담기 위해 실제 흥남제련소에서 얼마간 노동자와 함께 생활했다는 일화가 있다. 이 작품은 1995년 금울악회 정기연주회에서 재연되었으며 이후 관현악곡으로 편곡되어 널리 연주되고 있다.

2부 무대는 우리 음악의 신명과 열정을 느낄 수 있는 무대이다. 유은선 곡 세계인을 위한 창작관현악 '환희'에 이어 신춘음악회의 하이라이트인 최상화곡 B-boy와 풍물을 위한 창작관현악 '상쇠'가 연주된다. 세계의 정상, 한류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 오른 현대 B-boy와 우리의 전통 B-boy라 할 수 있는 풍물이 만나는 파격적이고 도전적인 무대이다. 우리의 전통 B-boy를 대표해 버숨새예술단이, 한류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른 B-boy를 대표해 드리프터즈 크루가 부산국악애호가들과 만난다.

■ 입장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은 회원 카드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좌석을 미리 예약하십시오.)

■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라이징 스타 첼리스트 마리 할링크 초청연주회

3월 30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교향악단이 3월 마지막 무대로 이 시대의 가장 뛰어난 첼리스트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는 마리 할링크를 초청,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마리 할링크는 1973년 벨기에 투르네 태생으로 저명한 유로비전 콩쿠르 수상을 비롯해 브뤼셀, 겐트, 파리, 아인트호벤 등에서 수많은 수상 경력을 쌓았으며, 1992년 바르셀로나의 마리아 카날스 콩쿠르, 잘츠부르크의 모차르테움, 시에나의 아카데미아 치기아나에서 최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1996년 유럽 전역에서 18세부터 26세 사이의 가장 유망한 연주자에게 주어지는 유벤투스 수상자로 선정된 할링크는 2000년 뉴욕 카네기홀 데뷔무대를 가지기도 했다. 2001년에는 유럽 콘서트 홀 협회가 선발하는 '라이징 스타'로 지명되었으며, 2002년에는 기돈 크레머, 안토니오 파파노, 필립 헤레베헤 등 유명 음악가들이 이미 수상한 바 있는 벨기에 뮤직 프레스의 '올해의 솔로리스트'상을 수상하였다.

18살 때부터 브뤼셀 콘서바토리의 교수로 활동해오고 있는 마리 할링크는 이번 무대에서 엘가의 '첼로 협주곡 마단조 작품 85'를 들려준다. 1919년에 발표된 이 곡은 바그너와 같은 화성적 색채감은 물론, 슈만이나 브람스와 같은 내면적 감성을 두루 표현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선율 속에 낭만성과 서정성이 가득 담긴 첼로의 명곡이다.

첼리스트 마리 할링크와의 만남 외에 이번 무대에서는 러시아 작곡가 셰드린의 음악세계를 만날 수 있다. 1973년부터 러시아 작곡가 연맹 회장을 지낸 셰드린은 아내이자 불쇼이 발레단의 전설적인 발레리나인 마야 플리세츠키야를 위해 비제의 오페라 주제에 의한 '카르멘(1967)'을 작곡했으며, 그밖에 '작은 흑등말(1995)', '안나 카레니나(1971)' 등 수곡의 발레곡과 피아노 협주곡, 교향곡, 실내악곡, 24곡의 서곡과 푸가 등 많은 작품을 작곡했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오케스트라 협주곡 제 1번 '너티 리머릭'과 오페라 비제의 주제에 의한 '카르멘 모음곡'을 들려준다. '너티 리머릭'은 그의 간명하고도 다채로운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시리즈의 첫번째 작품이다. '카르멘 모음곡'은 비제의 음악과 셰드린의 진지하고도 창조적인 면이 부각된 새로운 느낌의 곡이다.



알렉산더 아니시모프



마리 할링크

■ 입장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은 회원 카드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좌석을 미리 예약하십시오.)
■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

대극장

LOVE 콘서트 with 서경희
사랑과 감사의 음악회

1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대학교 서경희 교수의 환갑을 기념,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자들이 마련하는 사랑의 음악회.

· 출연/강무림, 김유섬, 이철성, 전혜

란, 김미정, 채범석, 최대우, 나현규, 정나영, 안지현, 김민지 외

· 피아노/최민경, 김지현

입장료 S석 20,000원 · A석 10,000원

문의 프리모아트매니지먼트(622-5529, 016-861-6105)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파가니니 콩쿠르 우승의 작은거인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
초청연주회

2일 금요일 오후 7:30



알렉산더 아니시모프

권혁주

파가니니 콩쿠르 우승으로 세계 음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와 함께 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권혁주는 11세에 차이코프스키 청소년 국제 콩쿠르에서 최연소 2위를 차지한 것을 시작으로 16세에 독일의 클로서트-웬탈 콩쿠르 우승, 17세에 러시아 암폴스키 콩쿠르 그랑프리 및 멘델스존-암폴스키 론도 카프리치오소 최고 연주자상, 19세에 칼 닐센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하는 등 뛰어난

기량과 성숙한 음악성을 겸비한 주목받는 젊은 바이올리니스트이다.

프로그램

로시니/‘빌헬름 텔’ 서곡

파가니니/바이올린 협주곡 제 1번 라장조 작품 6

엘가/수수께끼 변주곡 작품 36

· 지휘/알렉산더 아니시모프

· 협연/권혁주

입장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

제20회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드보르작의 음악세계

3일 토요일 오후 7:30



박성완

김우진

부산최대의 민간교향악단인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가 마련하는 2007년 첫 무대.

부산대학교 박성완교수의 지휘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는 음악애호가들에게 사랑 받고 있는 드보르작의 음악으로 화려한 무대를 열어 준다.

협연자인 첼리스트 김우진은 서울음대를 졸업하고 오스트리아로 유학,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국립음대 등을 최우수 졸업하고 귀국, 현재 KBS교향악단 첼로 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다.

프로그램

드보르작/첼로 협주곡 나단조 작품 104

드보르작/교향곡 제 8번 사장조 작품 88

· 지휘/박성완(부산대학교 교수, 포항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 협연/김우진(첼로 · KBS교향악단 수석단원)

입장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A석 10,000원 · 청소년 5,000원

문의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620-4917, 4918)

부산시민을 위한
현대백화점 신춘음악회

6일 화요일 오후 7:30



하성호

인순이

1988년 창단 이래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레퍼토리로 사랑받아온 서울팝스 오케스트라의 부산연주회.

서울팝스오케스트라는 대한민국 최초의 팝스오케스트라로 클래식과 대중음악이 함께하는 ‘열린 음악회(Crossover)’를 선보이며, 음악을 어렵게만 생각하던 관객들과 ‘함께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음악회’, ‘생활 속의 음악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프로그램

엘가/위풍당당 행진곡

쇼스타코비치 & 몬티/로만자 & 차르다스

임공수/강 건너 봄이 오듯

서울팝스오케스트라 편곡/사랑의 아랑훼즈, 브람스 교향곡 제 3번 (III), I Got Rhythm,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협주곡 제 1번, 비발디의 ‘사계’ 중 ‘봄’

웨버/오페라의 유령 중 ‘All I ask of you’ 조두남/산촌 등 수곡

· 연주/서울팝스오케스트라(지휘/하성호)

· 협연/소프라노 고혜옥, 베이스 나윤규

가수 인순이

문의 서울팝스오케스트라
(02-593-8760)

부산현대백화점(667-1042)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28회 연주회

프랑스 음악과 세헤라자데

9일 금요일 오후 7:30

20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드뷔시와 라벨, 러시아 작곡가 림스키-코르사코프의 명곡들로 전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28회 정기 연주회.



아일랜드 더블린 출신의 피아니스트 핀인 콜린스가 협연자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첫 만남을 갖는다. 핀인 콜린스는 1999년 스위스 베베이에서 개최된 클라라 하스킬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자로 아일랜드를 비롯한 유럽, 미국 등지에서 활동 중이다.

프로그램

드뷔시/ '목신의 오후' 전주곡 작품 86
라벨/피아노 협주곡 사장조
림스키-코르사코프/교향적 모음곡 '세헤라자데' 작품 35

- 지휘/알렉산더 아니시모프
- 협연/핀인 콜린스(피아니스트)

입장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

이 시대 최고의 가객 장사익, 조관우, 김소현 초청

희망의 소리 2007

10일 토요일 오후 7:30

클래식의 대중화를 위하여 미래와 음악이 매년 마련하는 신춘음악회 희망의 소리 2007.

소리꾼 장사익, 대중가수 조관우, 뮤지컬배우 김소현을 초청,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와



함께 클래식과 대중적인 레퍼토리를 선정, 부산시민들에게 희망의 선율을 전한다.

프로그램

아버지, 찔레꽃, 님은 먼 곳에, 봄비, 꽃밭에서, 비원, 날 울게 내버려주오, Hello, 비바코리아, 그대 떠난 빈들에 서서, I think of you(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중) 등 수곡

- 지휘/최선용(서울아트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
- 사회/황소운(KNN 아나운서)
- 오케스트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음악감독 임병원)
- 우정출연/부산치과 의사 남성양상블

입장료 R석 55,000원 · S석 44,000원
A석 33,000원 · B석 22,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미래와 음악(1544-34391)

연정 CHM 5개년 공연기획 시리즈V

춤·화두·맥 그리고 창조
이윤자의 춤 '씻음III' - 살·푸리

12일 월요일 오후 7:30
※춤영상전, 춤갤러리전 11일~12일 오후 6:00~10:00

중요무형문화재 제 27호 승무(故 벽사 한영숙선생 계보) 이수자로 우리 춤의 전승에 힘써온 부산대학교 이윤자교수의 춤 '씻음 III'.



이윤자교수는 15회에 걸친 이윤자춤·화두 연구 발표를 통해 춤과 론을 제시하였다.

전 5막 10장으로 구성된 씻음은 씬(살)에서 회향(푸리)

의 세계를 추구하는 이윤자의 춤 세계가 잘 드러나 있다.

프로그램

서막 스승님 기리는 춤-태평무(춤/이윤자)
1막-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2막-열림
3막-울림
4막-풀림
5막-씻음

- 안무/이윤자 · 대본/임종찬
- 음악/수 리, 김철환

출연

이윤자, 이수동, 김미자, 이봉진, 박숙영, 이성원, 이유지, 임나영, 박유경, 이서린, 백송, 김빛나리, 서다경

입장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A석 10,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부산대학교(510-2949, 1740)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웰빙콘서트
박호성과 심수봉이 만나는 11시 립스틱콘서트

16일 금요일 오전 11:00

'금난새와 11시에 만나요'로 브런치 공연의 새장을 연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웰빙콘서트 두 번째 무대 '박호성과 심수봉이 만나



통합 마케팅 시대의 뉴 브레인! 포애드

광고기획, TV/RADIO 광고제작 및 대행, 신문/전단/카다록 인쇄광고 제작, 기업CIP/BIP, 홈페이지 제작, 온라인 광고 마케팅 기획

[주]포애드 | 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국제회의장 2층
TEL: 051) 627-2563(대) FAX: 051) 627-2560



는 11시 립스틱콘서트'.

열정 넘치는 박호성의 지휘와 가수 심수봉이 들려주는 '사랑밖에 난 몰라',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등 가요와 국악관현악이 어우러지는 색다른 무대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박범훈/화사한 봄을 주제로 한 춤과 관현악 '춘무(春舞)

강상구/세상 이야기를 담은 해금협주곡 '세상풍경'

심수봉의 삶과 사랑 이야기/사랑밖에 난 몰라,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원일/힘찬 내일을 위한 관현악 '신벚놀이'

· 지휘/박호성(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 가수/심수봉

· 춤/최의옥, 안주희(부산시립무용단 단원)

· 해금/방병원(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 소리/박성희, 정선희(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입장료 균일 1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인 4매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댄스컬 '사랑하면 춤을 춰라'

17일-18일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2:00, 6:00

댄스컬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도입,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랑하면 춤을 춰라' 부산무대.

'사랑하면 춤을 춰라'는 2004년 초연 이후 총 500회를 넘는 공연 동안 현대무용, 재즈, 비보이 등 내노라하는 국내 춤꾼들의 등용문 역할을 해왔다. 대사가 없는 난버벌 형식의 공연이지만 다양한 춤들이 이야기 속에 스며들어가는 탄탄한 구성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사랑하면 춤을 춰라'는



2007년 일본-동경,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초청공연, 중국 남경 초청공연, 에딘버러 페스티벌 프린지 참가 등을 계획하고 있다.

입장료 1층석 40,000원 · 2층석 3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KNN(1577-7600, www.knn.co.kr)

국내 정상급 성악가와 함께 하는
2007 신춘음악회

클래식의 대중화 선언

20일 화요일 오후 7:30



김영미

양희준

'클래식의 대중화 선언'을 부제목으로 하는 이번 신춘음악회는 이탈리아의 정상급 지휘자 주제페 핀찌(Giuseppe Finzi), 동양의 마리아 칼라스 소프라노 김영미, 유럽 전 지역과 독일 함부르크 오페라극장 주역으로 유명한 베이스 양희준 등이 출연, 새봄의 싱그러움을 담은 신춘 무대를 열어준다.

프로그램

비제/카르멘 서곡, 투우사의 노래, 하바네라, 꽃노래

베르디/리골렛토 중 '천벌 받을 악마들아' '여자는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이'

임금수/강 건너 봄이 오듯

신동수/산아 등 수곡

출연

소프라노 김영미(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베이스 양희준(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테너 나승서(수원대학교 교수), 바리톤 우주호(한양대학교 외래교수), 소프라노 김유섬(창원대학교 교수), 바리톤 조현수(부산대학교 외래

교수), 메조소프라노 박소연(창원대학교 외래교수), 테너 김화정(창원대학교 외래교수)

· 지휘/주제페 핀찌(Giuseppe Finzi)

· 관현악/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입장료 VIP 100,000원 · R석 80,000원

S석 50,000원 · A석 30,000원

B석 20,000원 · 학생 1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가람공연기획(626-6664, 1544-9373, www.garamarthall.co.kr)

KNN 창사 11주년 기념

부산가야금연주단 연주회

**산조에서 비틀즈까지
絃響新(현향신화)**

22일 목요일 오후 7:30



전통음악과 창작음악을 아우르는 가야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한국의 명창 안숙선과 함께하는 가야금 병창, 대규모 오케스트라의 형태로 가야금 18현, 25현으로 창작음악과 퓨전음악으로 신나고 경쾌한 음악을 선사한다.

특히 일반인과 음악애호가들에게 가야금과 현대예술(베이스기타, 포크션, 드럼 및 B-BOY 등)과의 만남으로 우리 국악의 새로운 면을 보여준다.

絃響新(현향신화)는 가야금의 소리(울림)로 새로운 풍류소리가 조화를 이룬다는 의미이다.

프로그램

이준호/바람, 강

김병호류 긴 산조 중 휘모리, 단모리

가야금 병창/호남가, 제비노정기

황의종/아리랑, 밀양아리랑, 진도아리랑 변주곡

지원석/絃響新. (현향신화)(2007 부산가야금연주단위촉곡)

박경훈(편곡)/비틀즈(Beatles)와 가야금이 만났을 때 등

· 지휘/이수은(노엘합창단, 토브남성합창단 지휘자)

· 해설/윤종강(국악평론가)

· 특별출연/안숙선(중요무형문화재 제 23호 가야금 산조 및 병창 예능보유자), 이종대(부산대학교 국악학과 교수), B-BOY팀-X.T.C

입장료 1층석 30,000원 · 2층석 2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KNN(850-9250)

악극 '울고넘는 박달재'

24일 토요일 오후 4:00, 7:30
25일 일요일 오후 3:00, 6:30



'번지없는 주막'
'홍도야 울지마라'
'굳세어라 금순아'
등으로 악극의 대중화를 선도해온 극단 가교의 또 다른 화제작 악극 '울고넘는 박달재' 부산무대.

험준한 고갯길 일명 울고넘는 박달재에서 병든 어머니의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만석꾼 박진사댁에 팔려가는 금봉과 박진사댁 삼대독자 준호의 운명적인 만남과 애절한 모정이 옛 가요와 함께 펼쳐진다.

출연

박인환, 최주봉, 양재성, 방주란, 김진태, 박승태, 이상민, 최연식, 박종상, 차석환, 김재권 외 극단 가교단원

입장료 VIP석 77,000원 · R석 66,000원
S석 55,000원 · A석 44,000원
(3인 효도석 165,000원 · 4인 효도석 22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SM기획(442-6500)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 제 2회 정기연주회

26일 월요일 오후 7:30



지난해 11월 난치병 어린이를 돕기 위해 창단된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가 들려주는 제 2회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베르디/운명의 힘

서곡

라흐마니노프/심포니 2악장
차이코프스키/비창 중 3악장 등 수곡

· 지휘/김덕기(서울대학교 교수)
· 협연/김유섬, 전병호, 서울대학교 오페라 연구소 중창단

입장료 R석 20,000원 · S석 10,000원

문의 장극태(011-582-5189)

부산시립합창단 제 122회 정기연주회

재회

27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시립합창단 수석 지휘자를 역임하고 현재 한울림합창단 상임지휘자, 인제대학교

음악과 겸임교수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상열과 함께 하는 부산시립합창단 제 122회 정기연주회.

1999년 3월 이후 만 8년만에 부산시립합창단을 지휘하는 이상열지휘자는 서울대학교와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부산시립합창단 객원지휘자로 데뷔했다.

프로그램

전통합창곡/Te Deum in C Major, Ave Maris Stella, Kyrie, Credo
한국창작합창곡/심마니 처럼, 그 처럼(안일웅곡), 합창과 Piano를 위한 'Elegy' (제갈삼곡), 독도(고영신곡)

한국민요연곡/방아타령, 한강수타령, 아리랑, 경북공타령(김기영 편곡)

뮤지컬 합창곡/A Concert Celebration (A. L. webber), The Phantom the opera 등

흥겨운 합창곡/칼춤, 집시의 노래, 재즈 할렐루야 등 수곡

· 지휘/이상열
· 피아노/이승윤, 이경미

입장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합창단(607-6126)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2007 신춘음악회 및 제 134회 정기연주회

B-boy와 함께 하는 韓流 콘서트 '通'

29일 목요일 오후 7:30

since 1955



MUN WOO DANG BOOK STORE
www.mwdangbook.com

문우당서점

Tel: 245-3843(대표)
245-2714(공연문의)

자갈치시장정문 아치탈 앞
(미니를 건너편)

각종 공연예매처

통도원타지아, 경주월드, 광안리미미랜드 연중계속 예매

52년의 양심경영 앞으로도 이어가겠습니다!!

대형종합서점(지하 1~5층) 최대의 종합지도센터

지금부터 ~ 3월까지는 캘린더
그 이후로는 「세계지도」 기타, 선물
'2007' 세계지도캘린더 증정

❖ 문우당서점회원카드로 문우당서점과 CGV
영화관까지 공용적립(회원카드 무료발급)
❖ 가마골소극장 특정요일할인(50~20%)

책 읽는 사람이
아름답다!



층별 : 만남과 휴식공간
(커피 · 쿠키아 각 100원)



이문희

이대하

새봄의 기운을 담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신춘음악회'로 봄의 화사한 나들이를 위한 창작관현악 '춘광여정'을 시작으로 가야금, 거문고, 비보이 협연 등 우리 음악의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돋보이는 신명나고 흥겨운 무대를 열어준다.

특히 마지막 곡으로 세계의 정상, 한류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 오른 현대 B-boy와 전통 B-boy인 풍물이 만나는 파격적이고 도전적인 무대가 마련된다.

프로그램

이준호/봄의 화사한 나들이를 위한 창작관현악 '춘광여정' (부산초연)

황병기/봄에 내리는 눈을 표현한 17현 가야금 협주곡 '춘설'

김용실/봄을 주제로 한 거문고 협주곡 '출강' (부산초연)

유은선/세계인을 위한 창작관현악 '환희' (부산초연)

최상화/B-boy와 풍물을 위한 창작관현악 '상쇠'

- 지휘/박호성(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 협연/권봉정, 김주령, 박창희, 오수연, 이경현(춤), 이문희(가야금), 이대하(거문고), 버숨새예술단, B-boy 드리프트즈 크루

입장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라이징 스타 첼리스트
마리 할링크 초청연주회**

30일 **금요일** 오후 7:30

유럽전역에서 가장 유망한 연주자에게 주어지는 유벤투스 수상자로 선정된 첼리스트 마리 할링크와 함께 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이 시대 가장 뛰어난 첼리스트 중 한사람으로 꼽히는 마리 할링크는 유럽 콘서트 협회가 선발하는 라이징 스타로 선발되어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프로그램

셰드린/오케스트라 협주곡 제 1번 '너티 리머릭'

엘가/첼로 협주곡 마단조 작품 85

비제-셰드린/카르멘 모음곡

· 지휘/알렉산더 아니시모프

· 협연/마리 할링크

입장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창단 34주년 기념
감사와 사랑이 가득한 세상**

31일 **토요일** 오후 5:00

2007년 창단 34주년을 맞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하는 특별연주회.

수석지휘자 배정행의 지휘로 우리 가곡, 뮤지컬 환타지, 고전적인 음악과 현대의 합창이 잘 조화된 레퍼토리를 선곡했다.

프로그램

감사 I /도라지꽃(박지훈 곡), 언덕에서(김일권 곡), 산유화(이현철 곡), 그리움(김일권 편곡)

감사 II /뮤지컬 '애니' 중에서 '미소가 없다면 완전한 웃을 입은 것이 아니야', '꿈은 이루어지네', 뮤지컬 '그리스' 중에서 '우리 함께 가요'

감사 III 북춤/북소리의 흥과 멋 등 수곡

· 지휘/배정행(수석지휘자)

· 반주/이영옥

· 지도/노금선(안무), 김양자(합창)

문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6131)

4인 3색 콘서트

4월 2일 **월요일** 오후 7:30

1978년 자작곡 시인의 마을, 촛불을 발표하면서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온 가요계의 음유시인 정태춘과 박은옥, 뛰어난 가창력으로



박은옥 · 정태춘

박강성

라이브 붐을 일으킨 박강성, 명성황후의 주인공 김지현이 들려주는 4인 3색 콘서트.

입장료 R석 60,000원 · S석 50,000원
A석 40,000원 · B석 30,000원
(부산시립예술단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부산문화(635-9081)

중극장

**부산멜로스오케스트라
제 4회 정기연주회**

3일 **토요일** 오후 6:00

2002년 아마추어 연주자들로 창단된 부산멜로스오케스트라의 제 4회 정기연주회.

부산멜로스 오케스트라는 정기연주회를 비롯 울산음악협회 초청연주회, 좋은 강안병원 초청연주회 등을 통해 음악사랑을 실천해왔다.

프로그램

베토벤/에그몬트 서곡

부루흐/콜리드라이

스트라우스/라데츠키행진곡 등 수곡

· 지휘/정홍기

· 첼로/박현영 · 테너/김주곤

입장료 초대

문의 부산멜로스오케스트라

(611-785, 010-5077-0097)

**인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제29회 정기연주회**

4일 **일요일** 오후 7:30

부산의 젊은 연주자들로 구성된 인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2007년 첫 연주회.

프로그램

비탈리/샤콘느

랄로/첼로협주곡 등 수곡

· 지휘/김용문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인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011-565-8088)

홍성은&세르지오 셉킨 듀오연주회

6일 화요일 오후 8:00



단국대학교 교수로 있는 첼리스트 홍성은과 러시아 출신 피아니스트 세르지오 셉킨 듀오 연주회.

줄리아드 음대 및 동대학원을 장학생

으로 졸업하고 비엔나 국립음악원을 졸업한 첼리스트 홍성은은 1980년 New York National Competition 대상 수상으로 카네기홀 데뷔연주를 가졌다. 세르지오 셉킨은 1999년 뉴올리언스 세계 피아노 대회에서 1등상과 함께 Chopin 상, 젊은 음악가들을 위한 세계 대회에서 1등상, 모든 러시아와 Sonja공주의 피아노 대회에서 수상하기도 했다. Boston Phoenix 는 최근 그에 대해 '누구보다 바흐를 잘 연주하는, 최고로 지적인 피아니스트, 보스톤의 가장 위대한 보물 중 하나' 라고 묘사했다.

입장료 R석 40,000원 · S석 30,000원

문의 아트인부산(442-6500)

부산음악협회 2007 첫 번째 연주회

제 7회 신춘음악회

7일 수요일 오후 7:30

부산의 젊은 음악인들이 부산시민에게 선사하는 웰빙 콘서트.

프로그램

알베니즈/스페인조곡 작품 4번

드볼작/오페라 '루살카' 중 '달의 노래'
모차르트/플루트 콘체르트 제 1번 1악장
차이코프스키/러시아 가곡 그것은 이른 봄의
일이 었지 등 수곡

출연

차지연(피아노), 배정애(알토), 신인철(플루트), 권경민(피아노), 강연희(메조소프라노), 이재은(바이올린), 손정민(피아노), 송희철(비브라폰)

입장료 초대

문의 부산음악협회(634-1295)

단비올 남성앙상블 제 6회 정기연주회

12일 월요일 오후 7:30



1999년 부산시내 교사, 교수, 사업가, 의사, 회사원, 경찰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성악 애호가들로 창단된 단비올남성앙상블 제 6회 정기연주회.

단비올남성앙상블은 그동안 교회, 복지, 보호시설의 공연과 5회의 정기연주회를 비롯 KBS-TV, 부산합창제, 부산페스티벌오케스트라, 부산윈드오케스트라 등과의 협연과 오페라 등 50여 회의 각종 연주를 통하여 지역 합창 운동을 활발히 전개해오고 있다.

프로그램

비발디/글로리아

신승훈/보이지 않는 사랑

하순봉(편곡)/마법의 성

비틀즈/Hey Jude 등 수곡

· 특별출연/정혜영(바이올린), 박영미, 양지성(플루트)

· 지휘/강성철 · 피아노/김은정

입장료 초대

문의 강성철(018-760-6468)

부산시립극단 제 28회 정기공연

수전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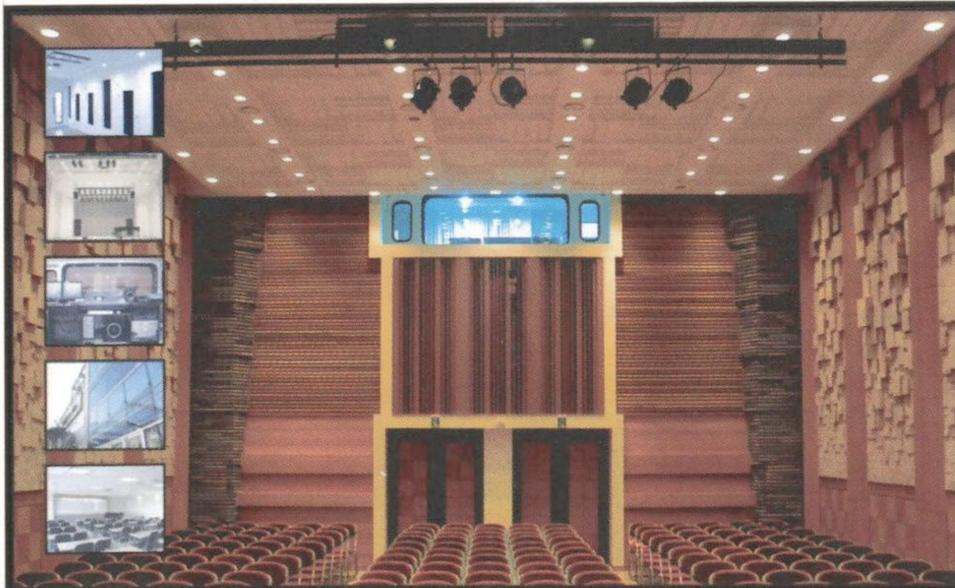
15일-16일 목요일-금요일 오후 7:30

17일 토요일 오후 4:00



지난해 '십이야'를 부산에서 초연, 고전의 재해석 작업을 시도한 부산시립극단이 몰리에르의 대표작 '수전노'를 새롭게 재해석, 부산연극애호가들에게 선보인다.

17세기 프랑스의 극작가이자 배우였던 몰리에르에 의해 쓰여진 수전노는 '코메디아 델 아르테'의 유형적 인물 판 탈로네(탐욕스런 늙은이)인 아르파공과 잔니(하인)의 역할인 라플레슈, 자크 등에서 반탈을 벗기고 그 인물에 성격을 불어넣어 몰리에르 특유의 사회를 반영한 풍자와 재치있는 대사로 사랑받아온 작품이다.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감탄하는 국제수준 어쿠스틱연주 녹음홀 부산에 있습니다_글로벌아트홀

레코딩스튜디오 · 글로벌콘서트바트리 공연대관 녹음, 음반!연습실!세미나

· 작/몰리에르 · 연출/손기룡
· 무대감독/정순지 · 음악/노은석
· 무대미술/백철호

입장료 R석 15,000원 · S석 10,000원
청소년 5,000원

문의 부산시립극단(607-6136)

프로뮤지카챔버소사이어티 제 2회 정기연주회

20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연주자들의 실내악 연주 단체인 프로 뮤지카 챔버 소사이어티 두 번째 무대.

매번 연주마다 프로젝트적인 연주멤버의 구성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연주를 보여주고 있는 프로뮤지카 챔버 소사이어티는 이번 연주에서는 새로운 연주자들의 영입으로 또 다른 호흡을 맞추는 만큼 훨씬 더 긴장감있고 다이내믹한 연주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

하이든/현악 4중주 작품 64, 제 5번 라장조 '종달새' (연주/엄세희, 신상준, 이성호, 이예성)

드볼작/현악 4중주 작품 77 사장조(연주/이은옥, 양경아, 김가영, 정준수, 박희철)

차이코프스키/현악 6중주 작품 70 '플로렌스의 추억' (연주/신상준, 양경아, 김은진, 김상철)

입장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A석 10,000원

문의 클래식 프론티

(521-5729, 011-9142-5729)

아지무스 오페라단 오페라 '코지판 투테'

24일 토요일 오후 3:00, 7:30

25일-26일 일-월요일 오후 7:30



김삼희 성미진 박찬

피가로의 결혼, 돈 조반니와 함께 모차르트의 3대 오페라 부파 중 하나로 널리 사랑받고 있는 오페라 '코지판 투테'는 모차르트의 희극 오페라로 당시 빈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로렌초 다 폰테가 대본을 썼고 1790년 1월 26일 빈의 부르크 궁정극장에서 초연되었다.

섬세한 감정 묘사와 근대적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평이 나 있는 이 작품은 우리나라에는 '여자는 다 그래'라는 제목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 지휘/박종휘(창원시향 부지휘자, 동아대 겸임교수)

· 연출/장호진(오페라 전문연출가)

· 조연출/김보영(안무가)

· 음악코치/박윤정(한양대 졸업, 동아대 출강교수)

출연

윤현숙, 김삼희(피오르딜리지), 성미진, 강연희(도라벨라), 전병호, 박찬(페르란도), 김중화, 안영중(굴리엘모), 정한나, 문경림(데스피나)김도형, 최기천, 이지훈(돈알폰소)

입장료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A석 20,000원

문의 아지무스 오페라단

(011-9520-4649)

제 32 회 독우회 정기연주회

27일 화요일 오후 7:30

독우회 회원으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고 있는 피아니스트 심경숙, 박정순, 이현주가 들려주는 독우회 제 32회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쇼팽/소나타 제 3번

브람스/발라드 제 1, 2, 3, 4번

리스트/변주곡

입장료 일반 10,000원 학생 5,000원

문의 예은예술기획(632-6904)

부산카머심포니오케스트라
제 15회 정기연주회

클래식, 그 편안함!

28일 수요일 오후 7:30



안유경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한 가정주부, 교사, 학원경영자들과 음대 대학원생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부산카머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하이든/교향곡 제 52번

바흐/오보에와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김성태/동심초

모차르트/심포니 제 25번

· 지휘/안유경

· 협연/박미정(바이올린), 손양호(오보에), 이솔미(소프라노)

입장료 일반 10,000원 학생 5,000원

문의 부산문화(635-90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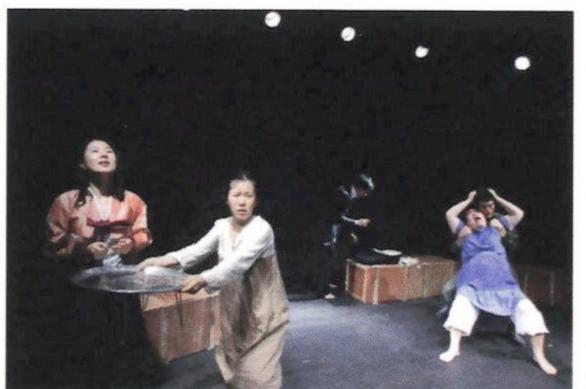
2007 제 25회 부산연극제 축하공연
극단 골목길

경숙이, 경숙 아버지

30일 금요일 오후 7:00

31일 토요일 오후 4:30, 7:30

4월 1일 일요일 오후 4:30



올해로 25주년을 맞는 2007년 부산연극제의 화려한 개막과 함께 펼쳐지는 서울극단 골목길의 축하공연.

'경숙이, 경숙 아버지'는 격변하는 한 시대, 이 세상과 힘겨운 사투를 벌여 온 우리네 아버지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 작, 연출/박근형

출연

황영희, 김상규, 김도균, 김영필, 고수희, 김덕현, 주인영, 안성일, 권방현

입장료 R석 30,000원 · A석 25,000원

문의 부산연극협회(645-3759)

2007 제 25회 부산연극제 경연참가작 극단 에저또 '미자르'

4월 3일 화요일 오후 7:30,
4일 수요일 오후 4:30, 7:30

똑같은 생활에 권태감을 느끼는 남자와 여자, 생활에 지친 사회인의 대리물로서 자유를 갈망하고 구속에 대해 반발하고 자극을 얻고 싶어하는 소년과 소녀를 통해 나는 누구이고, 나는 누구이고 싶어 하는가? 라는 물음을 던져보는 작품.

· 작, 연출/최재민

출연

이지훈, 곽정림, 구윤희, 김지연

입장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극단 에저또(852-9161)

소극장

이호교의 콘트라베이스 이야기

28일 수요일 오후 7:30



독주악기로 흔히 연주되지 않는 콘트라베이스 독주회를 매년 열고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이호교 교수가 들려주는 '이호교의 콘트라베이스 이야기'.

유학길에 오르기 전 대전시립교향악단 최연소 수석단원을 역임한 이호교는 비엔나 국립음대, 독일 자브리켄, 뮌헨국립음대에서 음악수업을 하고 국내외에서 독주 및 앙상블을 통해 악기의 매력적인 저음의 음색을 대중화시켜왔다.

연주회마다 이호교 자신이 직접 곡목 해설과 악기에 대한 설명을 가미하여 관객들에게 보다 쉽고 친숙하게 전해준다.

프로그램

바흐/아리오소

헨델/울게 하소서

바흐/가보트

드볼작/어머니가 가르쳐주신 노래

몬티/차르다스 등 수곡

· 피아노/김지현(서울튜티앙상블 멤버)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무직 클람머

(02-547-2629, www.musikkla)

2007 제 25회 부산연극제 자유 참가작 극단 자유바다 '마법의 성과 피노키오의 모험'

30일 금요일 오전 11:00, 31일-4월 1일 토-일요일 오후 2:00, 4:00



인형친구 피노키오와 함께 마법의 성으로 떠난 기호. 마법의 성에서 바다여행과 동굴여행, 곤충거인과의 만남을 겪으며, 세상의 풍파와 고통을 만

나고 절망과 우정, 고통과 사랑을 배우면서 마법의 성을 빠져나온다.

· 작/정경환 · 연출/강혜란

출연

박지영, 강혜란, 오영섭

입장료 일반 15,000원 · 청소년 12,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극단 자유바다(622-3572)

2007 제 25회 부산연극제 자유 참가작 극단 누리에 십년 후,

4월 3일-4월 8일 평일, 토요일
오후 7:30 일요일 오후 4:30



20대에서 30대가 되어 10년이 지나 만난 세여자... 대학 동창생 수진, 주리, 희남.

아무렇지도 않게 늘어놓는 이야기 속에서 가끔씩 불쑥불쑥 현재 그녀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고개를 들어 민다.

· 각색/김민정

· 연출/강성우

출연

강봉금, 황정미, 최성희

입장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극단 누리에(621-3573)



새로운 시설과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품격을

유지할수 있도록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레스토랑
모짜르트

TEL. 051-622-1456
부산문화회관 영빈관 맞은편 1층
리셉션 · 생일잔치 · 각종모임 예약 받습니다.

- 음악
- 무용
- 연극
- 영화
- 콘서트
- 행사
- 전시

● 주요문화공간

- 가람아트홀(626-6664)
- 가마골소극장(245-0042)
- 가톨릭센터(462-1870)
- 경성대학교 콘서트홀(620-4561)
- 국도아트홀(247-4242)
- 금정문화회관(519-5651)
- 글로벌아트홀(505-5995)
- 놀이아트홀(631-0660)
- 너른소극장(622-3572)
- 동래문화회관(550-4481)
- 동보서적 문화홀(803-8000)
- 동서대학교 소향아트홀(320-1209)
- 동아대학교 석당홀(240-2651)
- 동의대학교 석당아트홀(890-1081)
- 미리내소극장(504-2044)
- 민족굿터 신명천지(515-7314)
- 부산민주공원(462-1016)
- 부산사회체육센터(744-1181)
- 부산시민회관(630-5200)
- 부산전시컨벤션센터(740-7300)
- 실천무대 소극장(245-5919)
- 엑터스소극장(611-6616)
- 열린소극장(555-5025)
- 을숙도문화회관(220-5321~4)
- 추리문학관(743-0480)
- 프랑스문화원(465-0306)
- 40계단문화관(600-4041)
- KBS 부산홀(620-7100)
- MBC아트홀(760-1000)
- SH공간소극장(621-8518)

(※ 가나다순)

음 악

부산아버지합창단 3번째 이야기
가족과 함께하는 사랑의 콘서트

1일 목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2005년 두란노 아버지학교를 수료한 단원들로 결성된 부산아버지합창단이 마련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사랑의 콘서트.

- 지휘/이홍길 · 피아노/안선애
- 협연/CCM가수 남궁송옥, 박보영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아버지합창단(011-599-9937)

글로벌콩쿠르
우수 입상자 축하음악회

1일 목요일 오전 11:00
글로벌아트홀

지난 2월 26일부터 사흘간 각 부문별로 개최된 제 3회 글로벌콩쿠르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차세대 꿈나무들의 무대.

입장료 초대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오카리나 페스티벌
- 작은 거위들의 합창 -

2일 금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소극장

한국오카리나교육협회 부산지부에 소속된 하늬소리, 아라움, 어울림, 한아름, 사명, 풀빛, 서동오카리나 앙상블이 들려주는 오카리나 페스티벌.

- 찬조출연/부산팬플룻사랑
- 독주/이정미, 김정숙, 허영희

입장료 무료

문의 이정미(010-4731-5415)

베토벤 첼로 소나타 & 바리에이션 전곡연주회

2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서울대학교와 독일 프라이부르크음대(석사), 트로싱엔음대(박사)를 졸업하고 현재 서



정재윤

정성흡

올바로크합주단 수석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첼리스트 정재윤과 줄리어드음대와 뉴욕주립대 및 동대학원을 졸업한 피아니스트 정성흡이 함께하는 베토벤 첼로 소나타 & 바리에이션 전곡연주회.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여성을 위한
행복한 11시 음악회

매주 금요일 오전 11:00
글로벌아트홀

여성의 자아찾기와 삶을 주제로, 미혼여성에서부터 주부, 임산부, 할머니까지 함께 즐기는 여성들을 위한 행복한 11시 음악회.

■ 2일 재미있는 해설과 함께하는 명화감상



바이올리니스트 Andre Rieu와 함께하는 무대.

■ 9일 임산부를 위한 태교음악회

태아의 건강과 임산부의 행복을 위해 글로벌챔버앙상블(리더/김경미)이 들려주는 태교음악회.

■ 16일 우리귀에 친숙한 해설이 있는 음악회
오카리나 연주자 박종근이 들려주는 오카리나 선율의 아름다운 무대.

■ 23일 엄마랑, 아가랑 함께하는 음악회

그린샬레 스위스앙상블의 재미있는 요들송으로 마련되는 엄마와 아가를 위한 무대.

■ 31일 작곡가 신영순의 '허황후' 상영

2002년 부산아시아게임 공식문화축전으로



무대에 오른 작곡가 신영순의 '허황후'를 대형 화면과 우수한 음질로 감상할 수 있는 무대.

문의 균일 5,000원
입장료 글로벌아트홀(505-5995)

아기가 더 좋아하는 태교음악회 엔젤 스토리 콘서트

3일 토요일 오후 3:00
시민회관 소극장

클래식과 재즈, 탱고, 영화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주는 태교음악회.

프로그램

- 엘가/사랑의 인사
- 차이코프스키/백조의 호수
- 카를로스 가르델/탱고 '포르 우나 카베사' (Por Una Cabeza) 등 수곡
- 연주/유로클래식 멤버스

문의 초대
입장료 (주)이에프이(02-3282-5731,
www.happyland.co.kr)

클래식 기타리스트 띠보 코방 첫 내한공연

3일 토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전 세계 유명 콩쿠르를 휩쓴 프랑스가 사랑하는 천재 클래식 기타리스트 띠보 코방 첫 내한 공연.

보르도 국립고등음악원, 파리 국립

고등음악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띠보 코방은 그동안 유럽은 물론 캐나다, 미국, 브라질, 러시아 등 전 세계를 무대로 명성을 쌓아왔다.

프로그램

- 스칼라티/5 Sonatas
- 롤랑 디앙/3 Arrangement
- 필립 코방/무한으로의 여행 등 수곡

입장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학생 10,000원
문의 부산프랑스문화원(465-0306)

배효정 가야금독주회

3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부산대학교 국악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전주시립전통예술단 가야금 수석 역임한 가야금 연주자 배효정 독주회.

프로그램

- 김영재/17현 가야금 독주곡 '풀잎'
- 김계옥/25현 가야금 독주곡 '궁타령의 맛' (부산초연) 등
- 장구/송강수(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입장료 초대
문의 배효정(016-866-0844)

가톨릭센터 토요일객석 소극장 오페라 시리즈 3 리골렛토 21

3일, 10일 토요일 오후 4:00, 7:00
가톨릭센터 소극장



베르디의 비극 '리골렛토'를 현대적 배경으로 새롭게 구성,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감동의 무대를 선사하는 '리골렛토 21'.

- 연출/김성경
- 출연/바리톤 박대용, 고영호, 소프라노 박음이, 김한나, 테너 전병호, 양승엽 외

입장료 균일 30,000원(단체 25,000원)
문의 가톨릭센터(462-1870)

아가페코랄 제 29회 정기연주회

6일 화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가족 종합건강검진 10% 할인

부산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든든한 병원

부산의료원

부산의료원은 부산유일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해 한발 앞서가는 큰 병원으로 새롭게 도약·발전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 내과 | 소화기내과 | 소아과 | 신경과 | 정신과 | 피부과 | 외과 | 흉부외과 | 정형외과 | 성형외과 | 신경외과 | 산부인과 | 안과 | 이비인후과 | 비뇨기과 | 치과 | 가정의학과 | 재활의학과 | 마취통증의학과 | 진단방사선과 | 진단검사의학과 | 병리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2동 1330

· 대표전화 : 051)507-3000 · Fax : 051)507-3001 · 홈페이지 : www.busanmc.or.kr

지난 1977년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로 창단연주회를 가진 이래 교회음악만을 연주해 온 아가페코랄의 29번째 정기연주회.

- 지휘/김주태(서울신학교, 기독교대 교수)
- 피아노/최선미, 유윤희 · 오르간/김혜정
- 특별출연/최혜영(메조소프라노), 신정화(테너)

입장료 초대

문의 아가페코랄(816-2807)

김행재 귀국 독창회

6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부산대학교와 이탈리아 밀라노 주제페 베르디 국립음악원을 졸업한 소프라노 김행재 귀국 독창회.

김행재는 '벨벳과 같이 부드럽고 맑은 음색을 지닌 소프라노'라는 호평을 받으면서 현재 한국과 이탈리아에서 오페라 가수로 활동중이다.

프로그램

비발디/오페라 '바자제' 중 '나는 고통받는 아내라오'

비제/오페라 '카르멘' 중 '이젠 두렵지 않아'

드보르작/집시의 노래 중 '나의 노래' 등 수곡

· 피아노/양기훈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김행재(011-273-2235)

PBC 화요음악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가톨릭센터 소극장

■6일 2007 신인음악회-인제대학교
인제대학교 음악학과 졸업생과 동대학원 재학생들이 한 무대에 선다.

· 출연/엄희정, 권윤화, 이영송(피아노), 김민지(플룻), 박은경, 김수진(소프라노)

· 해설/김종진(작곡가)

■13일 새음악회 '춘삼월, 새학년, 새노래'
새로움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젊은 음악인들의 모임 '새음악회'가 2007년 새 봄을 맞아 마련한 무대.

· 출연/정오영, 최용준(테너), 손명준, 박종준

(바리톤), 유효선, 이보미, 이한아(소프라노)
· 해설/김윤선(음악평론가)

■20일 소프라노 차성실 독창회



한양대학교 성악과와 이탈리아 라피나 오토리노 레스피기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그동안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 온 소프라노 차성실 독창회.

· 피아노/정선하 · 해설/오동주(성악가)

■27일 양산청소년오케스트라 특별연주회



2002년 창단 이후 정기연주회 및 대한민국 청소년오케스트라축전, 세계야외공연축전, 찾아가는 문화마당 등 다양한 무대에서 서온 양산청소년오케스트라 특별연주회

· 지휘/김종진 · 해설/박진홍(음악평론가)
· 협연/정혜주(첼로), 안버리(피아노), 이영린(바이올린)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가톨릭센터(462-1870)

금정수요음악회 차세대 비르투오조들의 향연

7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미래의 비르투오조를 꿈꾸는 차세대 유망주들의 무대.

프로그램

베리오/바이올린 협주곡 제 9번 1악장

비발디/오보에 협주곡 다장조 Rv 447 1악장
최영섭/그리운 금강산 등 수곡

· 출연/김요한(바이올린), 한예나, 이호권(플루트), 엄이슬(소프라노), 김소연(오보에)

· 해설/박진홍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박진홍(017-563-7966)

제 9회 앙상블 클래식와 함께하는 11시 브런치 콘서트

8일 목요일 오전 11: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앙상블 클래식의 연주와 해설로 감상할 수 있는 브런치 콘서트.

· 음악감독/홍성택
· 발레/오쿠라나 유이, 조재범

입장료 균일 15,000원

문의 앙상블 클래식(506-6306)

부산타악예술문화센터 정기연주회

9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부산타악예술문화센터 수강생들이 마련한 정기연주회로 우리에게 친숙한 가요를 흥겨운 타악연주로 들려준다.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타악예술협회(501-0977)

김성숙 피아노 독주회

12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동의대학교 교수로 있는 김성숙의 독창회로 'Schubertiads-내 마음의 노래'라는 주제로 슈베르트의 대표적인 곡들을 들

려준다.

프로그램

12개의 그라츠의 왈츠 D.924, 악흥의 한때 D.780, 소나타 D.845

문의 균일 10,000원

입장료 클래식 프로인트(521-5729)

제 2회 김인호 플루트 독주회

13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현재 유니세프 청소년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노모스 플루트앙상블, 그레도 플루트트리오, 화이트 플루트앙상블 단원으로 활동중인 김인호는 그동안 독주회를 비롯 뉴욕 카네기홀 듀오리사이틀, 줄리어스 베이커 초청 플루트페스티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프로그램

A. 오네거/암산양의 춤
L. 모이즈/4개의 모음곡
바흐/협주곡 가단조 등

문의 균일 10,000원

입장료 이너뮤직(017-554-7777)

노모스 플루트앙상블 제 2회 정기연주회

19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지난 2005년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 박찬엽을 주축으로 결성된 노모스 플루트앙상블의 두 번째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그리그/더 라스트 스프링
도플러/안단테와 론도 등 수곡

· 출연/박찬엽, 김인호, 정병태, 김성민, 박필희, 심지은, 원지영

입장료 초대

문의 이너뮤직(017-554-7777)

벨칸투스 성악연구회 창단 2주년 기념음악회

22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소프라노 이수정, 메조소프라노 이미경, 테너 김태현, 바리톤 최인철 등 젊은 성악가들이 출연, 사랑과 이별, 그리움을 담은 가곡과 오페라 아리아를 해설과 함께 들려준다.

· 찬조출연/테너 임수철, 수트리오

· 피아노/정효원

입장료 초대

문의 이수정(011-393-5118)

피아니스트 이시내 초청리사이틀

23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서울대학교 피아노과를 수석졸업하고 영국 스코틀랜드 왕립아카데미에서 석, 박사과정을 공부한 이시내는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프로그램

바흐-캠프/시칠리아노 마장조 BWV 1031

슈베르트/소나타 가단조 D.784

시마노프스키/폴란드 주제에 의한 변주곡 작품 10 등

입장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문의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볼프강 다비드 내한공연

24일 토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현재 빈 국립음대 교수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볼프강 다비드는 그동안 런던 필, 베를린 필, 빈 필 등 세계 최고 오케스트라와의 협연무대를 가져왔다.

프로그램

모차르트/소나타 제 7번

바흐/샤콘느

비에냐프스키/폴로네이즈 등

· 피아노/조현선(경성대학교 교수)

입장료 R석 50,000원 · A석 30,000원

B석 20,000원

문의 아마데우스(011-859-4316)

김해옥 피아노 독주회

26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신라대학교와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동안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피아니스트 김해옥 독주회.

김해옥은 현재 부산

부산에도 문화가 있습니다!

클래식음악애호가 바라던 클래식음반전문매장 부산에도 있습니다.

· 비바체 목요일음악감상회 -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8:00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은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 비바체클래식

해운대 선플라자 빌딩 1층(지하 2, 3, 4층 무료주차)

TEL 743-0003, FAX 743-3301, vivaceclassic.co.kr



교육대학교, 경성대학교, 동의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프로그램

브람스/피아노 작품 118

슈만/판타지 17

입장료 초대

문의 김해옥(011-859-9822)

부산예술기획 창립 20주년 기념 음악회 애창곡의 향연

27일 화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대극장



정상급 성악가들과 영남필하모니오케스트라(지휘/강재권)가 출연, 국내외 가곡 및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최영섭/그리운 금강산

베르디/오페라 '운명의 힘' 중 '신이여 평화를 주소서'

바다주제에 의한 가요메들리 등 수곡

· 출연/김혜경, 정성희, 양성희(이상 소프라노), 박호송(테너), 강재석(바리톤) 외

입장료 일반 10,000원 · 중고생 5,000원

장애인 무료

문의 부산예술기획(016-9317-4728)

장철근 바이올린 독주회

27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콘서바토리와 노보시비르스크 콘서바토리를 졸업한 바이올리니스트 장철근 독주회.

프로그램

브람스/소나타 제 1번

크라이슬러/사랑의 기쁨, 사랑의 슬픔

사라사테/서주와 타란텔라

브람스/스케르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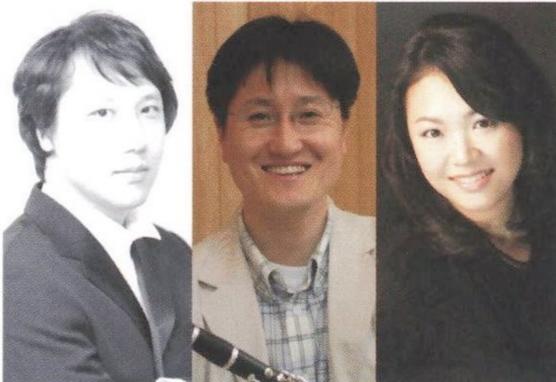
· 반주/김소형(동의대학교 교수)

입장료 초대

문의 예술기획(0505-700-9798)

금정수요음악회 부산우드윈드앙상블 기획연주 I

28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바수니스트 여대현과 클라리네티스트 원준연, 피아니스트 김성희의 아름다운 앙상블로 들려주는 부산우드윈드앙상블 기획무대.

프로그램

바흐/6개의 소나타

비발디/바순협주곡

번스타인/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글린카/클라리넷과 바순, 피아노를 위한 트리오 '비창'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박진홍(017-563-7966)

최연주 귀국 독주회

29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신라대학교와 네덜란드 아르헬 콘서바토리를 졸업한 클라리네티스트 최연주 귀국 독주회.

프로그램

슈만/환타지 작품 73

힌데미트/소나타

프랑세/주제와 변주곡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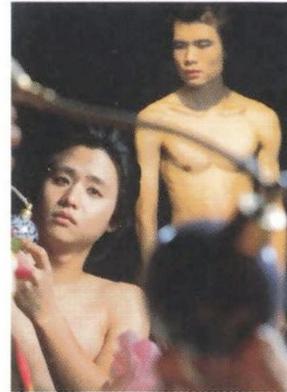
입장료 초대

문의 최연주(010-2300-2213)

연극

하녀들 for men

2월 9일(금)-3월 11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7:30 일요일 오후 6:00(월요일, 17일~19일 공연없음)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여주인과 딸을 살해한 뒤 동성애를 즐기다 발각되어 프랑스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줬던 빠뻑자매 사건을 소재로 한 장 주네 원작의 '하녀들'을, 두 주

인공을 여자가 아닌 남자들로 설정, 파격적인 변신을 시도한 작품.

· 작/장주네 · 연출/심문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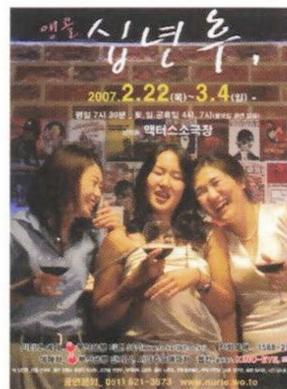
· 출연/김혜정, 고인범, 박지현, 김성훈 외

입장료 균일 30,000원

문의 부산연극제작소 동녘(751-0858)

앵콜 십년 후,

2월 22일(목)-3월 4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 공휴일 오후 4:00, 7:00(월요일 공연없음) 액터스소극장



10년만에 만난 세 명의 대학동창생들이 풀어놓는 삶의 진실을 그린 작품.

· 작/김민정

· 연출/강성우

· 출연/강봉금, 황정미, 최성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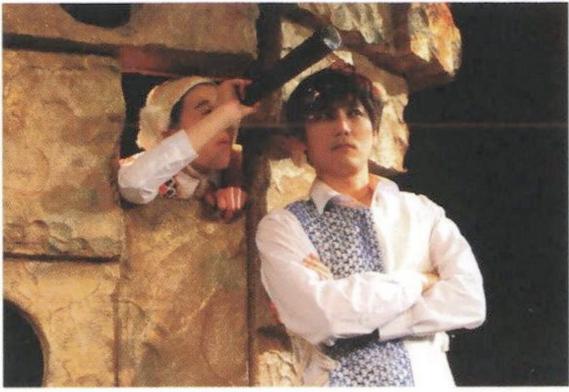
입장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문의 극단 누리예(621-3573)

유령을 기다리며

2월 23일(금)-3월 4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30, 7:30, 일 · 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가마골소극장

셰익스피어의 '햄릿' 과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를 절묘하게 결합시킨 작품으로, 극중 햄릿을 통해 21세기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초상을 위트와 풍자로 그려냈다.

· 작·연출/김재엽

· 출연/김태범, 이상혁, 백운철, 이갑선 외

입장료 일반 25,000원 · 학생 2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가마골소극장(245-0042)

여보세요!!! 누구세요???

2월 23일(금)-3월 25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6:00

SH공간소극장



서로의 정부이던 네 사람이 한 공간에 모이면서 각자의 부정을 감추기위해 눈물겨운 역할바꾸기가 전개되는 코미디극.

· 작/까몰레띠 · 각색·연출/호민

· 출연/호민, 구민주, 최수희, 양진억, 황자미

입장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주)코엔(1544-3164, 611-8518)

뮤지컬 코미디 빙고

3월 1일(목)-4월 1일(일) 화 · 목요

일 오후 8:00, 수요일 오전 11:30,

오후 8:00, 금요일 오후 8:00,

10:3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 · 공휴일 오후 4:00(월요일 공연없음)

해운드 그랜드호텔 아트홀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빙고장을 찾아나선 베테랑 빙고꾼이자 절친한 세 친구의 우정과 화해를 그린 뮤지컬 코미디.

· 연출/이종오 · 음악감독/이흥래

· 출연/이윤표, 김선영, 유채정, 위양호 외

입장료 R석 60,000원 · S석 5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시나위 공연기획단(1588-0511)

굿 나잇, 마더

1일(목)-17일(토)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4:00 열린소극장



1983년 풀리처상을 수상한 마사 노먼의 희곡 '잘자요 엄마'를 원작이 가진 깊이와 감동 그대로 무대화한 '굿나잇, 마더'.

자살을 예고한 딸을 설득시키려는 엄마의 노력은 결국 실패로 끝나고 딸은 '잘 자요 엄마'라는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총소리와 함께 죽음으로 끝을 맺는다.

· 작/마샤 노먼 · 연출/하현관

· 출연/진선미, 손남숙

입장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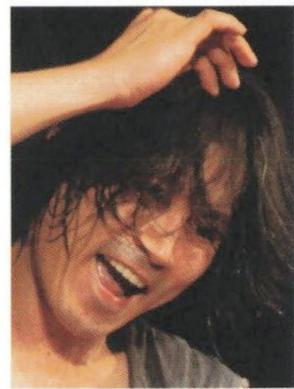
문의 열린소극장(555-5025)

권철 모노드라마 호랑이아줌마

1일(목)-31일(토) 평일 오후 6:30

주말 오후 3:00(월요일 공연없음)

미리내소극장



지난해 놀원아트홀 장기공연과 서울에서 열린 제 1회 모노드라마 페스티벌 초청공연으로 올려져 많은 호평을 받았던 권철의 '호랑이 아줌마'.

입장료 일반 20,000원 · 중고생 15,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미리내소극장(504-2544)

웃찾사- 돌아온 웃음 Family

3일 토요일 오후 4:00, 7:00

KBS 부산홀

웃찾사 전성기를 이끈 톱스타 개그맨들이 출연, 그들의 히트코너와 현재 TV를 통해



신한은행·신한카드와 함께하는
부산아쿠아리움

북극생물전

기간 : 1/5~3/18

눈앞에 펼쳐질 극지방 생태계!

살아있는 북극생물 전시

북극여우, 은상어, 바다표범, 클리오네와 함께 북극생태계를 만나보세요~

생생하게 느껴보는 북극세계!

눈내리는 바다속 북극

아기자기한 미니어처 북극마을엔 흰눈이 펑~펑 내린대요~!



부산아쿠아리움
www.busanaquarium.com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행사 및 예약 문의 : 051-740-1700

선보이고 있는 인기코너를 선보인다.

입장료 R석 55,000원 · S석 45,000원

문의 (주)개그스테이션(1544-1410)

뮤지컬 철부지들

3일(토)-25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6:00 놀원아트홀

뮤지컬 역사상 최장기간 공연이라는 기록을 가진 뮤지컬 '철부지'는 소꿉친구 마트와 루이자의 사랑과 성장을 그린 작품이다.

· 원작/톰 존슨 · 연출/최재민

· 출연/손미나, 이지훈, 구윤희, 신영재 외

입장료 일반 15,000원 · 청소년 10,000원

문의 극단 에저또(852-9161)

70분간의 연애

3월 8일(목)-4월 1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30, 7:30, 일요일 오후 3:00, 6:00 가마골소극장



15년을 만나오면서 서로 사랑의 감정을 키우지만 정작 사랑앞에서는 서툰 두 남녀의 소박한 추억과 따뜻한 연애 감정을 그린 작품.

· 작/차근호

· 연출/김동연

· 출연/하성광, 서정연, 장성익

입장료 일반 25,000원 · 학생 2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가마골소극장(245-0042)

노동뮤지컬 팔칠전

8일(목)-25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5:00(월요일 공연없음) 노동복지회관 공연장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영웅 팔칠이가 20년만에 잠에서 깨어나면서 벌어지는 현실적 혼란을 코믹하게 그려낸 뮤지컬.

· 작/박성진 · 연출/단 침리

· 출연/박현덕, 윤순심, 김선관, 김미원 외

입장료 일반 15,000원 · 학생 12,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노동문화예술단 일터(635-5370)

SEX 그 한심한 이야기

9일(금)-18일(일) 월요일 오후 6:00, 화-금요일 오후 7:30, 주말 오후 4:30, 7:00 너른소극장



두 남녀의 만남과 헤어짐을 통해 섹스를 사랑이라 착각하는 현대인들의 가벼운 사랑을 꼬집은 작품.

· 작, 연출/김준영

· 출연/김준영, 김

호민, 이은주, 이민진

입장료 균일 20,000원

문의 극단 이마주(010-7541-0808)

프랑스 오리지널 캐스트 내한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

10일(토)-21일(수)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3:00, 7:30(월요일 공연없음)시민회관 대극장



세계 투어공연을 통해 전 세계 400만 이상 관람한 프랑스 뮤지컬의 야심작으로, 프랑스 오리지널팀 제작진과 배우들이 최고의 무대를 선사한다.

· 안무 연출/레다

· 출연/다미앙 사르그, 조이 에스펠, 씨릴 니 폴라이, 존 아이젠, 윌리엄 생발 외

입장료 R석 150,000원 · S석 120,000원

A석 80,000원 · B석 60,000원

C석 4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요요기획(622-5744)

라이어 3탄 튀어!!

17일(토)-25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4:00, 7:00(21일 공연없음) 동아대학교 석당홀



우연히 야쿠자의 백억 4천만원이 든 가방을 바꿔들게 된 평범한 남자의 실재 없이 꼬여가는 기상천외한 상황과 극적인 반전이 펼쳐지는 코미디극.

입장료 R석 25,000원 · S석 2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가마골소극장(245-0042)

19 그리고 80

3월 29일(목)-4월 29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액터스소극장



19세 소년 헤롤드와 80세 할머니 모드의 사랑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와 삶과 죽음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작품

· 작/콜린 히긴스 · 연출/이성규

· 출연/우명희, 구미석, 박혜인, 어주선 외

입장료 일반 20,000원 · 중고생 15,000원

문의 부두연극단(611-6616)

무용

부산시립무용단 2007 찾아가는 무용

-복지관 순회공연-

2일(금), 5일(월)-8일(목), 20일(화) 부산지역 사회복지관

부산 시내 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우리 춤의 멋과 아름다움, 신명을 함께 나누는 부산시립무용단 2007 찾아가는 무용.

일정

· 2일 오후 2:00 해운대구종합사회복지관



- 5일 오전 10:40 영진종합사회복지관
- 6일 오전 11:00 전포종합사회복지관
- 7일 오후 3:00 물운대종합사회복지관
- 8일 오후 2:00 백양종합사회복지관
- 20일 오전 10:00 금곡종합사회복지관

입장료 초대

문의 부산시립무용단(607-6118)

2007 부산연극제 자유참가작 3인 3색

30일 금요일 오후 7:30, 31일 토요일 오후 4:30 시민회관 소극장

전선에 무용단과 구성심 무용단, 댄스 드라마 그룹 단춤 등이 저마다의 독특한 춤사위를 선보이는 '3인 3색'.

작품

매난국죽(梅蘭菊竹)(안무/전선애)

바람 앞에 서서(안무/구성심)

자타배(自他配)(안무/최준명)

입장료 일반 15,000원 · 청소년 10,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부산무용협회(632-5116)

영 화

글로벌아트홀에 1030 토요일 영화 보러가요

매주 토요일 오전 10:30
글로벌아트홀

국제수준의 연주, 녹음홀인 글로벌아트홀에서 대형화면과 좋은 사운드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글로벌아트홀 토요일 영화.

상영일정

- 3일 해피 피트:남극대륙의 황제 펭귄 왕국 이야기
- 10일 물랑루즈 뮤지컬
- 17일 올드 미스 다이어리
- 24일 허브

· 31일 미녀는 괴로워

입장료 균일 5,000원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씨네 뮤지컬:영화, 뮤지컬을 만나다

6일(화)-20일(화) 오전 11:30, 오후 2:00, 4:30, 7:00
시네마테크 부산



동명의 브로드웨이 인기뮤지컬을 스크린으로 옮긴 '프로듀서스'와 '렌트', 국내에서 잘 알려진 록뮤지컬 '헤드윅'의 원작, 한국 뮤지컬 영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삼거리극장' 등 최신 뮤지컬 영화 4편을 감상할 수 있다.

입장료 균일 4,000원

문의 시네마테크 부산(742-5377)

아 동 극

인형극 아기돼지 삼형제 · 애벌레의 여행

10일 토요일 오후 12:00, 2:00, 4:00, 11일 일요일 오후 1:00, 3:00
시민회관 소극장

탈인형, 장대인형, 손인형이 어우러져 재미를 더해주는 '아기돼지 삼형제'와 동화 '꽃들에게 희망을'을 서정적인 음악극으로 각색한 '애벌레의 여행' 등을 선보인다.

입장료 균일 12,000원

문의 무지개극단(02-993-9733)

마당놀이 콩쥐와 팥쥐엄마

17일-18일 토-일요일 오후 12:00, 2:00, 4:00 시민회관 소극장

배우들의 익살스런 연기와 고수들의 흥겨



운 추임새로 펼쳐지는 마당놀이극.

입장료 균일 12,000원

문의 극단 서울도깨비
(050-2134-2580)

댄스뮤지컬 피터팬

17일-18일 토-일요일 오후 12:00, 2:00, 4: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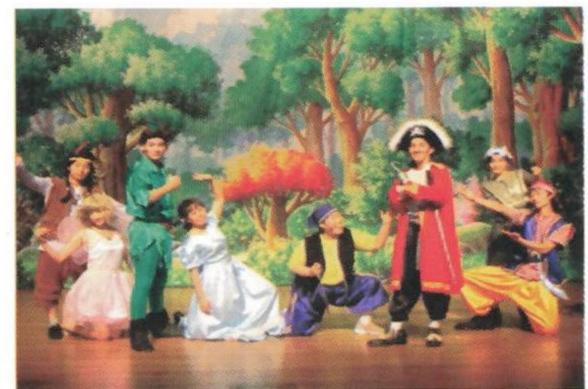
하늘을 나는 피터팬과 작은 요정 킥커벨, 상상의 나라로 떠나는 가족뮤지컬.

입장료 균일 12,000원

문의 Dubu기획(02-2654-6854)

피터팬과 요정 킥커벨

24일 토요일 오후 12:00, 2:00, 4:00, 25일 일요일 오후 1:00, 3:00
시민회관 소극장



상상의 나라 네버랜드를 그대로 재연한 화려한 무대와 다양한 장면전환, 배우들의 전곡 라이브공연으로 꾸민 가족뮤지컬.

입장료 균일 12,000원

문의 극단 해미소(02-974-5745)

야랑이와 함께하는 과학 매직 뮤지컬

24일 토요일 오후 4:00, 6:00,
25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시민회관 대극장

중력이라는 과학적 비밀을 마술로 쉽고 재
미있게 풀어내는 과학 매직 뮤지컬.

· 출연/이승환, 양현영, 이해진, 황유진 외

입장료 R석 25,000원 · S석 20,000원

문의 (주)쇼비즈엔터테인먼트(817-5612)

콘서트

나무자전거 만원의 행복-부산편

3일 토요일 오후 4:00, 8:00
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준 엔터테인먼트(1588-0376)

마커스 밀러 내한공연

6일 화요일 오후 8:00
시민회관 대극장



2001년 그래미상
최고 컨템퍼러리 재
즈 앨범을 수상한,
최고의 베이시스트
로 작곡, 편곡은 물
론 다양한 장르를 넘
나드는 마커스 밀러
내한공연

입장료 R석 77,000원 · S석 66,000원

A석 55,000원 · B석 44,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아이엔터테인먼트(1588-3005)

최대호 세 번째 음악이야기

28일 수요일 오후 7:00
시민회관 소극장

2002년 1집 'In My Memory'를 발표하
후 방송과 콘서트를 통해 꾸준히 활동해온
최대호의 세 번째 음악이야기.

입장료 균일 20,000원

문의 최대호(016-571-0505)

전시

Scott McMaster 사진초대전

2월 23일(금)-3월 11일(일)
갤러리 예가

문의 갤러리 예가(624-0933)

구속으로서의 자유

2월 23일(금)-4월 8일(일)
용두산미술전시관

· 참여작가/김박은터, 김태완, 박광택

문의 용두산미술전시관(244-8228)

경성대학교 평생교육원 한복과정 졸업작품전

한복, 그 아름다움 속으로...

2월 27일(화)-3월 4일(일)
금정문화회관 전시실



경성대학교 평생
교육원 한국복식전
승과정, 한복지도자
과정, 생활한복반과
정을 수료한 회원들
의 궁중복, 관복,
조선초기 저고리,
생활한복 등 다양한

전통복식들이 선보인다.

문의 변현실(011-586-1156)

주경업의 인물기행

부산의 끈 · 쟁이를 찾아서

2월 28일(수)-3월 3일(토)
갤러리 자미원

문의 갤러리 자미원(242-1828)

첫출발 행복올림전

3월 1일(목)-3월 17일(토)
김재선갤러리

어려운 시대적 상황에서 한국미술을 개척한
전혁림, 김종식, 오영재 3인 작가의 작품 전시.

문의 김재선갤러리(731-5437~8)

2007 부산 난 대전

3월 10일(토)-3월 11일(일)
금정체육공원 실내체육관

· 관람시간/오전 10:00~오후 4:30

입장료 무료

문의 노병조(011-867-8807)

추지영 제 5회 개인전...

3월 13일(화)-3월 18일(일)
영광도서 갤러리

문의 영광도서 갤러리(816-95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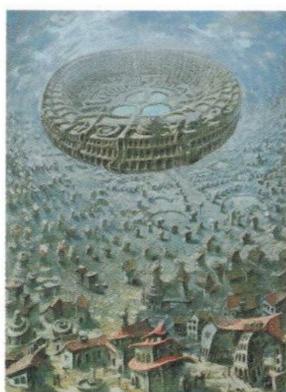
한정식 기획초대전

3월 19일(월)-4월 2일(월)
김재선갤러리

문의 김재선갤러리(731-5437~8)

슬로바키아 그림책 삽화 전시회

3월 20일(화)-3월 30일(금)
시민회관2층 전시실



주한 슬로바키아
대사관이 주최하고
갤러리 예가에서 주
관하는 슬로바키아
그림책 삽화 전시회.
유럽 슬로바키아
현대 미술 발전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어린이 그림책 삽화 작가 14명의 작품
58점이 전시된다.

문의 갤러리 예가(624-0933)

'봄' 만화로 말하다

3월 27일(화)-4월 1일(일)
영광도서 갤러리

풍자와 해학이 살아있는 부산카툰작가클럽
회원 19명의 카툰 전시.

문의 영광도서 갤러리(816-9500~4)

헤르만 헤세 탄생 130주 년 기념 특별전

3월 29일(목)-6월 3일(일)
부산박물관

· 개관시간/오전 9:30~오후 6:00

(월요일 휴관)

입장료 일반 7,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주)아모르FX엔터테인먼트
(621-4634)

Recommended Performance in March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French Music and Scheherazade'

9th(Fri) 7:30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It gives us not only French music which is represented by Debussy and Ravel but also Russian music of well-known composer, Rimsky-Korsakov. Especially this time Finghin Collins the winner of Clara

Haskil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 joins with it.

Program

C. Debussy/Prelude to the Afternoon of a Faun L.86

M. Ravel/Piano Concerto in G Major

N. Rimsky-Korsakov/Symphonic Suite 'Scheherazade' op.35

- Conduct/Alexander Anissimov
- Piano/Finghin Collins

Ticket: R 10,000Won · S 7,000Won · A 5,000Won

For More detail: 607-6101, 607-6070

Inviting Jang Saik, Jo Gwanoo, Kim Sohyeon Sound of Hope, 2007

10th(Sat) 7:30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They know songs and sound. They know how to sing a song. They are singers beyond singers. Whichever music genres, there are no problem to them. They present us with familiar songs and repertoires.

- Song/Jang Saik, Jo Gwanoo, Kim Sohyeon
- Con/Choi Sunyong(Chief Conductor of Seoul Art Orchestra)
- Orchestra/Busan symphony Orchestra
- Special guest/ Ensemble of men in Busan dentists

Ticket: R 55,000Won · S 44,000Won · A 33,000Won · B 22,000Won

For More detail: 1544 -3439, 242-5231

Original Cast in France Visiting Busan Romeo & Juliette

10th(Sat)-21th(Wed) weekdays 8:00p.m, weekends 3:00, 7:30p.m Busan Citizen Hall Main Theater



French musical has unique attraction different with Broadway in USA and Westend in England. It has been known for sensuous description and fantastic stages. Romeo & Juliette is said to be one of the best 3 musical in France.

They are already likely to have proved their power through world tour which is visited over 4 million audiences. This is exciting chance to appreciate their performance and they won't disappoint you.

- Music/Gerard Presgurvic
- Dance direct/Redha
- Play/Damien Sargue, Joy Esther, Cyril Niccolai, John Eyzen etc.

Ticket: R 150,000Won · S 120,000Won · A 80,000Won

B 60,000Won · C 40,000Won

For More detail: 622-5744

Well-being Concert with Busan Citizens '11 am Lipstick Concert with Park Hosung and Sim Subong'

16th(Fri) 11:00a.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Do you remember 'Let's meet with Nanse Gum at 11 am' concert? This is the second brunch concert for wives and well-being. You have to only prepare your mind ready to listen to music.

- Conduct/Park Hoseong
- Song/Sim Subong
- Dance/Choi Uiok, Ahn Juhee
- Haegum/Bang Byeongwon
- Traditional song/Park Seonghee, Jung Seonhee

Ticket: All Seat 15,000Won

For More detail: 607-6110, 607-6070

Dancecal 'Love, and dance'

17-18 Sat. 3:00, 7:00 p.m. Sun. 2:00, 6:00 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They adopt new genre so called dancecal; dance plus musical. It is a nonverbal performance but has interesting story and exquisite plot. Already it is appreciated of its value by many critics

and audiences.

Ticket: 1st floor 40,000Won · 2nd floor 30,000Won

For More detail: KNN(1577-7600, www.knn.co.kr)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with Rising Star Cellist, Marie Hallynck

30th(Fri) 7:30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Marie Hallynck is a promising young cellist. Hallynck is a winner of Juventus which is given to the best hopeful player in whole Europe. Hallynck present us special moment with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Program

R. Shchedrin/Concerto No.1 for Orchestra 'Naughty Limeric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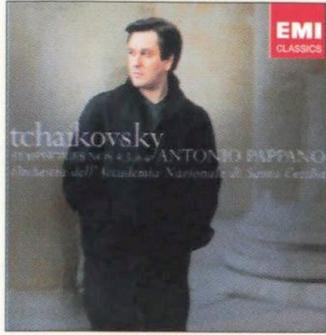
E. Elgar/Cello Concerto in e minor op.85

G. Bizet-R. Shchedrin/ 'Carmen Suite' for Strings and Percussion

- Conduct/Alexander Anissimov
- Cello/Marie Hallynck

Ticket: R 10,000Won · S 7,000Won · A 5,000W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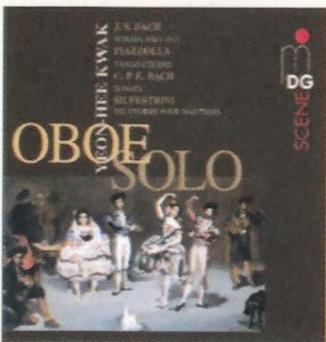
For More detail: 607-6101, 607-6070



**유려한 선율과 감각적 리듬으로 펼치는
안토니오 파파노,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 오케스트라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4, 5 & 6 <비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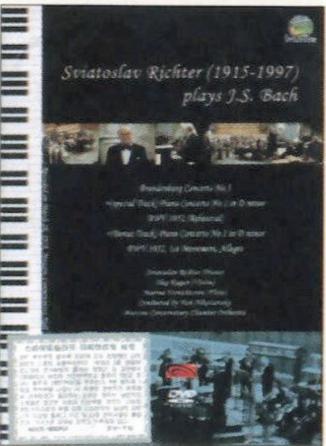
이탈리아 최고의 교향악단 산타체칠리아음악원 오케스트라의 수장을 맡은 안토니오 파파노가 펼치는 차이코프스키 후기 걸작 교향곡으로 현란하고 격정적인 4번, 아름답고 비극적이거나 승리에 찬 5번, 비탄과 번민이 잠재한 불멸의 명곡 6번 <비창>까지 가장 널리 사랑받는 차이코프스키의 유명 교향곡으로만 담겨져 있으며 시원스러운 팡파레와 현의 황홀감으로 듣는 이를 압도하는 명연과 현장감 넘치는 넓은 다이내믹의 실황 녹음이 또한 압권을 이루는 연주이다.

이들이 지난 11월 발표한 차이코프스키 <서곡집>이 '균형이 잘 맞는 음질과 풍성하고 잘 익은 탁월한 금관으로 이 신보는 최상의 그룹에 속한다'라는 평과 함께 2007년 2월호 그라모폰 에디터스 초이스에 선정되었다.



**Oboe Solo(오보에 솔로/JS 바흐, 실베스트리니, CPE 바흐, 피아졸라)
곽연희(오보에)**

오보에의 관능적인 비음의 매력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음반이다. 단 한대의 오보에만으로도 이토록 흥미진진한 음반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바흐 부자가 플루트 솔로를 위해 완성한 작품들이 오보에의 독특한 음색을 통해 새로운 느낌으로 재창조되었으며, 오보에 솔로를 위한 피아졸라의 탱고-에튀드와 오보에주자 출신의 작곡가 실베스트리니의 여섯 개의 에튀드 역시 단순한 연습곡 이상의 음악적 감동을 안겨준다. 연주자 곽연희는 한양대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뮌헨 방송 교향악단에 재직 중인 재원이다. 오보에 연주자들의 필청 음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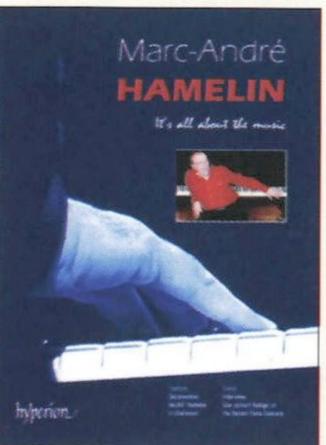
바흐 ·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5번 전곡, 피아노 협주곡 1번 D단조 1악장 + 리허설

스비아토슬라프 리히테르(피아노), 올레그 카간(바이올린), 마리나 보로츠소바(플루트)

*유리 니콜라에프스키(지휘), 모스크바 콘서바토리 체임버 오케스트라

*1978년 3월 28일 모스크바 콘서바토리 홀 실황 (컬러)

생애 후반부로 갈수록 바흐에 깊이 침잠했던 스비아토슬라프 리히테르의 소중한 실황녹음이다. 1978년 3월 28일에 모스크바 콘서바토리 홀에서 있었던 이 공연에서 리히테르는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5번과 피아노 협주곡 1번(1악장)을 연주한다. 협주곡 5번 1악장 후반부에 나오는 저 유명한 건반악기 독주에서 리히테르가 들려주는 강렬한 연주는 낭만적인 스케일로 접근한 바흐의 진면목일 것이다. 다비트 오이스트라흐에 뒤를 이어 리히테르의 실내악 파트너가 되었던 올레그 카간 등 다른 연주자들도 충실하며, 보너스로 리허설 장면도 수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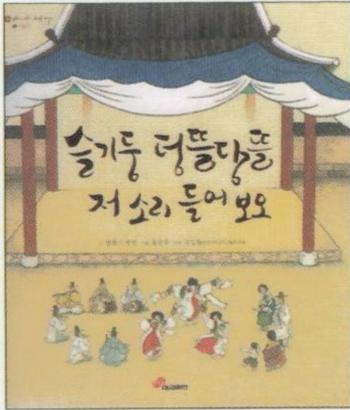
마크-앙드레 아믈랭 - 음악의 모든 것

마크-앙드레 아믈랭(피아노, 나레이션), 라티 심포니 오케스트라 (지휘. 오스모 벤스케)

철저한 기획력과 편집구성으로 애호가들을 흥분하게 만들 하이퍼리온의 첫 영상물은 아믈랭으로 발탁되었다. 신들린 듯한 왼손 테크닉의 미스 터치까지 잡아낼 수 있을 정도의 깨끗한 화질, 그리고 총 30곡이 수록된 충실한 내용으로 아믈랭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 이 영상물은 모두 3개의 테마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큐멘터리식의 아믈랭 인터뷰와 함께 그의 음악세계를 속속들이 알 수 있는 Part.1(14곡 수록), 캐나다 퀘벡에서의 리사이틀 영상을 담은 Part.2(14곡 수록), 마지막 Part.3는 스페셜 피쳐로 저명한 비평가들의 이야기와 오스모 벤스케 지휘의 부조니 피아노 협주곡 'All Italiana'의 웅장한 공연 실황을 보너스로 담았다. 그 어렵다는 부조니 협주곡을 간드러지게 연주해 내는 아믈랭의 재능이 놀랍다. 총 2시간에 걸친 이 영상물을 다 보고난 후에는 이미 아믈랭과 여러분은 친구가 되어 있을 것이다.

슬기둥 덩뜰당뜰 저소리 들어보오

연필시동인 지음 / 대교출판 / 269p / 15,000원



피아노를 칠 줄 안다는 것만으로도 부러움을 사던 시절이 있었지만, 요즘은 웬만하면 피아노 학원을 기본으로 다니는 아이들이 많다. 서양음악은 이렇게 우리 생활 깊숙이 스며들어있다. 그에 비해 우리 전통음악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다. 아이들에게 우리 음악의 세계를 재미있게 알려줄 책이 나왔다. '우리 음악은 어떤 악기로 어떤 가락을 연주하는 걸까' 하는 궁금증을 설명글과 동시, 그림, 사진 등으로 다양하게 풀어준다. 우리 악기는 두드려서 소리 내는 타악기, 줄을 채로 켜거나 손으로 통겨서 소리를 내는 현악기, 입으로 부는 관악기로 나누어진다. 서양 관현악이나 실내악처럼 우리 나라에도 여러 가지 악기편성법이 있다. 나라에서 제사를 지낼 때 연주되는 '제례악', 행진할 때 연주된 '대취타', 외국의 실내악처럼 작은 규모의 '세악', 해외에서도 유명한 '사물놀이', 무용 반주 음악인 '삼현육각' 등 다양한 음악이 있는 것이다. 이 책에는 우리 악기의 모든 것과 음악을 쉽게 소개한다. 지금까지 잘 몰랐던 우리 악기를 살펴보고, 악기들이 어떻게 편성되어 연주되고 있는지도 살펴보자. 부모님들이 자녀와 함께 책을 보면서 우리 음악의 다양성을 알려주는 것도 좋겠다.

한국영화는 이렇게 만든다 1 (17명의 현장 파워 인터뷰)

박지훈 지음 / 커뮤니케이션북스 / 268p / 15,000원



영화는 종합예술이다. 어느 한 분야가 뛰어나다고 해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화를 구성하는 다양한 분야의 모든 실력과 수준이 걸맞게 어우러질 때 좋은 영화가 탄생될 수 있다. 1954년 영국의 작가 톨킨(John Ronald Reuel Tolkien)이 출간한 장편소설 <반지의 제왕>은 전 세계의 독자들을 매료시켰고, 한편으로 내로라하는 영화감독이 이 원작에 눈독을 들였다. 그리고 그 영화감독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다. 이 환상적인 작품을 영화로 만들어내는 수준의 기술에 도달할 때 까지. 그리고 2001년 피터 잭슨 감독에 의해 그 1부가 상영되었던 것이다. 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그렇게 종합적인 예술분야의 기술이 총체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영화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많다. 현장에서 처음 일을 시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학교나 단체에서 익힌 영화 지식과 기술이 어떤 경우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거나 맞지 않는 것이어서 당혹스러웠던 적이 있을 것이다. 이 책은 현재 충무로에서 확고한 위치에 오른 전문가 17명의 인터뷰를 통해 각 분야의 역할과 전 노하우를 담았다. 또한 영화 상식의 폭을 넓히고자 각각의 영역과 관련된 이론과 기술을 담았다.

백남준 추모문집 -TV 부처 白南準

이경희 외 지음 / 삶과꿈 / 211p / 30,000원



'비디오 아트 아버지' 백남준의 삶과 예술을 회고해볼 수 있는 추모문집이 나왔다. 그는 일본 도쿄대학의 미학·사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뮌헨의 루드비히 막시밀리안 대학에서 음악사를, 프라이부르크 음악학교에서 작곡을 공부했다.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미술 집단인 플럭서스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1959년 첫 퍼포먼스 <존 케이지에게의 경의>를 공연한 후 비디오 예술의 창시자로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후 미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며 세계적인 예술가로 인정받았고, 1993년 베니스비엔날레 황금사자상을, 1996년 호암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996년 뇌졸중으로 쓰러져 몸의 왼쪽 신경이 마비되었다. 이런 상황에도 그는 국내외에서 다양한 전시를 하며 2006년 1월 29일 숨을 거둘 때까지 예술가로 살았다. 이 책은 백남준과 더불어 마음과 예술을 공유하고 나누었던 사람들이 그를 추모하는 글을 담았다. 평론가를 포함한 문화예술인, 학계, 언론인, 그리고 친지와 외국의 친구들까지 연락이 닿는 이들은 모두 참여했다. <백남준을 기리는 모임>의 이경희 공동대표는 "백남준이 없었다면 이런 재미있는 글들을 읽을 수 있겠는가" 하고 말한다.

■ 박현주/동보서적 <책소식> 편집장

예술단 공연 관람과 의료, 여행 서비스 함께 누리는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인기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정기회원 단체가입
예술단, 정기회원 및 가족 건강검진 등 할인 협약-
-(주)레임,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협찬 협약-



2월 13일 부산문화회관과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이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주)레임이 2007년 3월부터 진행되는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테마여행협찬사로 부산문화회관과 협약을 맺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제도가 예술단 공연 관람 외 의료, 여행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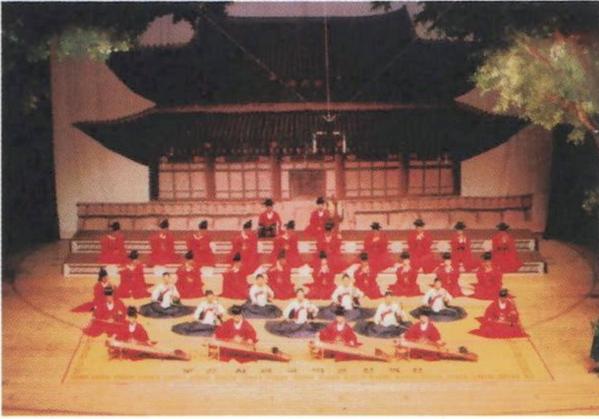
지난 1월 24일 여행사 (주)레임(대표 전동국)과의 협약으로 2007년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테마여행 진행을 확정하는데 이어 2월 13일에는 고신대학교 복음병원(병원장 이충한)과 협약을 맺어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은 지역문화 예술의 진흥과 병원 내 교직원, 환자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병원장 등 직원 200명이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 단체 가입했다.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은 정기회원 카드로 병원내 직원들의 공연관람 분위기를 조성하고 퇴원환자들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부산문화회관은 앞으로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 등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서 공연을 펼치고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의 지속적인 관람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은 병원 내에 부산문화회관을 위한 전용 창구를 개설하여 부산문화회관 직원은 물론 예술단 단원, 정기회원, 정기회원 가족들이 건강검진, 진료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2007 까오슝 등축제 참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3월 3일 막이 오르는 2007 까오슝 등축제에서 문화도시 부산을 홍보하는 문화사절단으로 참가한다.

까오슝 등축제는 부산시 최초의 자매도시인 까오슝시가 개최하는 대만의 대표적인 축제로 정월보름날 등불을 들고 귀신을 찾는 풍습이 현재의 등불축제로 발전되었다. 올해는 3월 3일부터 18일까지 대만 까오슝 애하(愛河)강변 일원에서 다양한 문화행사와 화려한 등장식, 퍼레이드 등이

펼쳐진다. 3월 2일 4박 5일의 일정으로 출발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가야금중주 민요메들리(아리랑, 밀양아리랑), 함녕지곡, 흥겨운 민요로 까오슝에서 우리 음악을 알린다.

부산시립무용단 2007 찾아가는 무용 -복지관 순회공연-



부산시립무용단이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복지 활동을 펴고 있는 시내 각 종합 사회복지관을 방문, 우리 춤의 멋과 아름다움, 신명을 함께 나누는 2007 찾아가는 무용 공연을 갖는다.

2월 27일 영도구 종합사회복지관을 시작으로 해운대구종합사회복지관(3월 2일), 영진종합사회복지관(5일), 전포종합사회복지관(6일),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7일), 백양종합사회복지관(8일), 금곡종합사회복지관

(20일)을 방문해 산조춤, 입춤, 소고춤, 사랑가, 성주허튼춤, 부포춤, 동래야류, 태평무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춤을 선보인다.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웰빙콘서트

첫무대 '금난새와 11시에 만나요' 대성황



지난 2월 8일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일보사가 2007년 의욕적으로 시작한 웰빙콘서트 그 첫 무대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겨울비가 내리는 중에도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연주하는 웰빙콘서트를 위해 1,300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웰빙콘서트에 대한 기대와 가능성을 실감할 수 있었다. 지휘자 금난새는 그의 명성에 맞는 친근하고 재미있는 해설로 웰빙콘서트를 찾은 주부, 학생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

2007년 한해동안 총 8회의 공연이 펼쳐지는 웰빙콘서트 두 번째 무대는 3월 16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박호성과 심수봉이 만나는 11시 립스틱 콘서트'가 열린다.

●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가로문제

- 유학에서 사람이 지켜야 할 다섯 가지 도리.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을 이른다.
- 에스키모의 집. 얼음과 눈덩이로 둥글게 만든다.
- 잃어버린 유리구두 한 짝이 인연이 되어 왕자와 결혼하게 된다는 내용의 동화. 하루 아침에 고귀한 신분이 되거나 유명하게 된 여자를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 컴퓨터 네트워크를 활용한 재택 근무가 이루어지는 소규모 사업장을 일컫는 말.
- 토정 이지함이 지었다고 하는 일종의 도참서. '주역'의 음양설에 기초하여 일년의 길흉화복을 점치는 데에 쓴다.
- 신혼여행지로 유명한 인도네시아의 아름다운 섬.
- 주 영양소가 아니면서 정상적인 발육과 영양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유기 화합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부족하면 특유의 결핍 증상이 나타난다.
- 진흙이나 사기 또는 쇠붙이로 만든 관악기의 하나. 이탈리아어로 '작은 거위'.
- 뱃사람들이 멀치잡이를 할 때 부르는 흥겨운 앞소리를 소재삼아 지은 시인 고은의 시에 곡을 부친 양희은의 노래. 산과 바다에 우리가 살고...
- 영화에서, 다른 작가나 감독의 업적과 재능에 대한 경의를 담아서 특정 장면이

나 대사를 모방하는 일.

- 음력 정월 보름에 경상남도 일대에서 하는 가면극의 하나. 고성, 통영, 가산, 진주 등지에서 전승되어 왔다.
- 그리스 자모의 16번째 글자로, 수학에서 원주율을 나타내는 기호로 쓰인다.
- 이상향. 공산주의 경제체제와 민주주의 정치체제, 교육과 종교의 자유가 완벽하게 갖춰진 가상의 이상국가를 그린 영국 작가 모어의 공상사회소설.
- 두 사람이 이해관계로 서로 싸우는 사이에 엉뚱한 사람이 애쓰지 않고 가로챈 이익을 이르는 말.
- 화학자 노벨의 유언에 따라 인류 복지에 공헌한 사람이나 단체에 주는 상.

세로문제

- 음력 정월 대보름날, 마을 사람들이 농악대를 앞세우고 집집마다 돌며 땅을 다스리는 신령을 달래어 연중 무사를 비는 민속놀이의 하나.
- 성경의 장면을 음악과 함께 연출한 교회극에서 발달하여 오페라의 요소를 가미한 종교음악. 헨델의 '메시아', 하이든의 '천지창조', '사계' 등.
- 2006 국제미술연합회 미술대전에서 1위 입상한 신세대 미술사.
- 인위적인 문명사회의 타락을 비판하고 자연으로 돌아갈 것을 역설한 프랑스의 사상가. 저서로 '인간 불평등 기원론', '사회 계약론', '에밀' 등이 있다.
- 베트남의 독립 운동을 이끌던 중 1945년 베트남 민주공화국 성립과 더불어 대통령에 취임하여 북베트남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기초를 마련했던 베트남의 혁명가.
- 걸립패가 마지막으로 행하는 마당굿에서 곡식과 돈을 상 위에 받아 놓고 외는 고사 문서.
- 무굴제국 황제 샤 자한이 사랑했던 여인 뭉타즈 마할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하여 세운 궁전형식의 묘묘(墓廟). 인도, 페르시아 양식의 대표적 건물.
- 오페라 '파우스트', '로미오와 줄리엣', 가곡 '아베마리아', '세레나데' 등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작곡가.
- 저명인이 극중 예기치 않은 순간에 등장하여 아주 짧은 동안만 하는 연기나 역할.
- '로미오와 줄리엣', '베니스의 상인', '햄릿' 등을 남긴 영국의 극작가.
- 20세기 초 프랑스에서 일어난 회화의 한 유파. 강렬한 순수 색채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며 마티스, 루오, 브라크 등이 대표적 작가이다.
- 고구려의 전성시대를 이룩한 고구려 제 19대 왕.
- 대표적인 건반악기.
- 동베를린공작단사건에 연루된 후 1971년 독일에 귀화한 세계적인 작곡가로 1972년 뮌헨올림픽 개막축하 오페라 '심청'을 비롯 옥중에서 작곡한 '나비의 꿈', 광주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광주여 영원하라' 등 150여 편의 작품을 남겼다.

지나호 정답

웰	빙	콘	서	트	몰	리	에	르
	점		라		유		세	
		왕	벌	의	비	행	이	
가	과							갤
부	에	나	비	스	타	소	셜	클럽
키		르	짜				라	
			투			아	리	아
태	견	오	름		문	넷		
평		즈		장			세	
무	서	리		입	춘	대	길	배

- 산마루골터(구.돈방불패) ■ 가미골 소극장 초대권
김대운(서구 서대신동 1가) 임나리(동래구 사직2동)
김재은(동래구 온천3동) 안미애(부산진구 개금3동)
이숙희(사하구 하단2동) 이제희(동구 범일6동)
정기모(기장군 대라리) 백영경(사상구 덕포2동)
이예지(금정구 구서2동) 양예지(연제구 거제2동)
- 큰집 식사권 ■ 동보서적 도서상품권
강창수(부산진구 범천2동) 박성률(금정구 부곡1동)
이경화(북구 덕천 3동) 성은영(동래구 칠산동)
이명희(금정구 금사동) 김병수(남구 감만1동)
김경자(연제구 거제3동) 정규나(금정구 장전2동)
정은경(동래구 온천1동) 정효목(부산진구 양정2동)

그리움이 있는곳에 늘 고향이 있습니다

한국 전통음식점

큰 집

예약. 051-245-3320
업무. 051-255-4547

◆ 예약시 담당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 더욱 성심껏 모시겠습니다.

산마루 골터

- 찜갈비
- 삼계탕, 들솥비빔밥
- 30초 완성 참숯판구이 삼겹

UN로타리 문화회관 영빈관 앞 예약문의 : 611-4040

날마다 연극축제가 열리는 곳
부산에는 가미골소극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연극의 산실

가미골소극장

(051) 245-0042 www.kamagol.co.kr

부산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동보서적 1층 안내에서
각종 공연 티켓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동보서적

• 도서안내 : 803-8000 • 단체납품 : 804-6391
• www.dongbobooks.com

■ 보내실 곳/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상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3월 15일까지 보내주시시오.)

금난새와 11시에 만나요

금난새 씨의 자상한 설명에 클래식이 내 몸 가까이 다가옴을 느낄 수 있었다. 학교 다닐 때 음악 선생님께서 금난새 씨처럼 그렇게 자상하게 음악 이야기를 해 주셨다면, 난 전공을 '음악' 쪽으로 택하지는 않았을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음악 시간을 수학 특강과 바꾸었으니, 변변한 가곡 하나도 제대로 못 배웠던 서글픈 내 고등학교 시절이여~! -손은경

금난새와 11시에 만나요

틀을 깨 오전 11시 공연과 맛있는 다과茶菓가 좋았고, 주최자 금난새의 유쾌한 설명에 즐거웠고, 부산시향 단원들의 열정적인 연주가 멋졌고, 기다리던 겨울 단비와 비와 이랑곳 없이 꽉찬 관객들과 함께 공유하여 행복했던 다시 또 만나고 싶은 멋진 연주회. -이영일

70분간의 연애...15년의 기다림

사랑은 타이밍이다!!!

3,000개의 촛불이 밝혀지면 사랑이 이루어진다^^

나이 한살 더먹고 빨리 결혼하라고 구박받는 이 시점에서

나에게 올해가 가기전에 꼭 연애를 해야겠다는 굳은 다짐을 준 공연!

잘 되어될텐데... ㅠㅠ - 도오옹이

새로운 시설과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겠습니다



레스토랑
모짜르트

TEL. 051-622-1456
부산문화회관 영빈관 맞은편 1층
리셉션·생일잔치·각종모임 예약 받습니다.

방 법 bsculture@naver.com으로 공연후기 '100자 토크'와 'Q&A' 질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100자 토크'와 'Q&A' 질문과 답변은 예술에의 초대 지면을 통해 소개합니다. '100자 토크' 공연후기를 보내주신 분중 3명을 선정하여 모짜르트 2인 식사권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문 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7~8)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과 함께 한 2월 테마여행 밀양 표충사와 평리 팜스테이 마을



겨울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날 아침,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들은 또 새로운 여행길에 올랐다. 2월 테마 여행지는 천년고찰 밀양 표충사와 평리 팜스테이 마을.

부산문화회관을 출발하면서도 빗줄기가 그치지 않아 출발하면서 걱정이 앞섰다. 테마 여행에 당첨되었다는 행복한 마음으로 출발 일을 손꼽아 기다린 참가자들은 모두 44명. 정기회원과 회원 가족들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소리꾼 박성희, 피리 주자 정주아와 우리들만의 특별한 여행길에 올랐다.



한 시간 남짓 달렸을까. 다행히 밀양에는 비가 그친 뒤라 표충사에 도착해 우리는 운무로 뒤덮인 황홀한 산사의 아침을 만날 수 있었다. 산중턱에 걸린 안개, 소나무와 어우러진 산사의 아침은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과 같았다. 이번 여행에서는 처음으로 프랑스인 Françoise Espinosa가 테마 여행에 동행하여 회원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우리 전통 문화를 배우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여유롭게 표충사에서 시간을 보낸 회원들은 10분 거리에 있는 단장면 평리 팜스테이 마을로 향했다.

마을 전체가 대추나무로 가득한 밀양시 단장면 평리마을(www.pyungri.com)은 자연생태체험과 농촌음식체험, 민속공예체험, 농사체험 등을 모두 한곳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산, 울산, 창원, 대구와 멀리 서울에서도 사람

들이 몰려드는 곳이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동네 정자에 모여 테마 여행의 하이라이트인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과의 만남이 이어졌다. 단가 사철가로 시작된 박성희씨의 소리는 공연장에서 느낄 수
없는 우리 소리의 깊은 맛을 느끼게 했다. 물 맑고 공기 좋은 농촌에서 듣는 우리 소리가
메아리로 돌아 평리 마을에 울려 퍼졌다. 사철가에 눈물짓는 회원, 밀양아리랑에 어깨춤을
추는회원이 있어 연주내내 우리의 흥과 멋을 함께 느낄 수 있었다. 이어진 정주아씨의 칠갑
산 연주까지 박수가 끊이지 않았다.

공연 이후 짬뽕 공예와 연날리기, 대추 찰떡치기로 하루 일정을 마무리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짬뽕 오랜만에 만져보는 어르신들에게는 향수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 복을 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던지 짬뽕으로 복조리를 만드는 내내 강사를 바쁘게 찾는 회원들이 있
는가 하면 손재주 좋은 회원들은 어느새 2개씩 만들며 한해의 더 큰 복을 기원하기도 했다.

복조리를 만든 후 단장의 특산물인 대추를 넣어 찐 찰밥을 힘차게 내려치며 찰떡치기를
했다. 함께 나누는 즐거움 때문인지 금방 만든 찰떡은 온데간데없이 동이 났을 정도로 인기
가 많았다. 아름다운 선경과 가슴을 울리는 우리 소리, 대추 찰떡과 대추차로 눈과 귀, 입이
즐거웠던 2월의 테마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회원들의 마음은 어느새 알알이 영근 평
리의 가을 대추처럼 풍요로워졌다.

■ 테마여행 응모방법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습니다.

〈예술에의 초대〉에 있는 응모엽서를 작성하여 3월 15일까지 보내주십시오.
10명을 추첨, 1인 2명에게 여행상품권을 드립니다.

※ 한달동안 신규가입한 회원 중에서도 10명을 추첨, 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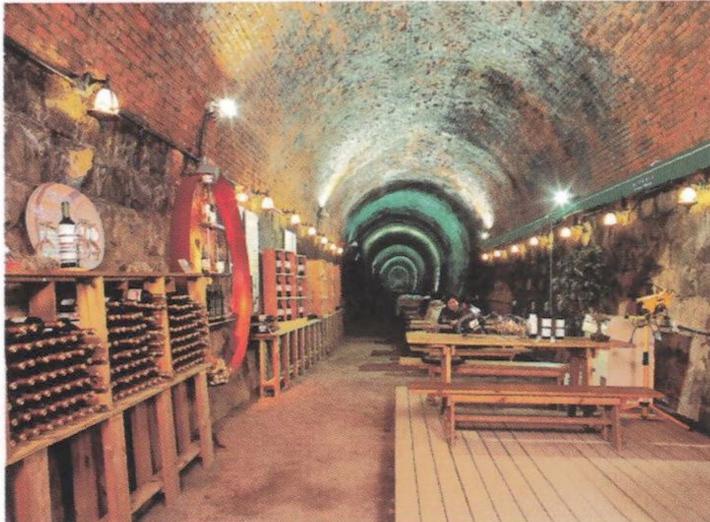
■ 발 포 : 3월 25일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ulture.busan.kr), 〈예술의 초대〉지면

■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주)레임 투어편(1544-2579)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정기회원 여러분들에게 자연과 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품격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 4월 13일 금요일 청도 명물 감과 함께하는 체험여행

한국 전통 감물 염색 체험과 옛 터널에서 감와인의 향을 느낄 수 있는 테마여행

- 08:30 부산문화회관 출발
- 10:00 청도 꼭두서니 감물염색체험장 도착
- 12:00 점심식사
- 13:00 와인터널 도착 감와인 시음
- 15:30 청도출발
- 17:00 부산문화회관 도착예정



▶ 5월 11일 금요일 완연한 봄기운과 함께 떠나는 자연여행

국내 최대의 자연늪지인 우포늪과 그룩꿈는집의 도자기 공예체험

- 08:30 부산문화회관 출발
- 10:00 우포늪 생태 탐방
- 12:00 점심식사
- 13:00 그룩꿈는집 도자기 공예체험
- 15:30 창녕출발
- 17:00 부산문화회관 도착예정

※ 이 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테마여행 체험비는 참가자 부담입니다.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3월 당첨자

▶ 3월 9일 (금)

울산 고래박물관과 외고산 용기마을



■ 신규가입 당첨자 명단(10명)

최찬조(금정구 구서2동)
문숙자(금정구 구서2동)
류혜민(금정구 장전2동)
조봉숙(해운대구 좌동)
김지원(부산진구 개금3동)
오정희(중구 중앙동3가)
정대훈(부산진구 개금2동)
김선자(동래구 온천2동)
이용일(해운대구 재송동)
제창민(금정구 구서2동)

■ 기존가입 당첨자(엽서) 명단(10명)

유이화(사하구 괴정1동)
박창선(남구 용호4동)
곽미영(남구 대연5동)
서순천(사하구 괴정1동)
이영일(남구 대연3동)
이준엽(남구 감만1동)
이숙희(사하구 하단2동)
정복임(수영구 남천2동)
문성완(금정구 장전3동)
이수민(금정구 장전동)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극단 제28회 정기공연

L'Avare 수전노

Moliere

원작 몰리에르

연출 손기룡
(부산시립극단 수석연출)



2007. 3. 15 (목) ~ 17 (토)

평일 19:30 토요일 16: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권

일반 R석 15,000원

S석 10,000원

청소년 5,000원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문화회관
BUSAN CULTURAL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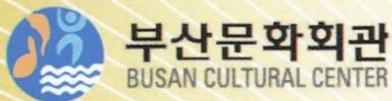
예매처 부산은행 전지점

인터넷예매 : 티켓365 www.ticket365.co.kr

문의: 부산시립예술단홍보부 051) 607-6070
www.bsculture.busan.kr

부산시립극단 051) 607-6136~8
www.busantheater.org

남 구 면학도서
사하구 향학서점
진 구 영광도서, 동보서적
중 구 남포문구
북 구 대한도서



부산문화회관 테마여행 협찬사 **투어편 Tour Fun**

따스한 봄날 가족과 함께 떠나는 여행이야기



제주도 여행

**크루즈타고 떠나는
제주 해수온천여행 3일**
포함내용 **99,000원**

크루즈왕복, 해수온천욕, 선상뷔페, 한라산 750고지, 화락원, 기예단쇼, 오토바이쇼 등

**알뜰살뜰 제주일주
편투어 3일**
포함내용 **195,000원**

왕복항공, 승마체험, 성읍민속마을, 미니월드, 중국기예단쇼, 일출랜드, 섬지코지 등

**제주푸른밤 펜션
자유여행 3일**
포함내용 **259,000원**

왕복항공, 펜션2박 (2조식), 할인쿠폰북, 렌트카 54시간 (NF소나타 기준)



해외 여행

**북큐슈 관광온천 4일
(뉴 카멜리아)**
포함내용 **289,000원**

유후인마을, 벳부 (온천욕, 가마도지옥 등) 아소활화산, 원숭이쇼, 쿠마모토성, 천만궁

북경 만리장성 3박4일
포함내용 **369,000원**

만리장성, 명13릉, 천안문, 자금성, 이화원, 왕부정거리, 천단공원, 발맞사지, 북경서커스 특식 (오리구이, 샤브샤브, 한식)

방콕 / 파타야 3박5일
포함내용 **589,000원**

왕복항공, 공항세, 왕궁투어, 산호섬투어, 미니시암, 코끼리쇼, 민속쇼, 파인애플농장, 악어농장, 알랑칸쇼, 특식 (수끼, 씨푸드, 로얄드레곤)

따스한 봄날 가족과 함께 떠나는 자유여행

후쿠오카 프리스타일 3일
추천일정 **169,000원**

하우스텐보스 - 텐진 변화가 쇼핑 - 캐널시티 - 나카스 (야타이포장마차) - 100엔 샵 - 전자상가

베이징 프리스타일 4일
추천일정 **299,000원**

천안문 - 자금성 - 천단공원 - 북경서커스 - 오리구이 - 만리장성 - 이화원 - 용경협 - 짬뽕시장 - 북한식당

홍콩 프리스타일 4일
추천일정 **465,000원**

침사추이 - 몽콕야시장 - 빅토리아 피크 야경관광 - 점보레스토랑 - 리펠스베이 - 명품쇼핑 - 마카오관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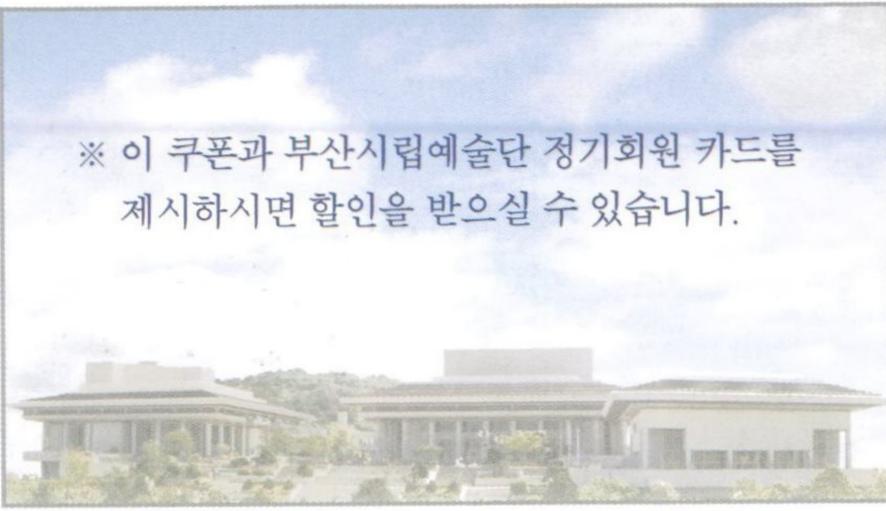
www.tourfu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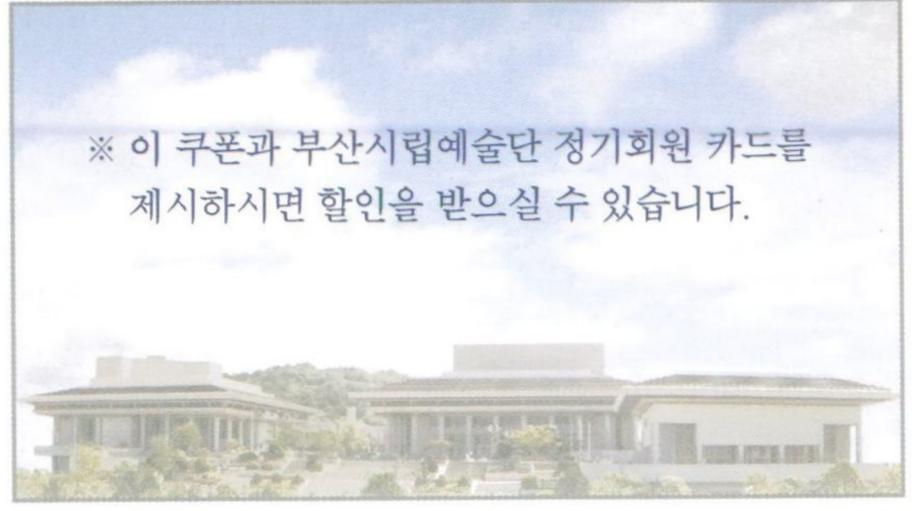
부산본점) 부산광역시 중구 대창동 1가 24 독일빌딩 2층 (주)레임
서울점)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31 두산위브센터움 930호 (주)레임
마산점) 경상남도 마산시 합성1동 157-1 선메디컬센터 1층 (주)레임
울산점)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2동 619-5 소바안경점 3층 (주)레임

대표전화 (국번없이)
1544-2579
(투 어 친 구)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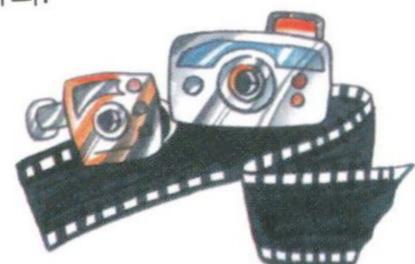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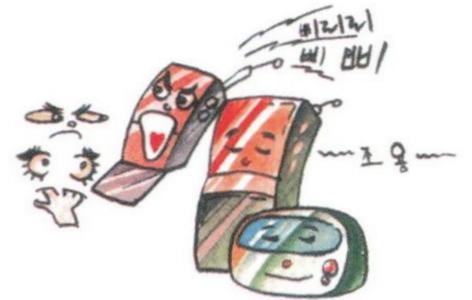


시민의 문화수준은 공연장 관람 질서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공연장 신사, 숙녀

- ◇ 입장시에는 반드시 본인이 좌석번호를 확인하여 앉습니다.
- ◇ 공연 중에 지정좌석을 찾으실 때는 뒤에서 기다리거나 빈 좌석에 앉아 있다가 한 곡이 끝나면 조용히 자리를 찾습니다.
- ◇ 공연장내에서는 발소리, 기침소리, 부스럭대는 소리, 수근거리는 소리까지도 옆사람에게 방해가 되니 조심합니다.
- ◇ 공연장내에서는 신발을 벗거나 무릎 위에 발을 올리지 않습니다.
- ◇ 남의 앞을 지날 때는 몸을 숙여 남의 시선을 가리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 ◇ 연주중에는 들락날락하거나 뛰어 다니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 ◇ 옷차림은 가능한 정장이나, 양전한 복장을 합니다.
- ◇ 껌을 씹거나, 음료수·음식물 등을 반입하여 드시면 안됩니다.
- ◇ 휴대폰, 호출기 등 소리나는 물건은 반드시 전원이 꺼져 있는지 확인하고 입장합니다.
- ◇ 공연시작 5분전까지는 입장하여 자리에 앉습니다.
- ◇ 냄새나는 음식을 드셨을 때는 옆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입을 씻고 입장합니다.
- ◇ 7세이하의 어린이는 공연장내에 동반하지 않습니다.(공연장 3층 어린이 놀이방 활용)
- ◇ 화환이나 꽃다발은 입장시 로비에 보관하셨다가 공연후 증정하도록 합니다.
- ◇ 앵콜 연주까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일어서거나 나가버리지 않도록 합니다.
- ◇ 공연장내 휴지나 인쇄물(프로그램, 좌석권 등)을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 ◇ 공연장내에서의 사진 촬영은 연주자의 연주에 방해가 되므로 삼가야 합니다.



상냥개
별난 물건 박물관

10% 할인권

(1매 4인 사용가능)

대상 : 할인쿠폰 소지자 또는 예술단 정기회원카드 제시자
기간 : 2007년 6월 30일까지

해운대 스펀지 3층 TEL: 051-740-4858



Since 1981 - 에스프레소 커피전문점 · 퓨전레스토랑

philharmony

식사 · Wine · Beer · 차를 함께 즐기는
편안한 문화 사랑방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 628-2592

시민의 문화수준은 공연장 관람 질서에서 알 수 있습니다



수준높은 감상을 위한 우리의 마음

- ◇ 혼신의 힘으로 작품에 임하는 예술가의 열정과 관객들의 진지한 감상태도가 같이 만날 때 비로소 예술작품은 향기로운 꽃을 피웁니다.
- ◇ 모처럼 공연장을 찾았다가 공연장 예의를 무시한 일부 관객들의 비문화적 태도로 감상 분위기를 망가뜨리는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 아무리 좋은 작품이라도 올바르게 감상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 ◇ 숨소리마저 죽이고 예술가들의 작품을 경의의 마음으로 감상하는 자세, 이것이야말로 예술 작품을 함께 완성시켜 가는 성숙하고 수준높은 관객의 역할입니다.
- ◇ 부산문화회관은 이러한 공연장 예의를 지키며, 진정 예술을 이해하고 아끼고 사랑하려고 하는 분들을 가장 소중한 관객으로 정성을 다해 모시고자 합니다.
- ◇ 부산문화회관이 품위있고 격조높은 세계적인 공연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음악회에서는 언제 박수를 쳐야 할까?

- ◇ 박수를 언제 쳐야 할 지 모르다면, 많은 사람들이 박수 칠 때를 기다렸다가 박수를 쳐도 늦지 않습니다.
- ◇ 교향곡이나 협주곡 등 악장의 수가 3~4악장으로 되어 있는 곡은 모든 악장이 끝난 후에 박수를 치는 것이 좋습니다.
- ◇ 성악연주회의 경우는 한 작곡가의 곡이 모두 끝났을 때, 연주자가 3~4곡씩 묶어 부를 때는 다 들은 후 박수를 치면 됩니다.
- ◇ 오페라 공연의 경우에는 막이 내릴 때 치면 되고, 곡이 진행중에도 그 오페라의 대표적인 아리아나 혹은 유명한 아리아를 열창하고 나면 환호의 박수를 보내는 것이 예의입니다.(단, 오케스트라의 후주가 끝난후에)
- ◇ 레퀴엠(진혼곡)은 연주가 끝나도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추모의 뜻으로)
- ◇ 앵콜곡을 듣고 싶을 때는 지휘자 또는 연주자가 연주를 다 마치고 인사할 때 박수와 브라보라는 말로 요청합니다.(휘파람이나 고함소리를 내지 않는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의초대 담당자 앞

-

우 편 엽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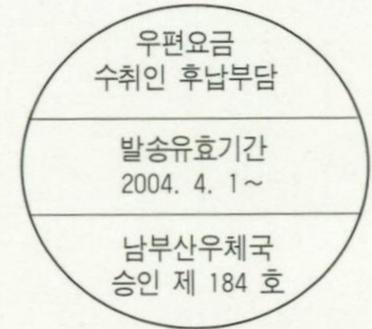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의초대 담당자 앞

-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웰빙 콘서트”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웰빙콘서트’ 공연 일정

- ▶ **금난새와 11시에 만나요!** 2. 8(목) 11:00
지휘/ 금난새 협연/ 김영희(바이올린, 부산대 교수)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 ▶ **박호성과 심수봉이 만나는 11시 립스틱 콘서트** 3. 16(금) 11:00
지휘/ 박호성 협연/ 심수봉, 최의옥, 안주희, 방병원, 박성희, 정선희
연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 ▶ **금난새와 11시에 만나요!** 5. 18(금) 11:00
지휘/ 금난새 협연/ 이성주(바이올린)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 ▶ **박호성과 만나는 11시 해피 콘서트** 6. 8(금) 11:00
지휘/ 박호성 협연/ 대중가수, 국악인
연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 ▶ **금난새와 함께하는 클래식은 내친구** 8. 22(수) 11:00/16:00
지휘/ 금난새 협연/ 박혜령(마림바)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 ▶ **박호성과 만나는 11시 토크 콘서트** 10. 5(금) 11:00
지휘/ 박호성 협연/ 저명인사와 국악인 출연(토크 형식)
연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 ▶ **금난새와 11시에 만나요!** 12. 6(목) 11:00
지휘/ 금난새 협연/ 백재진(바이올린, 동의대 교수)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 공동주최 ■ 부산광역시 부산일보사

■ 공연·예약 문의 ■

- 부산문화회관 607-6042 www.bsculture.busan.kr
- 부산광역시립예술단 홍보부 607-6070

■ 입장권 ■ 균일 15,000원

- 문화회관 홈페이지 www.bsculture.busan.kr
- 부산은행 티켓 365 <http://www.ticket365.co.kr> 1588-2528, 부산은행 전지점

■ 할 인 ■

- 정기회원 : 홍보부에 예약 후 계좌입금회원에 한하여 30% 할인 (1인 4매)
- 단체관람 : 30명 이상 단체신청시 10% 할인 (1인 4매)



라이징 스타 첼리스트 마리 할링크

초청연주회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지휘 · 알렉산더 아니시모프



2007.3.30(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광역시

■ 연주곡목

- 세드린 - 오케스트라 협주곡 제1번 「너티 리머릭」
- 엘가 - 첼로 협주곡 마단조 작품85
- 비제-세드린 - 현악합주와 타악기를 위한 「카르멘 모음곡」

■ 공연문의

- 부산광역시립예술단 홍보부 607-6070
- 부산광역시립교향악단 607-6101~4
- www.bsculture.busan.kr

■ 입장권 / R석 10,000원 S석 7,000원 A석 5,000원

셔틀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 청심꽃조경앞(대연지하철역 5번출구에서 유엔로타리 방향 100M 지점) → 문화회관 ■ 출발시간 : 월~금 19:00

■ 예매처 / 부산은행 전지점
www.ticket365.co.kr

서면/영광도서 (롯데백화점 건너편 816-9500) 동부서적 (제일은행 옆 803-8000) 개금/신개금LG CLS (신개금LG 단지 내 898-9109)
남포동/남포문고 (호림빌딩 1층 245-8911~3) 덕천동/대한도서 (덕천교차로 332-7339) 하단/향학서점 (동아대 입구 204-9381)
대연동/면학도서 (경성대 앞 623-9404)